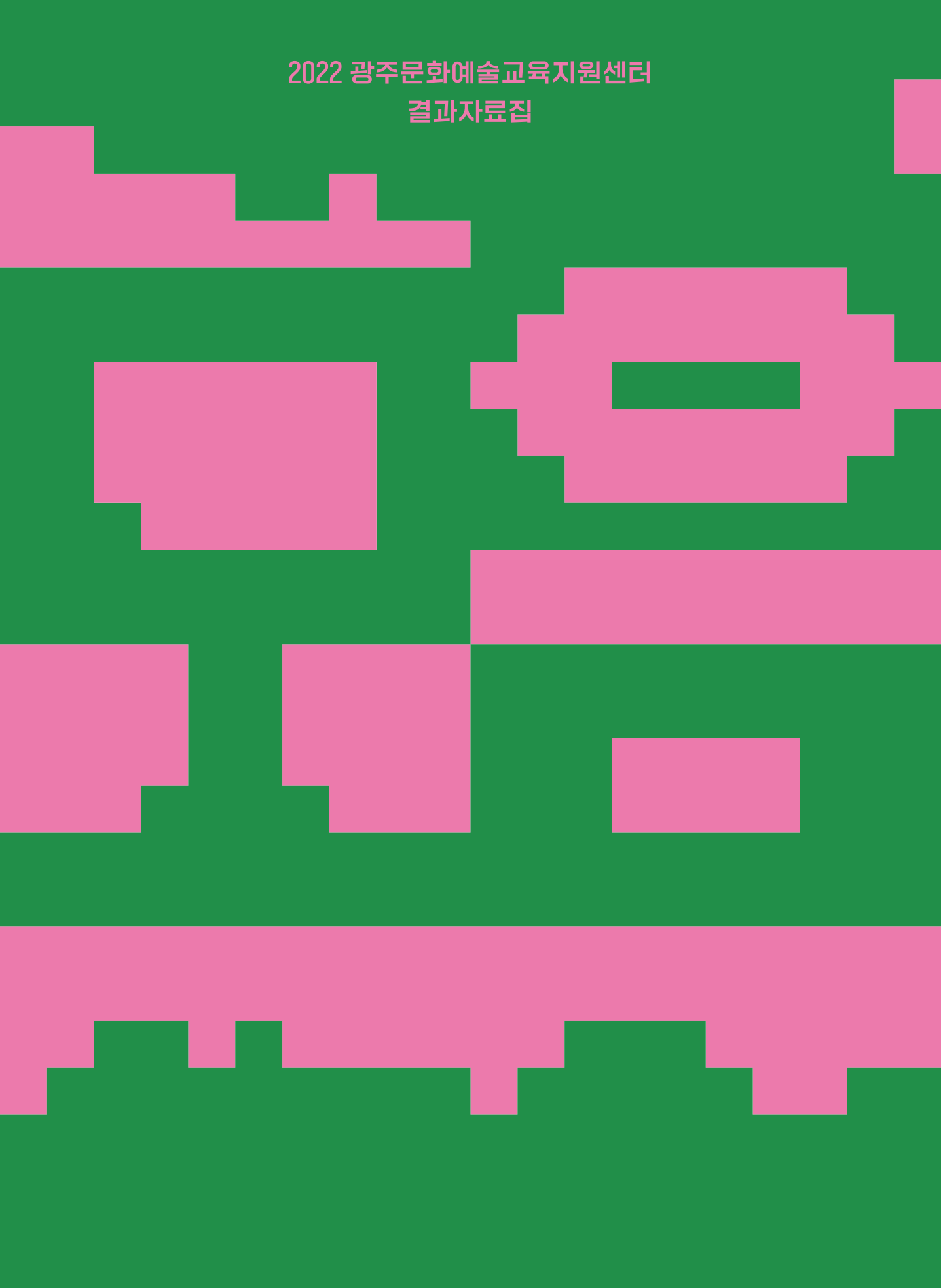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 음

광주문화·예술교육 앞으로, 5년

랩 공간 이벤트
반짝나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뉴스레터 '올리브'
첫! 로고 탄생

다정한 참견

서로배움워크숍
인생라운드샴푸

광주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예술가

대연을 준비하는 마음 높은
꿈나무 워크숍

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우리 모두 예술이 필요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갈망하는 네트워크

다시 : 새길래

말랑말랑

지득·도요·창의 성과공유 워크숍

시원하거나 섬섬하거나

더 좋은 도시를 꿈꾸는 예술 솔루션

제3기 모담지기 중간 워크숍

잠깐 쉬, 같이 성장

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아임 엠 쌤

성리-의
확신

어린이 목소리
다시찾기

창의예술교육팀 멀리 떨어진 영역을 잇는
경계없는 수상한 워크숍

올해이거
에듀이-트랙 제3기

모담지기 가져와 독서모임
모담샴푸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워크숍
관찰은 하루

톡!톡! 누구나-랩(Lab)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예술이 너였어도 귀여워야 보배

창의적

가-치의 회복

유류공간 확장
창의예술교육랩생각 구축

광주문화예술교육 해브로 재탄생시켜!

모음

센터 결과를 한데 모으다

모두가 바쁜 시대에 자음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홀로 있는 **자음**을 보면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을 **모음**을 떠올려 봅니다.

모음 없이 **자음**은 불완전한 형태를 갖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문자가 되고,
문장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합결과자료집 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관계처럼 센터와 지원사업 단체가 마음을 모아
서로를 의지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센터의 **자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모음**이 될게요.

Contents

발간사	007
센터소개	008

자체기획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서로배움	016
어린이 목수축제	024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	030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034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044

기반강화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148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184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20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220
유아문화예술교육	234

정책기반사업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	252
광주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258

함께한 사람들	264
---------	-----

문화재단을 가장 문화재단답게 하는 것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봉년

2022년 10월 어느 멋진 날,
광주문화재단이 가장 문화재단다웠던 풍경을 기억합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 주차장이 아트부스 마당이 되고,
아트스페이스 테라스가 전시장과 예술교실, 교류축제장으로 변신했던 '아트날라리'.
온가족이 하루종일 예술에 흠뻑 젖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야외 주차장과 테라스가
비로소 제 쓰임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문화예술로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축소판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나, 너,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발견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힘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그 중요함이 묻히기도 합니다.
광주를 문화예술교육의 최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도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꿈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입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센터로 지정(2008)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따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구축하고
지원의 효과적 방식과 내용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 총액은 19억원으로
센터 운영 및 기획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시민문화관 내 사무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오픈한
창의예술교육랩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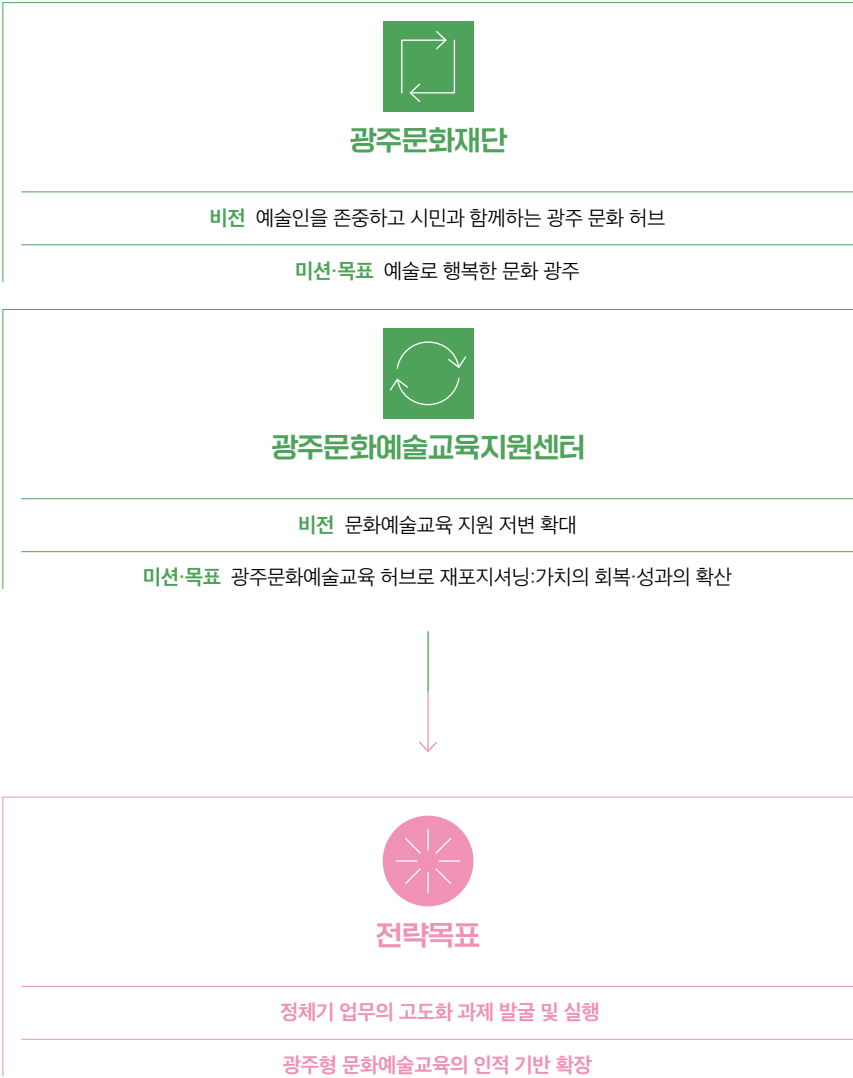


목표 및 핵심사업

2009~2022

해당년도	목표	핵심사업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 허브로 재포지셔닝 : 가치의 회복·성과의 확산	•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수립(2023-2027)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신규) 등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등
2021	예술은 우리들 삶의 활력소, 일상속의 문화예술 교육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 지영씨의 인생부록 등) • 거점예술배움터조성 예술교육살롱 •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등
2020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광주문화예술교육 협력 플랫폼	• 문화예술교육축제운영(비대면 예술놀이 키득키트(Kid-Kit) • 거점예술배움터조성 예술교육살롱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
2019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 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LAB운영 •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
2018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제1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수립(2018-2022) •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
2017	지역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하모니타워	• 50-60대 여성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Ⅳ • 문화예술교육축제(아트날라리, 어린이목수축제) • 문화예술교육포럼
2016	지역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하모니타워	• 50-60대 여성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Ⅲ • 문화예술교육기획자양성사업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등
2015	지역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하모니타워	• 50-60대 여성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Ⅱ • 50-60대 남성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병태씨와 고래사냥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등
2014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50-60대 여성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Ⅰ • 창의예술학교 및 아트힐링스쿨 • 해외교육교류 등
2013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창의예술학교 및 아트힐링스쿨 • 아트힐링스쿨운영사업 • 문화예술교육교류사업
2012	지역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	•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교원연수 •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교원연수 • 문화예술교육교류사업 아트힐링스쿨 등
2011	지역문화 예술교육 인프라조성 생애주기형 교육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 • 상상워크숍 운영 등
2010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 광주문화예술교육콘텐츠 연구개발 등
2009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 광주문화예술교육콘텐츠 연구개발 등

전략목표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 허브로 재포지셔닝:
가치의 회복·성과의 확산

1. 자체기획사업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서로배움
- 어린이 목수축제
-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
-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 통신문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2. 기반강화사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 유아문화예술교육

3. 정책기반사업

-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2023~2027)
- 광주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서로배움

어린이 목수축제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자체기획사업

자체기획사업은 센터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역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서로배움

문화예술교육기반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구축



사업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서로배움'
사업기간	2022. 4. ~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자를 대상으로 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문화트렌드를 함께 이야기하며 현장 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대상별 프로그램 실행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핵심 주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경험 및 새로운 발상을 촉진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경험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의 역량강화 및 신규 콘텐츠를 함께 실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 마련
사업예산	23,000천원

주요성과

8차 시 / 180명 참석 24명 수료

서로배움워크숍 인생라운드 샵#
무용한시간(1회) 및 세상힘한문화예술교육(7회)

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워크숍
'아이 엠 쌤'개최

35명 참석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다정한 참견'개최



서로배움워크숍 인생라운드 샵#

“
 건다 보면 조금만 고치고 닦아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거리에 많습니다.
 유기사물구조대의 활동을 보며 물건을 쉽게 버리는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말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술로
 승화해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려면 저부터 계속 힌트를 만들어야겠다고요.

인터뷰이 천근성 피스오브피스 대표

인터뷰어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2022. 7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

“선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얇게 잘라서 옆으로 붙인다”, “옆으로 더 길게 그린다”, “작게 자른 점들을
 차례대로 놔서 길어 보이게 만든다.”라고 답했다. 그는 선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동그라미라며 순환에 대해 말했다.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문화예술을 생각할 수 있었다. 모든 생명을 위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씨앗이 자라고 역사사지로 다른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강술생 작가는 네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인터뷰이 강술생 생태미술가

인터뷰어 박혜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7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행사명	2022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서로배움워크숍 인생라운드샵 #
일시	2022. 5. 4.(수) ~ 6. 28.(화)
참여자	180명 / 만족도 : 92.6%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에 근무를 하면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직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향유 프로그램 체험 • 참여 대상자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획 및 운영사례 공유 및 라운드 테이블 운영 • 타 지역 기획 사례 및 운영 공간 탐방을 통한 선진지 사례 탐색
주요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한 시간 : 나와 너를 온전히 만나는 예술적 120분 / 참여자 14명 • 세상 힙한 문화예술교육 2~7차시 / 참여자 166명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획 전 문화예술 관련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체험, 강연,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타 지역 문화예술공간을 탐방하며 상호 배움·성장의 계기 마련 • 문화예술현직자,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가,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무자의 다양한 고민과 문화예술교육 접근법에 대한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장을 마련 • 참여자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 강화 • 워크숍 이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형성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로 이해하는 문화예술교육<정민룡> - 무엇을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할까?<강승진>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 연극으로 놀아볼까? <김민나> - 문화놀이터가 된 연초제조창 <청주 동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 무엇을, 어떻게, 왜?<안민영> - 예술작업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소환될 때 : 서울아까워센터<천근성> - 이것도 문화예술교육? : 생태, 창작과 교육사이<강술생>
---	---

교사대상문화예술교육워크숍 아이 엠 쌤



행사명	교원대상문화예술교육경험워크숍 '아이 엠 쌤'
일시	2022. 8. 8.(월) ~ 8.12.(금)
연수장소	광주학생예술누리터(광주 중앙초등학교)
참여자	지역 내 초·중등 교사 24명 수료 / 만족도 : 9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실무연수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문화예술역량강화를 통해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교과내용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융합하여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교육워크숍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참여자들의 교육역량 및 기획력을 강화하여 창의예술교원을 양성하고자 함 • 초·중등 교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 영역 기반을 제공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학생예술누리터
주요프로그램 구성	16개 프로그램 ※ 광주문화재단 : 5개(세상의 모든 오브제로 놀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 11개(예술의 다양성 체험)

추진 성과

- 광주문화재단**
- 지역 예술가 및 기획자, 전국적 지명도의 예술교육 특화 교사 및 전문 예술가 등 다양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임.
 - 광주학생예술누리터와 처음으로 공동주관한 5일 일정의 연수임에도 예술경험 및 현장활용 가능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출석을 및 호응도가 높았음.
 - 사업 시작 전 OT프로그램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 참여자의 시설물 이용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안내 필요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 교원들에게 광주학생예술누리터 및 예술 프로그램 홍보 성과를 거둠.
 - 2022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야간 문화예술연수 프로그램 기획에 재단의 도움 필요
 - 지역 내 예술 전문강사 육성·발굴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다정한 참견



행사명	문화예술교육 서로배움 워크숍 '다정한 참견'
일시	2022. 11. 16.(수) ~ 2022. 11. 17.(목)
연수장소	담양리조트
참여자	35명 / 만족도 : 81.8%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을 통해 주체별(기획자, 단체, 강사, 예술가 등)의 네트워크 형성 • 문화예술교육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현장 요구사항 확인 및 발전방향 마련 • 주체별 의견 수렴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예술역량강화를 통해 광주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질적 성장을 도모
주요프로그램 구성	[워크숍] 사물들의 사정 [강의] 기꺼이 연습하는 자리, 동네 [워크숍] 관점의 지형도 [워크숍] 반응으로 쌓이는 레이어 [강의]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는 일에 관하여 [워크숍] 난 너가 궁금해 [워크숍] 다정한 참견

- 추진 성과
-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의 현장의 요구사항 등 접수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
 - ※ 분야별, 역량별 직무연수 프로그램 편성
 -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의 워크숍(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추진방법 확인
 - 문화예술교육자의 목표 및 향후 방향 등의 설정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의견 수렴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한 단계 성장



단순한 목공체험이 아닌 노동과 놀이의 가치를 깨달으며 타인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노작예술프로젝트

단순한 목공체험이 아닌 노동과 놀이의 가치를 깨달으며 타인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노작예술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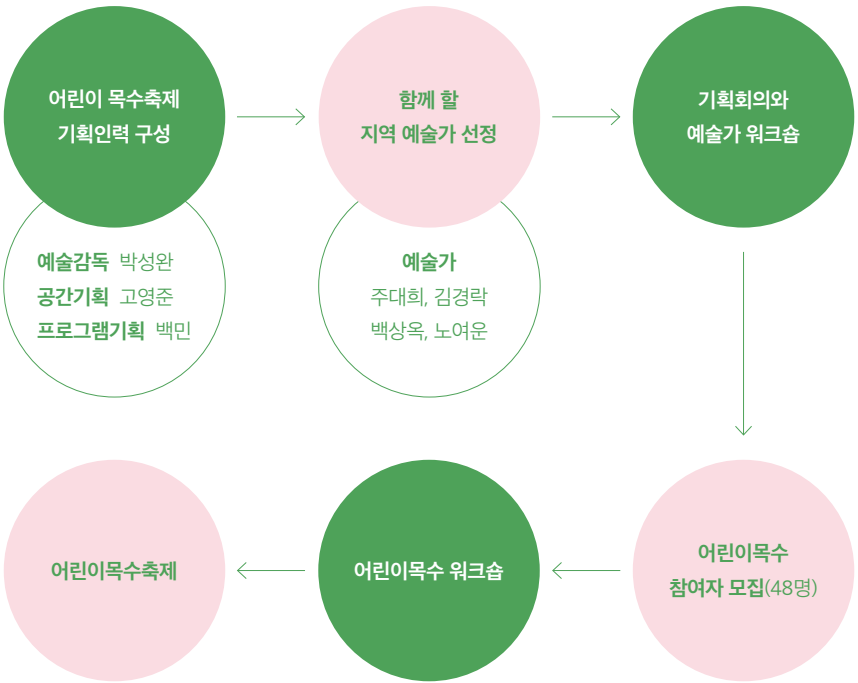
9 ^명	48 ^명
기획자 및 예술가	참여어린이



1. 자체 기획사업



결과영상
보러가기



추진내용

콘셉트

오색찬란한 오방성에는 4명의 예술가들이 살고 있어.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볕에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성이 사라지고 있대.
3일 동안 똑딱똑딱 성을 다시 지어줄 어린이 목수를 찾고 있어. 기술은 필요 없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망치만 있으면 돼.
용기 있는 너의 선택 기다릴게. 우리와 함께 해줄래?

목수축제3일간의 과정

	첫째 날 9월16일	둘째 날 9월17일	셋째 날 9월18일
10:00	어서와요, 반가워요! : 등록, 환영 인사	오방성 외부공사 : 똑딱 외곽 완성하기	나무 놀잇감/ 오방성축제 II : 나무 놀잇감 나에게 선물 : 미션, 황금성 비밀을 풀어라
11:00	튜토리얼 미션 : 예술가와 나무 만나기		오방성 무너뜨리기 : 오방성 해제하기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14:00		오방성 내부공사 : 똑딱 내부 공간 꾸미기	
15:00	오방성 설계회의 : 설계회의		
16:00	: 성의 뼈대 성곽쌓기		
17:00		오방성 축제 I : 윷놀이판이 된 오방성	
18:00			



똑딱똑딱 오방성 완성

오방성	예술가와 운영강사	오방성 소개
동쪽의 해적단	주대회, 박제현, 이한결	“별 빛나는 블루~” 해적단이 되어 해적선과 무기를 만들자
서쪽의 흰색 양	김경란, 윤준영, 성종민	“양양~ 서쪽~ 양”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여 양떼구름을 만들자
남쪽의 핫도그	백상옥, 손연우, 오성현	“핫도그~~ 왈왈” 남쪽성을 지키는 붉은 개를 만들자
북쪽의 한우한우	노여운, 안지혜, 윤석문	“한우한우 우~~” 별이 빛나는 검은 북쪽성을 만들자



문화예술축제 아트날라리

2022년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교육 프로그램 및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홍보하고자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Party’ 예술이 널렸어도 께어야 보배

“
광주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함께 놀아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고요.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광주에 꽤 많이 있는데,
아트날라리를 통해 만나서 소통하면 각 단체의
한계를 넘어 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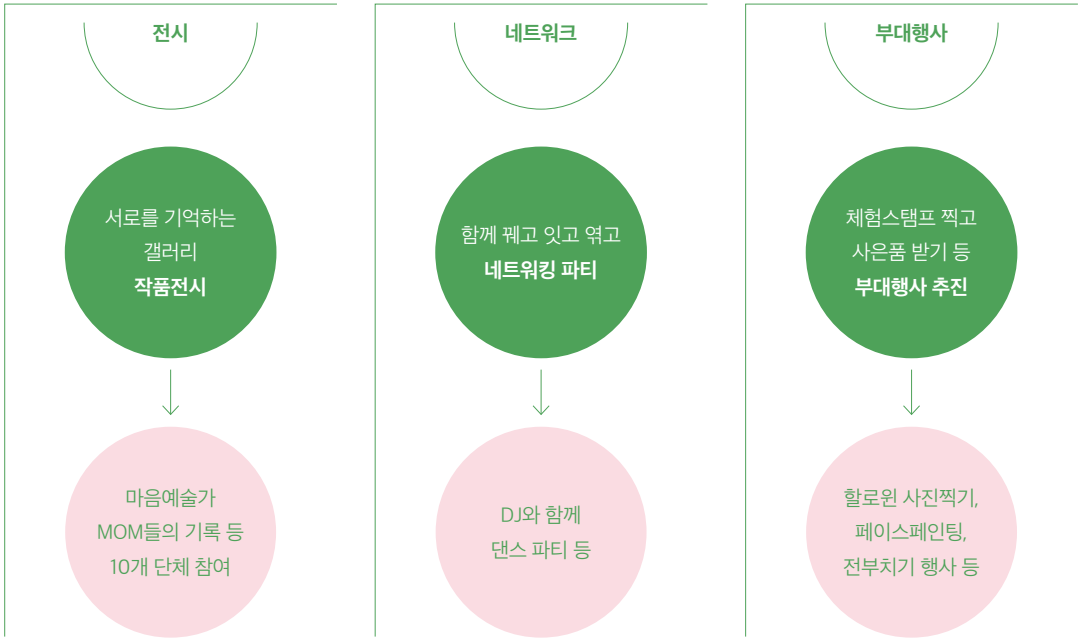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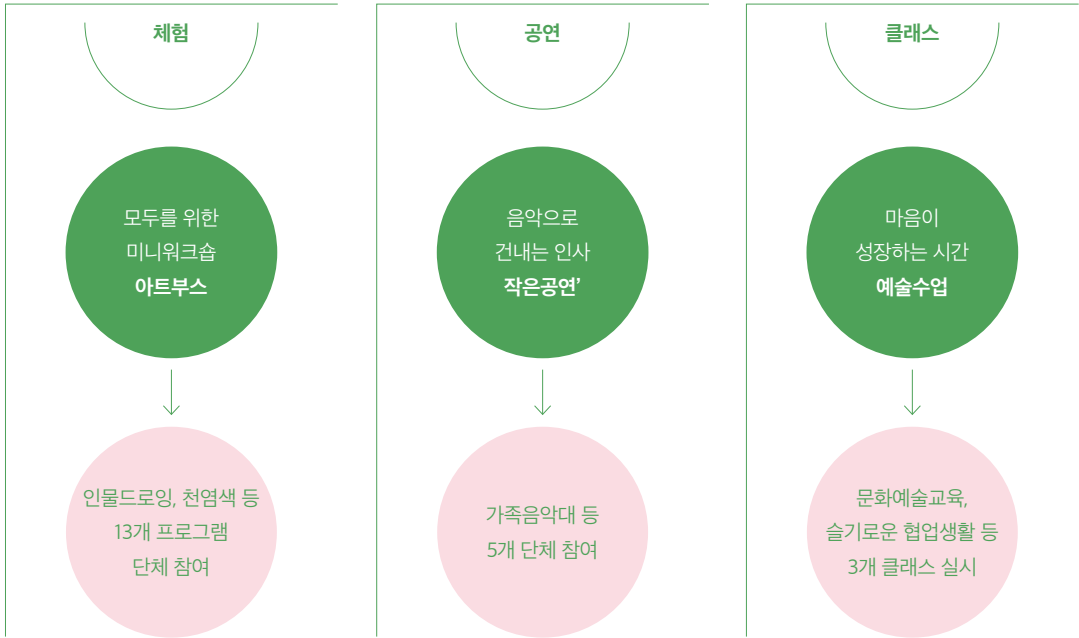
인터뷰이 홍윤진 루트머지 대표
인터뷰어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2022. 11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사업명	2022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Party'예술이 널렸어도 께어야 보배
사업기간	2022. 9. ~ 11.
사업내용	광주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로 광주문화예술교육단체 간 소통, 협력,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축제
사업예산	40,000천원

주요성과	1,839 ^명 방문 및 참여객	31 ^개 단체 운영프로그램 체험, 전시, 공연, 클래스 등의 단체 참여
	40 ^회 홍보실적 SNS(인스타, 페이스북, 카페 등)	2 ^회 홍보실적 방송(국악방송, KBC 등)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 는 질문에서 시작해
광주에 필요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



사업명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톡!톡! 누구나랩(Lab)'
사업기간	2022. 10. ~ 2023. 2.
사업내용	다양한 분야(건축·인문학·교육·패션·음악 등) 전문가들이 만나 관심 영역을 확장해 이질적 만남(랩) 결성하고, 스터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예산	300,000천원
주요성과	

44^명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발굴
랩 참여 연구진

6^개

랩 연구주제 개발

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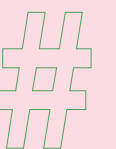
주제결정·연구진 구성 회의
(2022.12월 기준)

창의예술교육랩실^{구축}

재단유희공간 활용

창의예술교육랩 키워드

- #경계없는 상상과 실험
- #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
- #더 좋은 도시를 궁리하는 예술 솔루션
- #지역 혁신가들이 함께하는 지적 탐구와 협업
- #과학을 예술적으로 예술을 과학적으로
- #멀리 떨어진 영역을 잇는 창의적 연구
- #공간 활성화
- #다양한 대상자 연결
- #놀이
- #다르게 보기



진행과정



랩 연구진
구성

>

랩별 정기회의
진행

>

예술실험
진행

‘22. 11월

- 6개 랩별 다양한 분야 연구진
구성(44명)
※ 랩별 4~8명

‘22. 11월 ~ ‘23. 2월

- 「창의예술교육랩실 I·II」에서 랩별
정기회의 (스터디모임)
※ 매주 랩별 회의 진행

‘22. 11월 ~ ‘23. 2월

- 6개 랩별 예술실험(전시·퍼포먼스
등) 진행

랩
성과공유회

>

우수 랩
선정

>

2023년도
확장

‘23. 2. 16

- 6개 랩 스터디모임 결과 공유회

‘23. 2월초

- 6개 랩 중, 우수 랩 선정

- 2022년도 우수 랩을 2023년도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 및
현장 시연

세부 진행내용

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6회)	<div><p>‘22. 2. 25.(금) 미디어아카이브실</p><p>‘22. 4. 19.(화) 미디어아카이브실</p><p>‘22. 4. 21.(목) 북구 무등로 일대</p><p>‘22. 6. 20.(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p><p>‘22. 7. 5.(화) 재단</p><p>‘22. 8. 4.(목) 광주 시청</p></div> <div>신규사업 계획수립 위한 의견수렴 스터디모임 구성을 위한 분야별 참여진 추천 타영역과의 결합 수요 조사 등</div> <div></div>
2	경계없는 수상한 워크숍(1회)	<div><p>‘22. 8. 22.(월) 광주시민회관 1층 카페</p></div> <div>장르 불문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 형성</div> <div><p>48명</p><p>기획·예술가·교사·장학사·시의원 등 광주 문화예술교육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누구나</p></div> <div></div>
3	랩 주제 결정 회의(5회)	<div><p>‘22. 9. 22.(목)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p><p>‘22. 9. 29.(목) 창의예술교육랩실</p><p>‘22. 10. 9.(일) 금남로 가구의 거리</p><p>‘22. 10. 17.(월) 창의예술교육랩실</p><p>‘22. 10. 19.(수) 창의예술교육랩실</p></div> <div>신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등</div> <div></div>

4 랩 연구진 구성 워크숍(1회)

'22. 10. 18.(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6개 주제별 관심있는 분야에 장르불문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그 관심분야에 대해
각자의 영역을 잇고, 결을 맞추는 스터디 모임

37명
기획·예술가·교사 등 광주 문화예술교육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누구나



5 랩 정기회의 진행(매주)

지속

'22. 11. 16.(수) ~ '23. 2월 창의예술교육랩실

6개 랩 주제별로 매주 정기회의 추진
(월 30시간 - 그룹스터디 16시간+개인스터디 14시간)

6개 랩 소개합니다



시민걸음 탐구

일상의 광주, 걸음 탐구를 다양한 분야 연구진의 시선과 철학으로 탐험해 보는 모임



광주를 놀이터로

각자 삶 속에서 놀이를 통해 틈을 만들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보고, 광주에 이미 있는 놀이터가 아닌
일상의 공간 중 놀이터를 재발견하는 모임 '함께 놀면서 기쁜 일이 넘치는 삶터를 연구하는 모임'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 보기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시선을 연구한다.
도시·공존·생명·존엄·인간으로 도시를 지배하던 시선에서 더
많은 생명의 눈으로 넓고 깊게 바라보는 모임



광주 안의 타자

광주 안,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광주 안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와 세계의 만남을
사건으로 만들어 내는 모임



요리와 이야기

지속가능한 음식에 관심을 시작으로 낯선 존재들이 모였다. 맛에
대해 이론화하고, 연주하면서 음악만 들어도 그 요리의 맛을 알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음식 실험을 하는 모임



시민행동을 예술프로젝트로

이야기가 통하는 다정한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 각자 영역에서
이미 기후정의 관련 행동·실천으로 작업한 사람들이 모였다.
기후위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모임

함께 스터디하는 사람들 | 44명

랩 명	구분	이름	활동분야	한줄 소개
시민걸음 탐구 - 8명	랩장(1)	오주현	#예술 #치유	부드러운 리더십
	책임연구원(1)	윤혜정	#음악 #결합	일상 탐험가
	전문연구원(6)	김주영	#문화인류 #소수민족	무심한 듯 세심하게 바라보기
		박정은	#건축 #도심재생	어쩌다 한번은 진취적이고 싶다
		송진주	#기획 #전시	경험에서 오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자
		정 란	#아카이브 #사진영상	보이는 건 다 흥미롭다
		정다운	#인지학 #의학	배우고 행동하고 나서야 생각하고 다시 배우는 사람
		김나라연	#패션 #기획	다양한 관점으로 융합과 결합을 시도하자
광주를 놀이터로 - 8명	랩장(1)	이호동	#놀이 #결합	놀아야 산다
	책임연구원(1)	임의현	#문화기획 #영상	일놀 놀일을 꿈꾸는 요즘 애
	전문연구원(6)	김동준	#조각 #사진	놀고 있네
		임 웅	#음악 #작사	놀아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지
		양소정	#기획 #행정	즐기는 놀이의 삶
		송명희	#교육 #결합	놀이가 밥이다
		최인영	#영상 #융복합	놀자~
		김설아	#생명체 #서양화	그리며 놀자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 보기 - 8명	랩장(1)	김옥진	#기획 #예술	하는 일은 백가지인데 잘하는 일은 없음. 그런다고 딱히 못하는 일도 없음.
	책임연구원(1)	김수민	#미디어 #교육	잘 만든 창작물은 삶의 즐거움. 영화를 좋아함
	전문연구원(6)	박미애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	예술가와 같은 마음으로 교사되기 중인 23년차 특수교사. 여전히 배우는중
		박인선	#기록 #그림	보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노은영	#풍경화 #자연	폭풍공감 INFP 동물애호가
		강 철(강선철)	#음식 #사진	사진보다는 찍는 순간 그 시간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진가
		김대선	#도서 #출판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
		육수진	#영상 #교육	삼계절은 명량함

랩 명	구분	이름	활동분야	한줄 소개
요리와 이야기 - 8명	랩장(1)	김진아	#음식 #현대미술	노래하듯 즐겁게 라라
	책임연구원(1)	이 선	#미학	연구는 내 일상
	전문연구원(6)	이승규	#재활용 #작곡	나와 너는 파도의 만남
		유태선	#국악 #공연	위험하지 않으면 위대할 수 없다
		이 산	#철학 #퍼포먼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사 군	#기획 #음악	날 것의 냄새
		이하영	#기획 #전시	참고 사례는 저에게 물어보세요
		김영대	#자연 #농부	농사를 우리 삶 가까이
광주 안의 타자 - 4명	랩장(1)	오은영	#기획 #인문학	리더 아닌 듯한 리더 지향
	책임연구원(1)	이보미	#기획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은 내게 맡겨
	전문연구원(2)	임재은	#전통예술 # 관광	젊은 피
		임다현	#작가 #오브제	예술가 입니다
시민행동을 예술프로젝트로 - 8명	랩장(1)	추말숙	#연극 #문화예술교육	사람 좋아하는 백만스물 하나
	책임연구원(1)	송선미	#음악 #기획	사무직일 것 같은 예술가
	전문연구원(6)	양채은	#기획 #연극	편한 옷이 좋은 시
		최윤미	#공간 #기획	날씨 따라 변하는 소심 I
		양나희	#유화 #삶과 풍경	사부작 사부작 꿈꾸미
		조수현	#메이커스페이스 #강사	P 중에 제일 J
		최유미	#기획 #행정	내 미모 결과주의자
		김자이	#예술 #문화	쉬고 싶은 J

랩실 I

공사 전



공사 후



54.07^m
16 평

그룹스터디 공간
前 극장 관객 센터

랩실 II

공사 전



공사 후



43.64^m
14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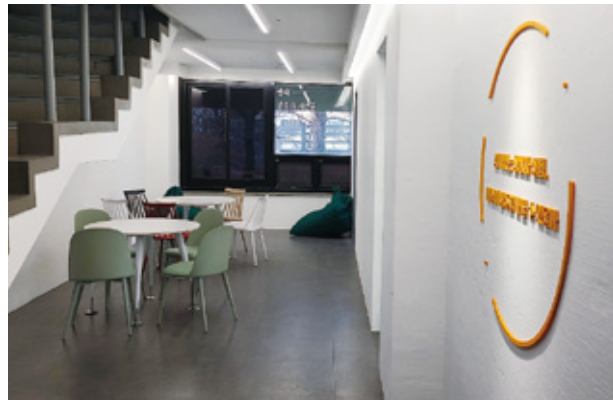
개인스터디 공간
前 물품 창고

복도

공사 전



공사 후



연구진 센터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지역 곳곳 생생한 소식·정보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허브플랫폼



사업명	통신원제(모담지기) 및 허브사이트(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업기간	2022. 1. ~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사이트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DB화 및 외부와의 소통 플랫폼 홈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온라인 소식지 월간 ‘뉴스레터’발간 • 통신원제 : 지역 청년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교육 현장 곳곳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운영(제 13기 모담지기)
사업예산	1,980천원

주요성과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22. 4. ~ 9.

뉴스레터 ‘울림’ 첫 로고 탄생

‘22. 6월
로고배치 : ‘22. 6월호(104호) ~ 지속

8회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울림’ 발간
103호(‘22. 5월호) ~
110호(‘22. 12월호)

3,000^명

뉴스레터 ‘울림’ 발간 구독자

6^명

제13기 모담지기 선정 및 활동



2022 광주문화예술포럼 결과자료집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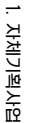
2022 광주문화예술포럼 결과자료집 모음

1. 자체기획사업

1. 자체기획사업

- ## 1. 자체기획사업

1. 자체기획사업



진행과정

모담지기 모집

'22. 3. 23.(수) ~ 4. 8.(금)
(주말 포함 17일간)
모집 공고

모담지기 선정을 위한 심사

'22. 4. 12.(화) ~ 4. 13.(수)
서류 및 Zoom 심사

제13기 모담지기 최종선정

'22. 4. 15.(금)
6명
고유진, 김수진, 박혜영, 오솔비, 이소영, 정혜원

발대식 및 워크숍

'22. 4. 22.(금)
위촉장 수여 및 통신원 글쓰기 강의

매월 문화예술교육현장 취재

취재 46건
지특·토요·교육사 등 인물 및 현장취재

중간 워크숍 '심'

'22. 7. 23.(토)
센터 활동 중간점검, 글쓰기 강의

모담지기 자체 독서모임 '모담살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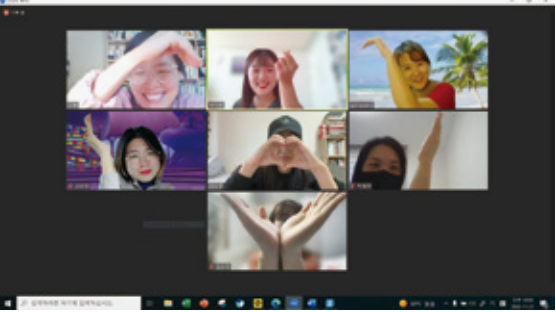
'22. 4. 22.(금)
위촉장 수여 및 통신원 글쓰기 강의

성과공유 워크숍 1차

'22. 11. 23.(수)
소규모 활동 소감 이야기

성과공유 워크숍 2차

'22. 11. 27.(일)
활동 소감 및 자체 독서모임 '모담살롱' 책 총괄후기



제13기 모담지기들

모담지기를 마무리하며...

고유진

모담지기 활동하며 현장 전문가들을 보며 기대되는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이기에.

기대되는

두려운

김수진

모담지기 활동하며,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때론 막막하기도 했지만 과정 속에서 난 분명 성장했다.

막막한

만족스러운

박혜영

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모담지기로 활동하는 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는 것이 재밌었다.

부끄러운

재미있는

오솔비

부끄러운 나의 이십대였는데 용기있는 장면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준 모담지기.

부끄러운

용기있는

이소영

모담지기 활동을 하며 광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나 열정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열정

자랑스러운

정혜원

모담지기 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예술세계가 너무 재미있었다. 올해 인터뷰 글을 작성하며 실수도 하고 수정도 했지만 그로 인해 발전된 나를 보며 내년의 내 모습이 기대가 되었다.

재미있는

기대되는

월간 뉴스레터 ‘울림’ 제작 및 발송

사업기간	'22. 3. ~ 12.
진행내용	뉴스레터 ‘울림’ 모담지기가 취재한 원고와 문화예술교육전문가 기고문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소식지로 매월 중순쯤 구독자 메일로 발송
진행결과	뉴스레터 ‘울림’ 발간 : 8회 103호('22. 5월호) ~ 110호('22. 12월호) 뉴스레터 울림 구독자 : 3,000명

뉴스레터 울림

<div><div>103호</div><div>'22. 5월호</div><div>너를 생각하면 가슴 속에 새싹이 돋아나 연초록 빛 야들야들한 새싹 - 나태주 '봄의 사랑' -</div></div> <div></div>	<div><div>104호</div><div>'22. 6월호</div><div>문화예술교육 경계를 넘어</div></div> <div></div>	<div><div>105호</div><div>'22. 7월호</div><div>이것도 문화예술교육이 되나요?</div></div> <div></div>	<div><div>106호</div><div>'22. 8월호</div><div>변화의 날갯짓, 같이 성장</div></div> <div></div>	<div><div>107호</div><div>'22. 9월호</div><div>누구나 특별하다</div></div> <div></div>	<div><div>108호</div><div>'22. 10월호</div><div>내가 웃어야 세상도 웃는다</div></div> <div></div>	<div><div>109호</div><div>'22. 11월호</div><div>누구나 마음 속에 어린이가 살고 있다</div></div> <div></div>	<div><div>110호</div><div>'22. 12월호</div><div>어느새 달력이 한 장 남았다</div></div> <div></div>
--	---	--	--	--	---	---	--



●
우리 선생님은 화가
<자연에서 모내기하며 수업하는 작가 박문중>

취재 | 고유진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 박문중 작가

2022년만큼 n잡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딱 십 년 동안 n잡하며 살아온 작가가 있다. <우리 선생님은 화가>의 주인공 박문중 작가를 만나기 위해 담양 수북에 있는 작업실로 떠났다.

㉠. 우연히 특강을 들었는데 수업 중에 모내기한대서 놀랐어요.

담양 살면서 자연과 어떻게 놀고 어떻게 작업할까 좀 고민했어요. 2008년에 광주비엔날레에서 흥어 작업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고민하다가 모내기라는 형태가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고 2012년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북구문화의집에서 <땅과 예술>이라는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이들한테 놀면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같이 어려운 일이 또 없어요. 주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들고 밖으로 나온 자체로 성공했다고 봐요. 하지만 또 그다음이 문제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자기 나름의 시선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가 문제죠. 아이들마다 접근하는 법이 다르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오히려 환경을 갖추기는 쉬울 수 있어요.

㉡. 환경을 제공하기 쉬워도 수업을 이끌기는 어려운가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은 짧아요. 수업은 겨우 두 시간인데 여기서 집중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면 끝나요(웃음). 30분 넘게 집중하는 날에는 속으로 '잘됐군! 대박이다.'라고 외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놀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자 하죠. 간단하지 않죠. 머릿속에 이미 어떤 풍경이 들어와서 물감으로 바로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손을 못 대는 아이도 있고 알아먹을 수 없을 만큼 작품이 난해하기도 해요. 같은 나이여도 천차만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미술의 어려움이기도 매력이기도 해요. 이때 집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놀이예요.

여름날에는 물 달리기를 해요. 물 달리기는 그림으로 보면 선긋기 같은 것이죠. 2L 페트병을 들고 공터에서 100미터 경주 라인을 그어 놓고 병 속 물을 길게 흘리며 가는 일종의 시합인데, 굶든지 째든지 길게 가야 해요. 선을 길게 이으며 달리는 게 은근히



뜨거운 햇빛과 매미 소리,
물감들이 뽀족한 작업실에서
박문중 작가

힘들어요. 끊기지 않도록 애쓰면서 힘의 균형을 신경 쓰다 보면 아이들도 이 놀이가 간단하지 않다고 깨닫죠. 그리고 이걸 미술 수업으로 가져와요. 여러 행위 속에 미술 요소를 자꾸 넣어서 아이들과 같이해요.

㉢.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하게 되었을까요?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업하고 전시하는 터줏대감이었어요. 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이 대인시장 예술 감독이었고, 그렇게 북구문화의집 수업을 자연스레 시작했어요. 2012년 6월에 담양 동네 눈을 빌렸고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모내기를 했어요. 어린 모를 물에다 심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모내기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접점 같았어요.

㉣. 모내기가 인간과 자연의 접점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같이 물에서, 진흙탕에서 들어가 논다는 것이 흥미로워요. 눈에 들어가면 살에 닿는 감촉이 묘하잖아요? 싫다고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 좋아해요. 이렇게들 좋아하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되겠다 싶었어요. 무엇을 그릴 것인가 생각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장치로서 자연을 구심점으로 삼았지요.

㉤. 자연과 함께하는 수업은 작업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듯해요.

1970년대부터 그림을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조선시대의 농경문화와 농경도에 대해 논문을 썼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웠어요. 논문을 쓰고 담양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농촌 풍경이 아니고 경작지, 그중에서도 밭 말고 논으로 좁혀 갔어요. 남도의 서정적인 정서가 담긴.. 토속적, 향토적인 정서가 담긴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 작업을 수업에 녹여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실마리를 찾을 때도 있는데, 그들은 과감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바로 해요. 그 작은 손으로 그리는데 진짜 에너지를 느껴요. 작가들은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점 하나 찍으려고 몇 번을 지웠다가 말았다가 하거든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주저 없이 작업해야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생각하죠. 제가 아이들을 보고 배우듯이 아이들도 제 기법을 알게 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죠.

㉠. 요즘 ‘예술가 교사’라는 말을 쓰지요. 예술가와 교육자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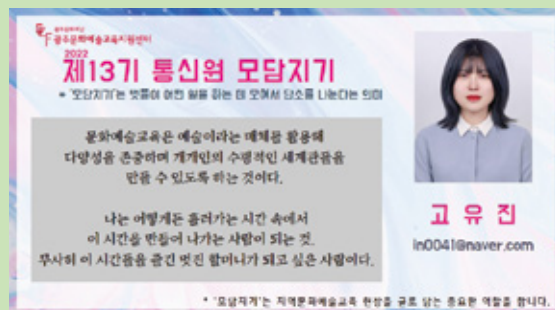
저를 교육자로 보기는 어렵죠. 예술하고 있으니까 그냥 작가라고 생각해요. 수업은 창작이라는 아주 기본 틀을 갖고 있어요. 예술도 창작이 기반이고요. 창작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예술교육에 관심을 두겠죠. 제가 하는 예술이 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비 올 때는 밖에 나가서 그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지요. 저는 일부러 비 오는 날 큰 한지를 챙기고 일회용 우비 입고 아이들이랑 나가요. 아이들의 상식은 어른들과 달라서 비 오는데 왜 내가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지는 서양의 캔트지와 다르게 직조성이 있어서 비를 맞고 풀어져도 신축성이 있어요. 수묵화는 물을 가지고 하는 그림이라 종이가 젖어도 그릴 수 있고요. 큰 한지를 펼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려 놓고 보면 빗물에 그림이 번지는 등 견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재밌죠. 애초 아이가 의도했던 그림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리니까 더 재밌네’라며 이해하는 폭을 넓혀요. 이들을 예상 밖으로 이끌 수 있으니 재밌죠.

보편적으로 스케치북 가지고 나가서 풍경 하나씩 그려오는 것도 미술이에요. 어떤 수업이 더 우수하나는 수업 내용에 있지 않아요.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고 표현을 해냈느냐에 달려있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장치를 두는 일이 교육자의 임무이고, 교육자 스스로 이야깃거리를 계속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정이란 결과가 다 재미있어야 아이들이 집중해요. ‘뭘 그릴까’하는 고민에서 더 발전할 수 있게 교육자들이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떠들면서 “어떤 게 관찰나”, “이게 산이 높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강이 있는데, 어찌고 저찌고.....”라고 조잘거리면서 자꾸 말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말해줘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요즘엔 미술 치료도 있고, 교수법도 다양하다지만 전 잘 몰라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 나눌 뿐이죠.

꽃무늬 농사 모자와 낫, 붓과 물감이 있는 곳에서 박문종 작가와 만났다. 자연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며 작업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지역작가 초대전 『이상적인 참나』 part1. 박문종 <나는 땅에서 났다>(10월 2일까지)의 전시 소식을 전하며 꼭 가보길 추천한다. 우리 선생님은 화가니까.



생태계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중앙공원 예술꿈터

취재 김수진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김정화 메이아이 대표

독일 식물학자는 “7세까지 사람은 자연과 연결돼있는 것을 느끼며 이 시기에 자연과 함께해야 성인이 돼서도 자연과 어울려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리 중요한 때에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환경을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 ‘메이아이’ 김정화 대표는 칼럼을 쓰거나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렇게 자연을 거부감 없이 만나게 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다가 문화예술교육가가 됐다.

㉠. 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비효과’다. 지금은 미미할지라도 꾸준히 한 방향으로 행동하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는다.

㉠. 현재 하는 활동들

자연과 환경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가로 일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자연순환 네트워크’ 위원이고 환경과 관련해 바른쪽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활동하려고 한다.

㉠. <중앙공원 예술꿈터>란

중앙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공원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록하며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이다. 원래는 간단한 체험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주로 창작을 한다. 중앙공원의 식물 등으로 페이퍼 콜라주와 탁본을 하고, 돌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자연 도감을 엮는다. 이들이 사회에 문화예술로 공헌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예술꿈터로 이름 지은 이유

이곳이 예술로 꿈꾸고 그것을 펼치는 공간이 되길 바랐고, 같이 작품을 만들고 서로 보는 행위가 전시와 갤러리 탐방과도 같아서 예술꿈터라 지었다.

㉠. 특히 중앙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앙공원은 풍암동, 화정동, 금호동 등 다섯 개 동에 걸친 광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지만 곧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라질 듯하다. 누구에게도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 생태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현재를 남기고 싶어서 올해는



중앙공원의 돌로 만든 조각품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디어로 하는 기록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연·예술·영상을 융합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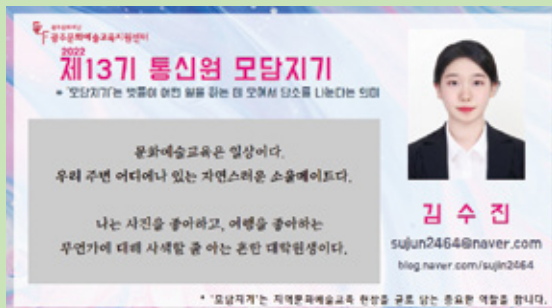
㉠.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것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협력하며 더 좋은 방안을 계속 찾으려 한다. 함께 알리고 행동해 나비효과처럼 변화가 시작된다면 나아갈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 <중앙공원 예술꿈터> 참여자 정소영 씨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그냥 나무구나...’하고 지나칠 수 있다. 그런데 예술꿈터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이름과 특성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무도 꽃도 벌레도 더 특별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

헤어지는 길에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아주 먼 나라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의 나비효과를 다시 떠올렸다. 김정화 대표와 예술꿈터의 작디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리라 믿는다. 나도 곁에서 작게 팔랑이고 싶다.



삶디에서 모두 웃음꽃이 필라

취재 박혜영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정린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진로팀 팀장 '필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에 있다. 복적이는 거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주로 13세~19세 청소년들이 오지만 20세부터 24세 사이인 후기 청소년들도 꽤 있다.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성인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대관할 수 있다. 여기엔 특별한 문화가 있다. 평등과 자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대변하는 호칭이 아닌 별칭만으로 서로를 부른다.

이곳은 줄여서 '삶디'라 하고 강사라는 단어 대신 '고리', 직원 대신 '버리', 학생 대신 '노리'라는 호칭을 쓴다.

고리 청소년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어른

버리 청소년과 함께 여러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순우리말로 일이나 글에서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뜻함)

노리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누리는 청소년

삶디는 원래 1967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회관)'이었고 2016년 11월 3일에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학생회관에서 쓰던 몇 가지는 역사를 잇는 오브제로써 삶디 곳곳에 숨어있다. 1층에 있는 조명, 피아노, 책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십여 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삶디에는 여러 공간이 있다. 야외에 있는 숲밭부터 녹음스튜디오, 합주실, 몸짓작업장(댄스연습실), 스페이스 공간, 미니극장, 사진스튜디오, 생활목공방 외 여러 공방까지 다양했다. “삶디를 마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마을처럼 절기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례도 해요.” 없는 게 없는 공간. 마을처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진로 교육 외에도 다양한 클래스와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 달간 밖에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만 놀아도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은 '정 린'이고 별칭은 '필라'입니다. 삶디 진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필라는 그녀가 필라테스를 열심히 다녔을 때 지었던 별명이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도 했다. “라틴어로 필라가 우정과 사랑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리고 웃음 필라, 꽃 필라처럼 무엇인가 '피어난다'라는 의미도 담고 싶고요.”

㉢. 전공은 무엇인지

독일 문학이랑 정치외교학을 배웠어요.

㉠.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요. 여러 의미를 되새기는 삶디 의례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 이곳에 있기 전 어떤 일을 했는지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5·18기념재단'에서 일했어요. 국내외 교류 사업, 민주 인권 평화 단체 지원, 5월 기념행사 기획, 교육 등을 했어요.

㉢. 완전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어렵지 않았는지

청소년을 만나는 일이 처음이라 조금 어렵긴 했어요. 삶디엔 청소년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각자의 전공을 청소년 교육과 연결하며 일하고 있어요. 하던 일과도 꽤 연결되고요. 그래도 청소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삶디에서 기억에 남는 일?

'음식 공방'을 꾸리게 됐을 때 요리할 재료를 길러보자는 취지로 제가 농사를 맡았어요. 그렇게 청소년 농부요리사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을 시작했고 농사의 가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요리했어요. 그때 곡성이랑 서울로 캠프 가서 요리하고 농사짓는 좋은 어른들을 만났고, 시농제·모내기·추수 등 마을 의례 때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해서 베풀었어요.

㉤. 취미는 무엇인지?

요가나 등산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있어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헬스도 오래 다녔어요. 타로도 좋아해요. 클래스를 듣고 배워서 플리 마켓에서 하기도 했어요. 카드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고등학생 때로 가고 싶어요. 대학 다닐 때 미국에 열 달 정도 있었는데 공부 스타일이 잘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대해 설명 중인 진로팀
팀장 '필라'

맞았어요. 이미 대학생이 되었으니 늦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 십 년 전 나를 만나 십 초만 얘기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십 년 전쯤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만둬도 된다”라고, 두 번째는 “집을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공간을 만들어 가꿔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면서 살았으면 해서요.

청소년을 위한 광주 동구에 있는 작은 마을인 삶디는 평등하고 자율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만큼 공간 또한 유연했다. 이곳 카페 크리킨디에 적혀있는 남미 원주민 전래 이야기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노력한다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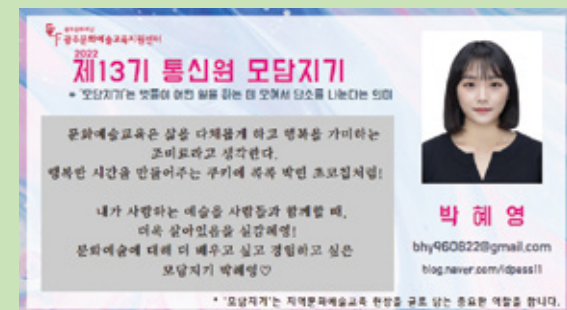
크리킨디 이야기

숲에 불이 났어요.
숲 속의 동물들은 앞 다투어 도망가기 바빴죠.

하지만 크리킨디라는 작은 새는 조그마한 주둥이로
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숲의 불을 끄려고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크리킨디의 모습을 보고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야, 너도 도망가”라며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들은 크리킨디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 국악의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취재 오솔비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김익수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기획자

오늘도 습관처럼 재생하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바쁜 하루 중 짧은 부분이라도 꼭 차지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다. 어떤 곡을 첫곡으로 선택할지 플레이리스트를 꼭 내려보았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내려보니 제일 많은 곡은 케이팝이었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케이팝인데 원조 케이팝이 되는 고유의 음악인 국악은 내 플레이리스트에 없다. 숫아나뚝이 넘쳐나는 케이팝 속에서 원조 케이팝인 국악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 국악을 듣고 부르는 사람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지만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가진 사람.

㉠.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통연희그룹에서 기획 및 실무 그리고 국악을 공연하는 김익수입니다.

㉡.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소개

자타공인은 2021년도 말에 창단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전통연희그룹입니다.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예술성, 교육성,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로 즐거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단체예요.

㉢. 자타공인의 첫 시작점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심심해보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는 이곳에 사는 친구들을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한두명씩 모이고 있어요. 1기였던 아이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자주 놀러왔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이 공간을 놀러오고, 아이들로 인해 부모님들도 이곳에 자주 놀러올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꿈꾸는 거예요.

㉣. 자타공인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국소적인 이 좁은 아파트단지에서 풍물동아리가 생기고 예술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어요.

㉤. 국악만이 가진 매력을 말하자면

국악에도 현악, 기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가 있어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단체가 연행하는 타악, 전통연희의 가장 큰 매력은 어울림, 신명, 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연희의 여러 가지 놀음은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요. 자유로운 춤사위와 군무와 같은 절도를 표출하는 사물판굿, 남사당의 접시돌리기 버나, 마술쇼 같은 죽방울놀이, 길이가 열두걸음이 되는 열두발 상모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듭니다.

㉥. 국악이 어우러지는 이 프로젝트만의 장점

보기만 해도 신기한 사자탈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춤춰 볼 수 있고, 사자탈춤에 사용되는 사물놀이 장단을 배워보고, 아이들이 티비 속에서 보던 접시 돌리기 버나를 익힐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자를 만들어보는 체험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체험만큼 즐거워하고 흥미를 느껴요.

㉦. 사자의 의미가 따로 있는지

사자탈춤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벽사진경, 즉 귀신을 쫓아내고 경사를 불러들인다는 것이예요. 과거 페르시아에서 사납게 날뛰는 백수의 왕 '사자'를 사람이 길들여 인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고 하고 이것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도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사납게 날뛰는 사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사자탈에 큰 방울, 벽사색(귀신을 쫓는 색)인 황금색을 더한 사자와 풍물소리가 집안 곳곳을 돌고 춤추며 악귀를 쫓고 마을을 태평하게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으로 생긴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심심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아지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살고있는 아이들이 친구를 이끌고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곳을 자랑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경험 했는지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에서 저희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느껴어요.



㉟. 이번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는지
'자타공인'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첫걸음이니만큼 각오와 열정이 남달랐다고 또
아이들도 이러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탈을 만들었다, 악기를 배웠다
보다 같이 만든 친구의 얼굴, 즐거웠던 순간 순간을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㉟. 문화향유가 특히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는 또 다른 정서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 기량이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친구와 박자에
맞춰 합을 맞추고 발을 맞추는 협동심 등 문화예술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며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요.

㉟. 익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문화예술교육은 무엇 인가요

단순히 기능을 익히거나, 학습하는 것이 아닌 문화를 향유 한다는 느낌, 행복한 감정이
전달되는게 좋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올해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을 진행한 아이들이 이번 교육을 생각했을
때 사자탈 만들기, 사물놀이 연주하기라는 기억이 남아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곳의 느낌, 시간들, 만나는 친구의 표정 같은
순간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국악 전공자로서 후학양성”

저희 단원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걸 전공으로 시작한 사람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국악
체험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껴 이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아이들도 여기서 하는 경험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발돋움이 되어 저희같은
전공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국악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㉟. 국악과의 첫만남이 궁금해요

저는 국악을 고등학교때 동아리로 시작하고 대학으로 전공했어요.

이전에는 문화예술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고 동아리 활동 해보지 못했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문화예술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국악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배운 악기가 팽가리인데 사물놀이에서 팽가리는 리더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맡게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국악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㉟. 국악의 길이 쉽지 않았을텐데 꼭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

국악은 비주류에 속하는 예술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악폐습때문에 어려운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술이 주는 성취감이 제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성과도 잘 맞고요.

예술이 주는 성취감은 계단형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거라고 생각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발전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예술적
만족감이구나를 확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예술적으로 내가 발전하는 모습이 즐거움으로
느껴지니까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㉟. 올해의 바람

올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금 운영하는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을 비롯한 공연,
교육사업이 사업들이 남아있어요.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토요문화학교를 통한 아이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잘 느끼고 다른 문화공연사업을 통해 관객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요.
소박하지만 어디 하나 실수하지 않고 저희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올해의 활동이 발판이 되어 내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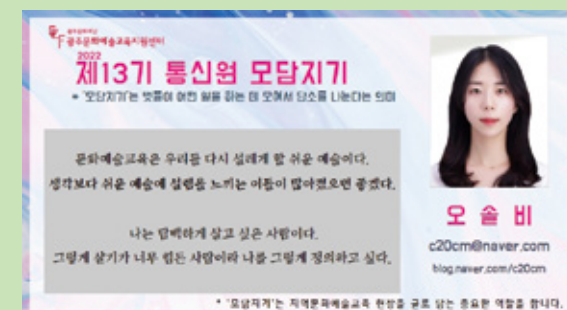
㉟. 최종적인 꿈

단체의 방향성을 꼽는다면 교육, 전통예술계승이 있지만 전통예술 발전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퓨전음악이나 제 2의 사물놀이를 만들거나 타악기를 이용한 장르요. 풍물이나
농악이 전통음악이고 파생되어 나온 사물놀이는 신음악에 속해요. 사물놀이의 전성기가
있었던 것처럼 제 2의 사물놀이, 제 3의 사물놀이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㉟.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사실 타악은 음악의 3요소를 갖지 않아 음악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가장 비주류적인
타악이 사람들에게 음악처럼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음악이 제 2의
사물놀이가 되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웃음)

내 귀에는 잠잠해지는 국악이었는데 쉼 없이 부르고 있던 사람을 만났다. 오늘의 국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내일의 국악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 익수님이 만드는 미래의 국악이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잡고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누군가의 처음을
지켜보는 일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마음이 뜨겁고 기분좋은 설레임이 전해진다.
자타공인이라는 단체의 첫걸음, 국악전공자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김익수님의
발걸음들을 보니 우리는 모두 나아가기 위해 지금에 머물러있는지 모르겠다.
즐거운 한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곧 문화예술향유.
나에게도 그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순간을 기억하며 살고싶어지는 만남이었다.





춤의 리듬이 삶의 리듬으로 무용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창작'*

취재 이소영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이 신희홍 태이움직임연구소 대표

일교차가 희미해지고 공기가 무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태이움직임연구소' 두 번째 야지트인 양림동 '무용담'에서 신희홍 대표를 만났다. 그곳은 춤과 무용,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서적으로 가득 채워진 소박하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그와 나눈 이야기는 취재라기보다 즉흥적인 대화에 가까웠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을까. 무용을 업으로 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 살아내고 있는 그를 보니 무용이 삶 전체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의 모습은 미술이론을 전공한 나에게 긴밀한 영감을 주었다.

㉠. 태이움직임연구소는 어떠한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태이움직임연구소는 무용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단체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움직임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시작이었다. '태이'는 한자의 태(클 태),耳(귀 이)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임을 통해 소통한다는 뜻을 담았다. 학문적 느낌이 강한 무용보다, 더 친밀한 느낌이 드는 움직임이라는 말을 넣었다.

㉡.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다. 과거 서양철학에서는 정신과 몸을 이분하는 등 전통적으로 신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했는데 오늘날에는 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 움직임과 대한 생각이 남다를 듯한데.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행동 범위가 축소되면서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람이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몸을 데리고 살아야 하기에 몸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 춤이라는 장르의 도구는 몸이다. 몸에 어떠한 기억을 심어주면 좋을까, 그 사람의 생애 내가 어떠한 혜택과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용을 문화예술교육과 접목하게 되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여럿 하셨다 들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텐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이들은 움직이고 장난하길 좋아한다. 산만한 아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며 가라앉히곤 하는데 오히려 그 '나땀'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한다. 자유롭게 몸을 써 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춤추도록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초등학생, 청소년, 장애인과 만났을 때 그 반응과 흐름이 다 다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나는 대상을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 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용이 나에게 선물이었듯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 아이들과 만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다.

(소품 의상을 보여주며) 외국에서 사 온 천이다. 천의 재질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가져와 프로그램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천이 찢어졌는데 한 아이가 찢어진 천 틈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더니 강당을 뛰어다녔다. 그 아이를 혼낼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최고의 스승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실감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다. 이때 영감을 받아 이 스카프 의상을 만들었다.

㉤. 문화예술교육 보조강사를 해보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서로 터치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움직일 때 인상 깊었다. '소통, 교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았을 때 움직인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움직임은 몸짓 언어이다. 몸짓 언어가 주는 매력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교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대방과 닿으면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박자가 느려질수록 상대방의 눈을 보게 되고 신중해진다. 이렇게 타인과 몸짓 대화에 능해지면 자연스레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풍부하게 효과를 내려고 여러 장르와 섞이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 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코로나19 동안 애로가 컸겠다.

오히려 제2의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작년에 미디어, 재즈 피아노, 무용 등 융복합 공연의 음성 해설을 했고 예술감독을 맡았다. 본업이 예술 교육 쪽에 더 가깝다 보니



창작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창작이 또 되더라. '광주소극장축제'에서 종이를 소재로 아이들과 공연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를 통해 춤을 더 만날 수 있었고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다른 장르와 무용을 연결해볼 수 있었다.

㉠. 무용에 다른 장르를 끌어오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것 같다. 미술 분야에서도 작가는 작가, 기획자는 기획자, 이렇게 딱딱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 작가가 기획도 하고, 기획자가 창작을 하기도 한다. 문화예술에서 경계가 많이 사라진 듯하다.

그렇다. 무용도 경계가 사라졌다. 경계를 넘나들려면 일상을 많이 즐겨야 한다. 여러 공간과 일상에서 소소하게 만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사람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넓히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보인다. '무용담'이라는 공간의 의미도 무용과 漣(줄길 담)을 합친 말이다. 여기서는 굳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사유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를 두고 '무용가의 창작'이란 말을 쓰고 있다.

㉡. 창작. 어떤 뜻인가.

창작은 내 재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내 작업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에게 '무용담'이라는 공간은 창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거다. 창의적으로 나이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무용담의 계획을 살짝 이야기해줄 수 있나.

춤 통해 광주를 체험하는 사전 예약제 콘텐츠를 하고 있다. 우연히 외국인들이 온 적이 있다. 브라질 친구들이었는데 이 공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이 브라질의 전통춤 삼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정말 즐거웠다. 다음날 광주 곳곳을 가이드해주었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도 관광객, 외국인, 연인 등 여러 사람들에게 ACCL나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다니며 '춤여행'을 하고 싶다. 아직 가제여서 새 이름을 짓는 것이 요즘의 숙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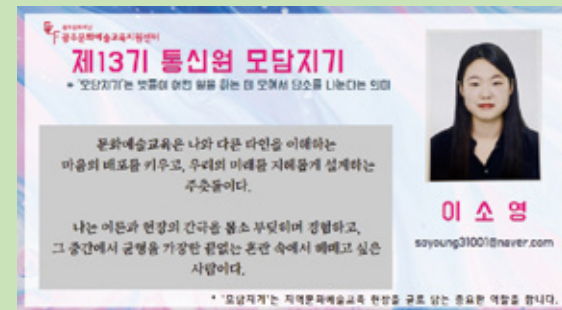
㉣.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을 하는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십 년째 진행 중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다. '엘 시스템아'라는 외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한국에 정착시켰다. 엘 시스템아는 내전이 잦은 베네수엘라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무용 분야로 확대되어 '꿈의 무용단'이 올해 시작된다. 기쁘게도 태이움직임연구소가 맡게 되어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열게 되었다. 지역에서 도움받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지역에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다. 올해는 꿈의 무용단에 집중할 예정이다.

㉤. 경계 없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는 춤의 리듬이 삶의 리듬으로 가기를 바란다. 무용은 속도가 중요하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관계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춤의 리듬이 삶의 리듬으로 스며들어서 삶이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

신희홍 대표는 대화하는 동안 '해택', '선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했다. 마음속 깊이 씨앗처럼 자리하고 있는 간절한 희구이리라. 그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온 무용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것. 무용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오롯이 느꼈다. 춤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허물고, 창작을 통해 무용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몸짓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다.



정혜원이 픽한 올해 최고의 나의 글!

제108호('22. 10월호)

●
햇별은 짹짹,
어린이목수축제는 반짝!

취재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인터뷰 박성완 예술감독 | 노여운 참여 예술가 | 박송현, 임하은, 표준서 참여 어린이

202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영산강 문화관 잔디밭에서 <어린이목수축제>가 열렸다. 어린이들이 지역 예술가와 나무, 망치, 못만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이틀날엔 이미 덩치 큰 네 가지 조형물들이 뿔내고 있었다. 태풍이 와서 한풀 꺾일 줄 알았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땀 뻘뻘 흘리며 작업하다가 잠시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예술감독을 만났다.

㉠.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완입니다. 유화 작업을 하는 화가고요. 어린이목수축제의 최장수 참여자라서 작년과 올해 감독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교육 프리랜서로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웃음)



어린이목수축제는 지역 예술가와 어린이가 함께 조형물을 만드는 노작 예술 프로젝트예요. 단순 목공 체험이 아니라 노동과 놀이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연 자리고, 어린이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축제죠.

2017년에 시청에서 시작했고 코로나로 두 해 쉬었네요. 작년엔 국립광주과학관과 영산강 문화관으로 장소를 나눠 열었고, 올해는 이곳에서만 네 팀이 작업을 하고 있네요.

Q. 오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요? 크고 재밌는 축제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 축제는 좀 부담스럽죠. 준비할 것이 많고 힘도 꽤 들고요. 안전 때문에 사람이 덜 모이는 넓은 곳에서 했는데 문화전당 한복판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서 할 수 있다면 더 확장될 수 있겠죠?

Q. 어린이목수축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요.

먼저 직접 만나 하루 워크숍을 합니다. 올해 9월 12일에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어린이 목수들과 예술가들이 만났어요. 얼굴 보고 친해지고, 무엇을 만들지 함께 공간을 구성했고요. 나흘 후에 여기에서 만나서 3일 동안 망치 하나만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요. 마지막 날엔 이것들을 철거하고 주변을 치운 뒤 헤어지죠.

Q. 이 축제는 왜 열릴까요.

아이들이 노작하길 바랐어요. 망치 하나만 들고 못을 박아 하나의 구조물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 해보면 다음에도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노작하며 살아갈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평소엔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못 하게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고 상상한 것을 만들기 위해 애써요. 어떻게든 계획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그냥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올 일도 적었을 텐데, 어쨌든 새카맣게 타더라도 햇빛 좀 보고 땀도 흘리고 그럼 간식도 맛있어지고. 비슷하게 지내던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 밖에서 이렇게 다르게 보내기. 이런 시간만으로도 족하죠.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Q. 매년 주제가 있던데 올해의 주제는 무엇인지.

무너져버린 오방성을 짓는 내용이에요. 오방색 개념에 동서남북 방위, 사계절, 옷놀이 동물들을 엮었어요.

동쪽은 주대회 작가와 함께 푸른 돼지를 지키는 해적선, 서쪽은 김경란 작가와 흰 양들을 만들고요. 남쪽은 백상옥 작가와 붉은 개를 모티브로 한 정열의 핫도그를 만들어요. 북쪽은 노여운 작가와 검은 소 모양의 북쪽성을 만드는데 성 속에서 별이 빛납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오방성이 하나의 옷판이 되어 아이들과 옷놀이를 해요.

Q. 앞으로 축제가 어떻게 나아지길 바라는지.

매해 느끼지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도 현장에서 손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단조롭게 느끼거나 집중하기 어려워하면 게임을 끼워 넣으려 하고요. 서로 관찰하면서 다른 팀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흐름을 좀 보완하면 훨씬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검은 소 모양의 성을 만드는 한 작가에게 말을 걸었다. 북쪽성에서 망치를 들고 똑딱거리며 아이들과 편안게 말을 나누던 그가 인상 깊었다.

Q.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여운 작가고요. 네 개의 성 중에서 북쪽의 별이 빛나는 성을 맡았어요. 회화를 전공했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도 진행 중이에요.

Q. 축제에서 만든 작품이 궁금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검은색, 겨울, 소를 상징하는 밤하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을 검은 천으로 덮고 모빌로 별을 달자고 했는데 시작한 후에 자유롭게 변형했어요. 지금은 안에 별도 달려있고, 소고기도 달려있고.(웃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달다 보니까 재미있는 작품이 됐어요.



㉠. 아이들과 함께하니 어떤가요.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웃음) 어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옥신각신해서 어려웠는데, 엄청 큰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 같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망치질하고 톱질을 어른들이 선뜻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아이들 습득력이 좋아요. 이틀째만 돼도 만들고 싶은 것을 구상해서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안전하도록 조금만 챙기면 좋은 시간이에요.

㉡. 몇 년 동안 축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목재를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사흘 만에 으쌰으쌰해서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짧은 시간에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이 목수 축제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햇빛이 쨍쨍한데도 모자를 눌러쓰고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추던 귀여운 세 명을 만났다.

㉢.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송현 백운초 6학년 박송현이에요.

임하은 지한초 4학년 임하은이에요.

표준서 송정동초 4학년 표준서입니다.



㉣. 입고 있는 조끼를 보니까 같은 팀인가 봐요.

박송현 저희는 동쪽 바다를 지키는 별빛해적단이에요.

㉤. 축제에 오니 어떤가요.

박송현 올해 처음 참여했는데,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딱딱딱 될 줄 알았는데요. 잘못하면 부러지고, 못을 다시 빼는 것도 힘들고, 색칠하는 것까지... 땀도 많이 흘리고요. 이렇게 큰 걸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완성했어요.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년에 못 와서 아쉬워요.

㉥. 새로운 친구들과 팀으로 활동하기 어렵지 않았나요.

표준서 미리 만나 협동 게임하면서 조금 친해져서 괜찮았어요. 어제 같이 땀 흘리면서 만들다 보니까 더 친해졌고요. 저희 팀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화목했어요.

박송현 협동을 잘해서 더 빨리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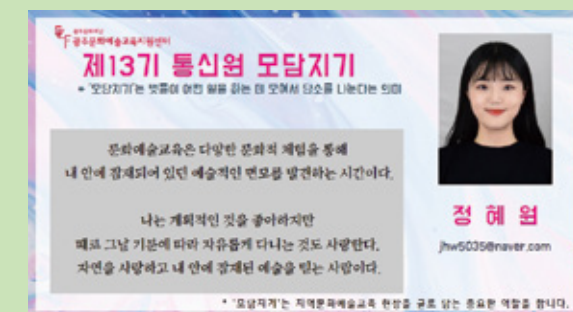
임하은 저희가 1등으로 끝났어요!

㉦. 여기서 무엇이 제일 좋았어요?

임하은 망치질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 너무 쉬워요. 또 팀원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배를 만들고 나니 뿌듯하고요. 내가 이렇게 큰 걸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어린이 목수들은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오방성 가운데에서 시작한 율놀이를 하러 달려갔다. 가까이서 본 성들은 실로 대단했다.

어린이들이 만들었다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채치 있는 그림들까지 보는 재미가 어마어마했다. 바로 다음날 부순다고 했지만 오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목수축제가 광주를 대표하는 어린이 축제가 되는 그날까지 관심과 응원을 보낸다.



봄날, 시작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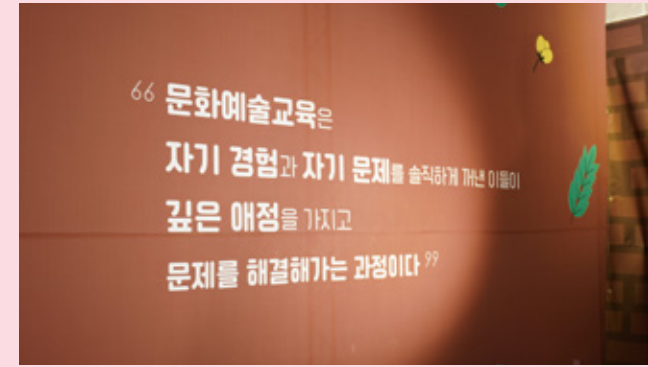
황종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봄날이 깊어갑니다. 찬란한 초록의 향연이 아찔합니다. 그토록 어리고 자그맣던 움과 싹이 녹음으로 짙 차오르는 광경이라니... 각박한 세상, 그늘진 자리마다 자연이 베푸는 벅찬 감동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일랑 간절합니다.

대자연의 신비로운 파장에야 미칠 수 없지만, 사람의 언행으로 빚어내는 최고의 감흥은 역시 문화예술에서 솟아납니다. 술한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이겨낸 위대한 민족사도, 차별과 소외를 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대물림해 온 지역사도 도저한 문화예술의 바탕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애먼글면 개인사와 굴곡진 가족사를 이겨낸 오만가지 사연들은 오죽할까요. 모진 세월을 꽃꽂이하게 살아내고 한 생의 꽃을 피워낸 이야기엔 틀림없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정자나무 앞에서 펼쳐지던 한바탕 굿, 오일장터를 찌렁찌렁 울리던 곡마단의 불거리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해지는 노래와 춤, 드라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을 담은 영화들을 거쳐, 날로 진화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과 축제들이 전해주는 감동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삶은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문화예술의 힘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신명입니다. 판소리 눈 대목을 따라 흥얼거리다 저절로 추임새를 넣고, 공연자의 춤사위를 따라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서툰 솜씨지만 그림을 그려보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러보고... 스스로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예술가가 되는 순간, 일상의 시름과 어깨를 짓누르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문화예술은 저마다의 삶으로 끊임없이 퍼 올리는 긍정의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문화예술을 구경하는 관객일 때도 생겨날 터이지만 새로운 문화의 주체이자 예술의 창조자일 때 그 최대치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가 가족, 이웃에게도 더없는 축복이 되고 더불어 사는 기쁨 또한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요모조모 소식을 담은 월간 뉴스레터 '울림'을 펴내자니 새삼 문화예술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현장의 예술가와 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설계도를 그려내는 과정을 '울림'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이전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창의적으로 재설계한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사업 등도 활기차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주 곳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가, 시민 참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신원 '모담지기'들의 아름다운 인터뷰 기사를 통해 '울림'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가 시민의 삶에 긍정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퍼 올려 선물하는 2022년을 다짐합니다. '울림'의 소식들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와 아마추어,
경계 없는 음악교육자

박대현 진영대흥초등학교 체육진로부장&선생님

2000년 밀레니엄 학번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새내기 싸이월드 시절, 크라잉넛과 노브레인 같은 펑크 음악에 흠뻑 빠졌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늘 머리를 흔들며 '말달리자' 같은 펑크 노래를 불렀다. 막연히 록 밴드가 되면 좋겠다 꿈꾸었지만 기타나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노래를 잘하지도 못했다. 끼는 있어서 어디든 앞에 나가서 마구잡이 춤을 추고 목청껏 노래는 불렀지만 음악이라곤 기껏 노래방이 다였던 내가 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술자리에서 같은 과 친구가 대학교 그룹사운드 동아리에서 자신이 보컬을 하는데 베이스 기타 멤버가 그만두었다며 멤버를 구한다고 한다.

답석 기회를 물었다. “베이스 기타, 그거 나 배운 적은 없는데 가능하나?” 기타나 보컬에 비해 인기가 없어서 베이스 기타 멤버를 구하기 어려웠나 보다. 친구가 자신이 가르쳐 준다고 해보라고 했다. 나는 진주교대 그룹사운드 '사이클론'의 3기 멤버가 되었고 보컬 친구에게 베이스 기타를 배웠다. 잘 치려면 무척이나 어렵겠지만 튀지 않게 밴드를 하는 정도는 할 만했다. 즐겁게 두어 번의 정기 공연과 학교 축제 공연을 했다. 하지만 형편상 ROTC가 되어야 했고 밴드를 그만두었다. 염색한 긴 머리를 뺏박 밀어야 했고 선배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열차려를 받으러 가야 하기에 할 수 없었다. 꿈같던 밴드 생활은 끝났다. 졸업 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곧바로 장교로 임관되었다.

어리바리한 소위에게 음악은 사치였지만 고참이 되니 여유가 생겼다. 낙원상가에서 13만 원짜리 통기타와 '이정선 기타 교실' 한 권을 샀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싶었다. 그렇게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 파주 전방에 있었기에 학원은 가보지 못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다. 대학에서 어깨너머로 선배들 기타 치던 모습을 떠올렸고 베이스 기타를 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연습했다. 아무리 늦어도 매일 세 시간씩 기타를 쳤다. 석 달을 연습하니



코드 연주는 어떻게든 되더라. 전역하기 전엔 장병들 앞에서 인생 첫 공연을 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30일에 부대를 떠났고 7월 1일에 초등교사가 되었다. 운동장보다 연병장이, 운동화보다 활동화가 더 익숙했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첫 보직은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실을 돌아가며 음악 수업만 하는 음악 전담 교사였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남는 자리가 그것이었다. 학교 음악책은 익숙지 않았고 수업을 준비할 거름이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며 군대에서 연습했던 통기타를 들고 교실에 들어갔다. 나의 연습곡이었던 '몽계구름', '너에게 난 나에게 난' 같은 악보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불렀다.

보컬에게 배운 베이스 기타와 독학으로 익힌 통기타 실력이었지만 음악 꽤 하는 선생님이 되어있었다. 학교 축제를 하면 공연을 했다. 교직원 퇴임식 공연, 교육과정 설명회 공연, 등굣길 버스킹까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머릿속에 멜로디와 가사가 떠올랐다. 학교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래였다. 기타를 들고 적당히 코드를 잡으니 그럴듯한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혼자 첫 작곡을 해냈다. '노래 만드는 거 어렵지 않네,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차올랐다. 이후로 노래를 만들었고 기타 치는 동생들과 '뽕뽕'이라는 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서로 멀리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몇 달 만에 그만두었다. 곡은 하나둘 쌓이는데 내가 부르면 영 불품이 없었다. 늘 보컬을 구해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보컬을 하겠다는 이가현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수요일밴드'가 시작되었다.

그때쯤 가장 좋아하던 밴드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라는 인디밴드였다. 소박하고 감성적인 음악이 좋았다. 어쿠스틱한 사운드로 앨범을 냈는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10만 원짜리 보급형 콘덴서 마이크를 사고 음원을 낼 만한 사운드를 녹음하려고 무작정 연구했다. 학교의 느린 컴퓨터로 '쿨에디터'라는 프로그램에 어찌어찌 녹음과 믹싱을 하며 음원을 만들었다. 주변에는 음악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도 아니고 경남 함안군에서는 더욱 그랬다. 막무가내로 도전했고 실패했다. 노력 끝에 2013년 10월 13일 첫 싱글 <혼자>가 음원사이트에 등록되었다. 눈물이 날 만큼 기뻐다. 그때 나이 서른 셋이었다.

십 년이 흘렀다. 나는 십여 개의 미니앨범, 싱글, 컴플리케이션 앨범을 냈다. 운 좋게 알려져 티브이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크고 작은 공연도 많이 했다. 음악을 하면서 내 인생은 크게 변했다. 음악이 주는 감동과 행복을 알게 되었고 함께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열등감이 사라졌고 없던 자존감이 생겨났다.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

학생들도 나처럼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론을 잘 몰라도 연주와 노래를 즐기고 노래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음악을 쉽고 즐겁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쿨렐레로 노래 만들기’라는 수업을 시작했다. 우쿨렐레는 쉽고 싸고 작다. 학교 교육에 아주 적당할 뿐더러 피아노나 통기타보다 배우기 쉽다. 반주하며 노래 할 수 있는 악기 중에는 가장 쉽다. 하루만 잘 배워도 쉬운 가요쯤은 연주하며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쿨렐레 수업을 하면서 악보를 검색하고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악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예 내가 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왕 하는 것 강의 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 한 장 우쿨렐레’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악보를 제작해 우쿨렐레 악보 나눔 사이트도 열었다. 또 노래를 만드는 나만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유튜브에 ‘쉬운 노래 만들기’를 시작해 학생들과 만드는 노래들을 업로드하고 있다.

십 년 넘게 음악을 하지만 나는 프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마추어도 아니다. 모호한 경계에서 나는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다. 경계가 무슨 소용이라.



하루 한 장 우쿨렐레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1sEkIU8LKzH6olc3oSnc1A>

쉬운 노래 만들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PUq_LTDngeh5k-YDDlcnaq

하루 한 장 우쿨렐레 악보 나눔 사이트

<http://11ukul.com>



존새의 올림 기고문

제105호('22. 7월호)



이것도
문화예술교육이 될까요?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대표

프롤로그

맹세컨데 단 한번도 그 어떤것이 문화적이라든지 예술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이런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내가 오히려 너무 이상한가? 모르겠다. 아직까지 내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문화적이며 모두가 예술적이고 또한 모든 것이 삶을 향하거나 관통하고 있었으니 어찌보면 매우 거대한 문화적 담론

속에 내가 살고 있는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어찌보면 삶과 너무 밀착되어 있는 이런 황공함이 미시적이기 때문에 잘 느껴보지 못한 당연한 영역이었을 수도 있다.

아빠

선 살이 다 되어 장가를 간 나로서는 늦둥이 네 살배기 딸이 너무 이쁘고 소중하다. 다들 그렇겠지만 품안에서 떼어놓기가 안타까울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고 처음 느낄 정도니 딸을 대하는 모든 면면이 사랑 가득하다. 자식 앞에서는 팔볼출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의 과정은 고되고 어렵다. 수없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떠돌았던 육아에 대한 나의 말들이 대부분 거짓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반성을 할 정도다. 하지만 또 정신줄을 붙잡고 딸이 하는 짓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행위 자체가 문화적 인간이 되기 위한, 문명을 배워가는 자기 학습적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읽어 낼 수 있다.

딸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자주 집어 먹는다. 대부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그런 딸을 보면 그 행위를 막아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준다. 하지만 딸이 내 눈 밖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주워 먹고 배가 아프다고 울거나 맛이 없다고 인상을 찌뿌리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낸다. 이것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딸은 ‘촉감과 미감을 통해 사물을 관찰, 탐색하고 자기의 방식과 속도대로 그것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갖는’과정에 있는 것이다. 오감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탐색의 시간 속에서 세상 만물을 사유하고 이해하는 절대적 시간을 갖는 것이다. 시각적 관찰만 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다른 감각으로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내는 ‘삶’의 과정에 다다른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다르지 않다.

그러던 딸은 한 겨울의 어느 날 창문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을 찍어 먹는다. 집안의 어둠을 가르는 그 햇빛을 계속 찍어먹으며 맛을 음미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만 난다. 하지만 이 귀한 풍경에서 내가 읽어 낸 문화적 예술적 의미는 남다르다. ‘햇빛을 찍어먹는 아이’라니.. 물론 나도, 또 누구나 어린 시절 햇빛을 찍어 먹는 행위를 했을지 모른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나를 예술가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그 누구에게 햇빛을 찍어먹는 행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그것을 말리거나, 너무 좋은 행위이자 습관이라고 지적해준 사람은 없다.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이라면 그런 행위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것이 분명한 이 행위는 반문명적이고 비문화적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른 바 기능적이고 효용적으로 디자인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없는 행위는 그저 미친 짓에 가까운 퍼포먼스 일 뿐이다.

딸은 이제 막 색칠공부라는 세계에 입문했다. 본능적으로 이쁘고 귀여운 공주의 이미지와 동물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 외곽선(out line)안의 빈칸과 빈칸을 색연필로 칠한다. 하지만 아직 네 살배기 아이의 손은 아물지 못해 빈번하게 빈칸을 벗어나거나 가로질러 꼼꼼하게 색을 메우는 색칠공부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고야 만다. 몇 번 그 과정을 반복 하던 딸은 가끔은 아예 대놓고 큰 팔꿈치 근육을 사용해서 형태를 무시한 채로 공책 전체를 가로지르는 선들을 그려댄다. 나는 딸이 색칠에 재능이 없나? 아니면 재미를 못 붙이나? 혹은 꼼꼼하거나 집중력을 가르쳐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일련의 생각들을 잠시 하다가 이 장면들의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또 이 장면에서 문명화 된다는 것, 사회화 된다는 것, 매뉴얼의 방식에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따라온다. 모든 부모들의 강박에 숨어 있는 꼼꼼함, 세심함이란 것이 결국은 자신의 아이들이 정해진 금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강박이라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다. 다수의 무리에 있어야 하는 안정감, 정해진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안정감의 삶이 대부분 부모들의 바램이라면, 선 바깥의 문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예술, 위험한 긴장감의 드라마, 다양한 몸짓을 만들어내는 몸의 건들거림 처럼 선을 탈주하거나 가로지르는 생애 최초로 문명과 대립한 인간의 야행성과 그런 기억을, 그런 용기와 실험성을, 그까지 색칠공부의 선 정도는 넘어서 보는 위법과 위반의 상상력과 실천력을 충분히 배려하고 격려하며 그 행위의 문화적 의미를 읽어 주어야 한다는 주관이 발동하게 된다.

시민(주민)

나는 종종 동네에서 '생활의 달인'급에 해당되는 시민(주민)을 보게 된다. 동네라는 범주는 넓지 않지만 적당하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 삶에는 매우 고유하고 다양한 서사가 있다. 내가 말하는 '생활의 달인'이란 이런 고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서사'적 시민을 말한다. 사실 누구에게나 서사는 있고 이야기는 매우 힘이 세다. 이 개인의 서사를 어떻게 대상화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호명하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과제가 될 만큼 지금 각 지역에서 개인의 서사를 소비하는 방식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벌써 20여년이 넘는 나의 시민에 대한 짝사랑이 나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딸을 낳은 노총각의 살림은 늘 남루하고 지난하다. 음식만들기와 청소하기, 빨래하기 등의 아주 기본적인 살림부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늘 동네 식당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거 예술인걸!”하고 외치고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꾸깃꾸깃한 와이셔츠를 다리는 모습(스팀다리미에서 안개처럼 물이 분사되면, 거짓말 같이 안개가 거치는 정도에 와이셔츠는 완벽하게 하얗게 칼같이 다려진다. 나는 이 풍경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에 전율을 느끼며, 동네 자장면 집 사장님의 수타 소리에서 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인류학적인 누들로드(noodle road)의 문화적 전이와, 더불어 리듬을 밀고 당기는 ‘사운드 아트’의 경쾌함을 느낀다. 맛과 향을 겸비한 테이블 세계의 이 노포는 이 동네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극장이다.

이렇듯 자장면이라는 음식이 만들어 지기 까지는 누들로드의 인류학적 계보와 문화적 특수성이 전이 되고,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산업화가 만들어 놓은 빨리빨리의 문화와 배달의 편리성이 합쳐지면서 빠르고도 맛있는 현재의 '자장면'이 탄생되었으니 자장면은 그 자체로 문화면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또 문화예술교육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 할머니의 김치 역시 몇해 전 유네스코에서 세계 중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문화재이고,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3000여년 동안 동네의 농부들이 참여하게도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도록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디자인한 농경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늘 동네에서 '문화적 고수'를 만나 그들의 삶속에 존재하는 문화적 가치를 함께 소비하며 배우고 감탄한다. 그러하니 이 모든 것이 어찌 위대한 문화예술교육이란 말인가? (나는 우리 동네 자장면집 사장님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모시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호명하는 공연과 전시를 한다. 그 분의 삶이 제도적 화이트 튜브에서 예술적 가치로 의미화 되는 것이 어떤 예술가의 작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계문화유산과 노인의 삶

지금 우리 동네는 화성(수원 팔달구와 장안구의 넓게 걸쳐 있는 정조가 쌓은 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들떠 있다. 이제 유네스코 법에 의하여 화성주변의 민가를 정리하고 녹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카페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채우고 있다. 차례차례 녹지로 전환되는 화성주변에 위치했던 내 작업실도 결국 헐리게 되고 우리 동네의 많은 노인들이 평생 살아왔던 동네를 떠났고 떠나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벌써 부터 관광객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천박하게 그려진 벽화가 그들을 맞이한다. 평생 동네에 살았고 이제 막 동네를 떠나야 하는 뒷집의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마련하시면 독거노인이다.

동네 쓰레기장의 분리수거를 새벽부터 마다하지 않고 하고 계신 할머니는 “예야! 무신 놈의 시상이 죽은 유산이 산 사람을 내 모냐?”며 나에게 하소연 한다. 이제 우리 동네는 화성이라는 하나의 전통문화가 다양한 삶의 서사를 내 몬 동네가 되어 버렸다. '노인 한분을 잃으면 도서관 한 채를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도서관과 개인의 서사, 삶과 문화의 다양성은 이제 다시 복원하거나 복귀하기 어렵다. 이제 문화는 그렇게 상대적, 선별적이 되고, 위계적이 되어 간다. 이런 모든 것이 '문화예술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쓸모와 효용적 가치로 재편하려 한다.



에필로그

특별하게 예술가와 선생이 아니어도 아빠와 시민의 입장에서만으로도 언제나, 어디에서든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읽고 실천하고 즐겨워한다. 물론 나의 입장에서 그렇다. 광야는 넓고 고수는 많다. 혹 내 주변의 스치는 무엇이 그 광야의 고수가 아닌지? 그 무엇이 가치를 문화적으로 다시 읽어낼 필요는 차고 넘친다.

'무늬만 커뮤니티'는 김월식 디렉터를 포함해 곽동열, 박영균, 이아람 작가가 정규멤버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지역적 탐구를 기반으로 오랜기간 지역민과 교류하며 예술의 영역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아트를 실천하고 있다.

'무늬만 커뮤니티' 이름 그대로 무늬뿐인, 즉 느슨한 관계로 개인의 활동과 재능, 참여 의지를 존중하는 커뮤니티라는 뜻.

전국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108명의 노인들에게 받은 것들로 부처상을 만들고 그들의 소원을 배 안에 넣어, 2014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와 수원 지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영적 존재에 관하여 리서치한 결과로 각각 힌두교의 신을 골판지로 형상화 한 <가네샤>와 수원 지동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동신>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는 등 결과로서의 작품보다는 커뮤니티 안에서 여유 있게 관계를 맺으며 삶과 예술을 가까이 하는 모든 수행들이 작품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숲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게 하라!

노대승 산림청 유아숲지도사 교육원장

담론

1. 줄줄이 놀이터와 신체건강.
2. 줄줄이 놀이터와 의사소통.
3. 줄줄이 놀이터와 사회관계.
4. 줄줄이 놀이터와 예술경험.
5. 줄줄이 놀이터와 자연탐구 그리고 어린이 환경운동가.
6. 로프와 목재를 활용한 창의예술학교의 줄줄이 놀이터...

본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신체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바깥 활동이 제약받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숲에서의 놀이 활동은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유행으로부터 거리를 두기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충효동 평촌마을 뒷산의 숲놀이터 공간에서 북구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의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 질까를 생각해 본다.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국가의 토대가 됨을 느끼며 전국 각마을의 앞산 뒷산에 줄줄이 숲놀이터가 많이 만들어 지길 기원해 본다.

의사소통은 따돌림, 왕따라는 단어를 지우는 활기 넘치고 온화한 시간이다. 교실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넓은 줄줄이 숲놀이터 공간에서는 협력을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왜냐하면 협력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만 재미있게 놀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곡지구 뒷산 한세봉 숲놀이터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넘치는 밝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하여 흐뭇하고 에너지가 솟아남을 느낀다.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바깥놀이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다. 숲놀이 공간에서 예측되지 않는 놀이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기에 가변적인 줄줄이 숲놀이터 공간이 최적의 장소이다. 예측가능하지 않는 줄줄이 놀이터 공간에서 신나게 놀며 숲, 생태,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자. 북구 문화근린공원의 숲놀이터 공간은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는 아주 좋은 공간중의 하나이다.

1. 줄줄이 놀이터와 신체 건강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신체 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염병이 유행해 바깥 활동이 제약받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숲에서 놀면 전염병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니, 숲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충효동 평촌마을 뒷산의 숲 놀이터에서 북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질까를 생각해 본다.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국가의 토대이니 전국 각 마을의 앞산 뒷산에 줄줄이 숲 놀이터가 많이 생기길 기원해 본다.

2. 줄줄이 놀이터와 의사소통

숲에서 놀 때 아이들은 따돌림, 왕따라는 단어를 지우고 활기 넘치고 온화하다. 교실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경쟁하지만 넓은 줄줄이 숲 놀이터에서는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야 재미있게 놀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곡지구 한세봉 숲 놀이터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넘치는 밝은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해 흐뭇하고 에너지가 솟는다.

3. 줄줄이 놀이터와 사회관계

사회관계를 만들려면 바깥 놀이는 상당히 중요하다.

놀면서 친해지고 사회관계를 넓히는 데는 줄줄이 숲 놀이터가 최적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신나게 놀며 숲, 생태,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자연스레 사람들을 사귀자. 북구 문화근린공원의 숲 놀이터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스스럼없이 말을 나누고 몸을 부대끼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 중 하나다.

4. 줄줄이 놀이터와 예술 경험

창의예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예술을 하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그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깨우칠 수 있다. 수천만 가지 작품이 있는 자연에서, 내 손으로 또 다른 예술작품을 만드는 경험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시소센터 옆 장수어린이공원은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 재미있고 안락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5. 줄줄이 놀이터와 자연탐구 그리고 어린이 환경운동가

아이들은 자연을 탐구하며 숲,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환경운동가가 탄생한다. 마을 앞산과 뒷산을 자녀들과 자주 놀러 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자.

6. 로프와 목재를 활용한 창의예술학교의 줄줄이 놀이터

로프와 목재를 활용한 창의예술학교의 줄줄이 숲 놀이터는 각 마을에 있는 자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독특한 환경 학습장이다.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으로 향하는, 놀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살아있는 환경학습의 본보기다.





아이들은 도전하고 탐험하고 상상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신체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며,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교육부 지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속 자유 놀이는 교육부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숲, 생태, 환경에서 마음껏 놀게 하라! 자연은 아이들의 훌륭한 스승이다. 아이들이 자존감, 상상력, 창의성, 창조성을 키우고 도전하고 탐험하는 정신을 배우기에 놀이터만 한 게 없다.

숲 놀이터는 아이들이 수용 가능한 위험과 만나 위험을 배우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찾는 상상 속의 놀이 공간이다. 숲, 생태, 환경에서 노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이 좋아진다.

자연에서 놀면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예술학교의 줄줄이 숲 놀이터는 아이들이 모험심과 도전정신으로 탐험하고 상상하면서 위험을 극복하는 훌륭한 지혜의 공간이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성패는 구호에 있지 않다. 작은 숲 놀이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그곳에서 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작은 실천에 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

천천히 걷다 보면
길 위에도 작은 자연은 존재한다.
척박한 땅에도 생명체는 살아 움직인다.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등으로 포장한 길...
갈라진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풀 한 포기...
걸음을 멈추고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작은 자연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자연도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다.

● 어린이 문화를 고민하고 실천과 연대를 통해 행동하는 좋은 어른

—
한승모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노래하는 선생님

유치원 쏜씨 자랑 자리에서 '모래성'을 부른 게 노래 부른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노래를 많이 알려주셨다.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것도 좋았다. 중학교 합창부에 들어가 '음을 잘 잡으니 알토'라는 말에 으스스했고, 고등학교 때 9:1의 경쟁률을 뚫고 학교 중창단에 들어가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며 3년 내내 노래를 불렀다.

대학 때 아카펠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선생님이 돼서도 대학로, 홍대, 인사동에 노래 부르러 다니며 아카펠라 축제, 대회를 기획해 무대를 즐겼다. 아카펠라 선생님 모임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콘서트, 페스티벌 무대를 꾸렸고, 동요, 국악, 클래식 등의 아카펠라 음반을 십여 장 만들어 세상에 기록을 남겼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난 교사인데, 이렇게 노래와 관련된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이래도 되는가?

아카펠라 교육, 음악 교육

교사 모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아카펠라를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했다. 아카펠라 교육 시간은 나에게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학교라는 정해진 역할, 정해진 일과, 정해진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로 아이들과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만족을 주었다.



아카펠라 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음악 교육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음악교육의 인연들도 많아졌다. 교과서를 쓰고, 국내외 강의를 다니고, 온라인 강의를 찍는 자리가 생겨났다. 내가 해온 아카펠라와 음악교육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한 자리가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많음에도 부끄러운 감정이 들 때가 있었다. 교실에서 열심히 1년을 살아가고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이런 삶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생겨났다.

어린이 문화연대

아카펠라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자료도 만들고, 세상에 나눌 방법을 찾을 때 즈음 어린이 문화연대를 만났다. 어린이 문화연대는 어린이 문화를 고민하고 관련한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 모임이다. 주로 어린이 문학, 독서, 연극, 노래, 영화 단체들이 속해있다. 처음 모임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사업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모임에 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글쓰기 교육, 토론, 음악 교육, 연극, 그림책과 관련된 교사 모임이 전국에 크고 작게 존재하고, 여러 연수와 책을 통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는 교사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다. 어린이 문화연대에서 어린이 삶과 문화예술의 연계를 고민하는 좋은 어른들이 많음을 알았다. 자기 삶을 늘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좋은 어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오덕, 권정생, 방정환

얼핏 알고 있었지만, 더 공부하게 된 어른들이 있다. 바른 우리말 교육에 평생을 바치시고 글짓기가 아닌 글쓰기 교육을 세상에 알리신 이오덕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신 분이였다. ‘이오덕 일기(양철북, 2013)’ 머리말에 두고 자기 전에 읽고 잤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엄격했는가,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강아지 똥으로 만난 권정생 선생님을 까투리, 해룡이, 아기 너구리, 뽕실 언니로도 만났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현실을 이겨내며 잘 살아가려 노력하는 순수한 영혼에 많이 울었다. 권정생 선생님 생가에 다녀오면서 만난 길고양이와 가을 하늘의 아련함을 내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려 노력했다. 그래야 아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기대하면서...

31살에 세상을 떠난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과 삶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다. 공부하는 자리가 어느덧 ‘방정환 노래잔치’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고, 아카펠라와 음악 교육의 공연 경험으로 노래잔치를 꾸린다. 시를 쓰고 노래하는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청소년의 꿈을 노래하는 박우진과 꿈틀이, 평화를 노래하는 화모니 가족 합창단과 세상을 밝게 만드는 무대를 꾸렸다. 방정환 선생님이 보시면 좋아하셨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뿌듯해했다.

방정환 노래 음반, 두 번의 노래잔치

어느덧, 방정환 선생님의 글로 노래를 만들어 아카펠라 음반을 내고, 두 번의 방정환 노래잔치를 만들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좋은 어른들과 세상에 잘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적적하고 서운함이 있었다. 십 수년간 만나온 많은 글쓰기, 토론, 어린이 문학, 그림책, 영화, 음악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대부분 선생님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현실 속 시공간을 알차게 만드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을 만날수록,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과 실천에 나와 선생님들의 눈이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학교에 힘든 일이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버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걸 알면서도 눈을 울타리 밖으로 돌려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철학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세상이 어려운 시절, 어린이 운동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문화 활동을 실천한 방정환 선생님이 나에게 철학으로 다가왔다. 나의 노래, 음악 교육, 교실의 삶이 공허해지지 않을 길이 보였다. 이제 나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떤가 봐야지.

나의 문화예술교육

교실, 가정, 여러 공동체와 만남의 자리에서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함께 화음 맞춰 노래한다. 이야기를 결합하고 몸짓과 물체, 악기 소리를 포함해 풍성한 경험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의 활동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담고 있는가?

첫째, 온 마음과 몸을 쓴다. 음악 교육에서는 ‘실움’으로 하는 교육이라 말한다. 스마트

기기로 일부 대체하여 표현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명상하고, 상상하고, 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내면서 예술을 깊게 만난다.

둘째, 함께 한다. 혼자 하는 시간도 있지만 함께 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쓴다. 글을 나눠 읽고, 시를 같이 써본다. 내 몸짓과 다른 몸짓의 어울림을 느끼고, 내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의 조화를 살핀다. 나무 악기와 가죽 악기 소리에 쇠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본다. 이야기에 노래가 합쳐지고, 말이 이어져 극이 된다. 함께하면서 예술과 삶을 온전히 만난다.

셋째, 활동으로 배운다. 교사의 설명이나 글로만 배우지 않는다. 문화예술을 만나는 방법의 대부분은 활동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에 마음을 나누는 것도 예술 활동이면 더 좋다. 활동의 시간이 끝나고 생각하고 글로 정리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다. 배움이 경험에서 영혼과 몸으로 녹아들기를 바란다.

넷째, 성장을 기다린다. 성장은 '성장하자'고 해서 되지 않는다. 삶의 주체들이 자신만의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된다. 어떤 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곤충은 웅크림이 필요하며, 어떤 동물은 보호가 필요하다. 시간, 배움, 돌봄, 격려, 인정, 사랑이 필요하고,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어린이 문화운동의 향기

올해 학교를 쉬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해 공부하고 글 쓰고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음악 교과서 작업도 시작했고, 여러 예술꽃 씨앗학교를 만나며 학교 예술교육도 살펴본다. 10개가 넘는 문화예술교육 공부 모임을 직접 챙기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아카펠라 대회, 캠프도 준비한다. 온라인으로 캐나다 청소년들과 함께 노래했고,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선생님들을 만나서 아카펠라와 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했다.

공부 외에도 2019년에 시작한 '청소년 마을학교 마음소리'로도 아주 바쁘다. 인문학 문화예술 특강을 준비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과 결과물을 만드는 분과를 4개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살아가고 지역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로 '용기 내 흥천'.



'검기 흥천' 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소년 살만한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 장애인 시설 '삼덕원'분들과의 '백두대간 트래킹', '찾아가는 음악회'는 벌써 3년째 진행하는 행사다.

일상과 삶을 노래로 만들어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아카펠라 별의별'은 곧 3집이 나온다. 중간에 방정환 선생님 음반 '작은물결 이브로만'을 2.5집으로 냈으니 네 번째 음반이기도 하다. '사랑이었던 날들'이라는 주제로 가족, 학교, 사랑 이야기를 목소리 노래로 아홉 곡 담았다.

1월에는 우간다에 갈 예정이다. 전주교대 교수님 두 분, 전국의 선생님 8명과 2년간 음악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다. 음악교육이 교과목으로 없는 우간다와 주변 아프리카 나라에 놀이와 노래로 구성된 음악 활동을 안내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와도 그곳에서 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콘텐츠를 남기고, 그 콘텐츠로 수업하는 자료도 남길 것이다.

이 다양한 일들은 모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방정환 선생님은 이야기에 재주가 있으셨다. 그래서 많은 동화를 쓰셨고, 전국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노래 가사도 몇 편 쓰셨으며, 잡지를 만들기까지 하셨다. 어쩌면 나도 방정환 선생님의 삶을 따라 하고 싶은가 보다. 내가 좋아하고 재주가 조금 있는 '함께 부르는 노래를 즐겨 만들고 나누기'를 활용해서 세상을 만난다. 직간접적으로 '즐겁다', '행복하다', '따뜻하다', '재미있다', '감동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감사하게도 내가 하는 일에서 방정환 선생님의 향을 아주 조금 느낀다.

오늘도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만나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이런 일상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었다. 어쩌면 이 생각이 나의 어린이 문화운동의 힘일지도 모르겠다. 좋아서 하는 일인가? 지금 세상에 이로운가?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가? '어린이 문화를 고민하고 실천과 연대를 통해 행동하는 좋은 어른을' 되고 싶다.



한승모 교사는 함께 부르는 노래를 즐겨 만들고 도와주는 사람
어린이 문화를 고민하고 실천과 연대를 통해 행동하는 좋은 어른을 모토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력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공동회장, 한국아카펠라협회 부회장
주요저서 '다함께 놀자 음악놀이터(2020, 에듀넷)' 등
음반(기획 등) '작은물결 이브로만(방정환 아카펠라, 2020)' 등

개인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ingmusic>

● 치료를 넘어 예술교육과 치유를 향하여

오주현 예술약방 대표

나는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으로 13년 동안 심리정서적, 재활, 특수분야의 음악치료, 대학원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며 음악치료 임상과 학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세월호 사건과 소년원·보호관찰소·학교 밖 청소년 기관·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 청소년을 위한 음악심리치료를 하면서 음악치료에 대한 자부심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평화와 예술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치료와 임상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다.

2014년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위협적이고도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여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채, 왜 가만히 있었는지에 대하여 나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주체성 결여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대하며 살았다. 이에 대하여 반항을 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탈자로 치부하는 환경들. 자신의 동물적 감각을 사용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충동적이며 감성에 빠져있다는 편견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심리치료 중재를 시도해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극적인 결말의 드라마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기엔, 아이들을 폭력의 상처로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아무리 중재를 해도 억압, 차별, 트라우마, 우울, 분노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지만 했다. 나는 그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는 환경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왜 피해자인 이 아이들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을 느끼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왜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더 근원적인 삶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 적이 있었다.

'나'의 본능과 감정 따위에 휘말려서 잠시 쉬고 가자하면, 뒤처지게 되는 듯 느꼈다. 어렸을 때부터 '인력자원'이 되기 위하여, 정답이 있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누군가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정해 놓은 선을 밟기만 해도, 실패자 취급을 받고, 나를 혹독하게 가두거나 학대하는 나를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 '신경제주의' 등의 체제는 우리의 합의가 아닌, 정치적으로 누군가 정해진 틀에 맞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세상을 조금씩 균열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한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치유나 치료의 개념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사회적, 제도적 작용 주체들이 소외계층의 자기실현, 건강, 병리의 규격들을 정하여 치유를 사회라는 장에서 생산, 유통, 재활용되어가는 과정에서 상품화가 되어가게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술치유가 상품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술치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였고, 앞서 말했듯 개인의 치유와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동체와 제도의 변화를 꿈꾸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누구에 의함이 아니라 스스로 몸과 마음을 살피며, 사회적인 틀과 제도에 맞는 사람으로의 회복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틀과 제도로 균열을 내고, 벗어던질 수 있는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갖는 예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예술하기에서는 창의적인 상상을 한다. 상상은 현실과 구별되는 공간과 시간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술 안에서 놀이하는 것처럼 상상을 경험을 통해 현실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제약에서 주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것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꿈과 비전을 찾게 될 수 도 있고, 주체성을 경험하며, 탈중심화 과정이 일어난다.

특히, 나는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의 신비롭고 영적이면서 초월적 속성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음악과 미술의 속성을 사용하여 함께 글을 짓고, 만들어 갈 때 현실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면의 저장되어있던 아름다운 언어들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의 미학적 표현의 언어들이 있음을 확인할 때, 감탄사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이완적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어둡고, 무서운 동굴에서 누가 저를 환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느낌이에요'라는 표현을 하는 사례에서는 고립되고, 암담한 현실에서 예술 매체 자체가 자신에게 해방감을 주는 상상력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자체로 현실에서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안정감과 삶의 희망을 예술적 속성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치유해 가는 과정인 듯하다. 여기에서 예술 매체와 아이가 관계를 맺는 것을 개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마음껏 발현하면서 몰두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점점 표현이 확장되어지고, 안정감을 찾아가며, 내가 어떠한 개입과 중재언어가 없어도 스스로 예술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면,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차분하게 분위기가 스며들어가며, 챙겨주기도 하고, 도와주며, 격려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서서히, 그룹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한다.

내가 정해놓은 시기가 아닌 아이들의 시기에 맞춰서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공동예술작업은 서로 관계를 맺고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연합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집단 속에 머무르고 싶게 만들게 하려면 안전하고도 환대의 장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환대의 표현, 축하와 애도의 표현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알아차림을 갖으려고 한다. "신체,

감정,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문구를 항상 문화예술교육사 강의 첫 시간에 알려준다. 그룹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몸, 심장, 폐, 온도의 변화의 알아차림과 예술교육에서도 어떤 음악, 어떤 미술 방식과 도구, 어떤 움직임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치료사의 중재 방식이 아닌 예술하기의 가이드로서 치유방식의 접근은 무엇일까, 치료사가 아닌 정체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으로 '적극적 경청'의 방식을 선택했다.

한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할머니,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여성의 피아노 연주, ADHD증상으로 학교에서 다루기 힘들다고 중재가 필요한 방임아동, 외상 후 트라우마 아동 등 모두 치료적 중재방식으로 아이들의 부족하고, 힘든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한다.

거친 붓터치, 다듬어지지 않은 연주, 표정, aura,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의 발걸음 등의 그 모든 표현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표현하도록 시간을 기다려주고, 허락하고, 수용하고, 경청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행동이 정상이 되도록 중재하거나 뽐내는 예술을 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삶, 에너지 그대로 예술로 표현 되고, 변형·확장 되어가며, 스스로 예술매체와 친구가 되면서 창의성을 발현시켜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표현에 반응하고, 나 또한 변형·확장되며, 다른 방식의 대화하기를 시도하고 공존하기를 배워나갔다.

그래도 가끔 신은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을까? 왜 이런 장애를 겪게 했을까?'라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의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임을 알아차렸다. 그의 자체로의 존재와 삶을 받아들이고, 창조적인 삶을 함께 꿈꾼다면,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고 창조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러나 사실 도와야 할 존재,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변형과 역동으로 인해 옆에 있는 내가 오히려 희망과 빛을 얻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꼭 필요한 선물 같은 삶, 선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다.



오주현 대표는 공동체 예술치유와 예술을 통한 세계 시민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현재 '피스모모'의 연구위원, 광주에서 '예술약방'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 세계 시민성교육, 예술치유, 공동체, 문화예술교육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및 이사, 광신대학교 상담학과 겸임교수
주요저서 '평화와 공존의 화합, 음악활동을 통한 평화지향 역량 키우기(2021)' 등

●

여기서 음식을 배우고 끝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게 좋아요

김진아 라라의 정원 대표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참여자로부터 이런 후기를 받았다.
“여기서 음식을 배우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살 방식이 바뀐다는 게 좋아요.”
-<철학이 있는 밀키트> 참여자 수업 후기 22.11.30 -

나는 왜 ‘좋은 음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나

수업의 첫 시간은 질문으로 연다. “좋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이라 생각하나요?”.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넓고도 깊어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요”, “건강한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요” 같은 다양한 답들이 나온다. 그
다양한 해석들을 듣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인데, 그 즐거운 시간 끝에 나도 한 마디를
덧붙인다. “좋은’이라는 형용사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 앞으로의 시간 동안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 봐요.”

대학시절 음식 공부를 시작했을 때, 선배들과 한식, 중식, 일식, 전통음식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요리수업을 수강했다. 하루에 여섯 시간씩 서서 실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바닥이며 허리가 아파왔는데, 그래도 재밌어서 집에 돌아와 배운 것을 또 요리해
친구들과 나눠먹곤 했다. 그 시절의 나에게 ‘좋은 음식’이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식재료를 사서 맛있게 요리한 음식이었다. 그 이상의 다양한 해석과 고민을 해볼 기회는
없었다. 그 어떤 교수님, 선배, 동기들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하는사람은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기막히게 멋지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대학생활 삼 년째 되던 해. 이태리에서 음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피렌체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이태리 요리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경했던
채식주의 음식, 마이크로 바이오텍과 같은 음식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옆 동네에
마이크로 바이오텍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원들을 위한 마이크로 바이오텍 요리 수업을 제공했다.
식당의 운영 방식부터 그곳에서 내놓은 음식 하나하나 모든 것이 새로웠다(나는 회원은
아니었지만, 타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받았다.). 아직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않은 것들을 먼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은 나를 무척 들뜨고 설레게
했다. 이런 경험들 중에서도 단연 새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Annalisa Nardi 교수님이 강의했던 ‘지속 가능한 음식’ 수업이었다.

Nardi 교수님은 음식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에 글로벌 푸드시스템 안에서 음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소비하는 음식의 출처를
기록하는 ‘푸드 다이어리’를 쓰며 의식적으로 먹기를 강조했고,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선택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 내 식탁으로 왔는지 추적해보는 ‘푸드 트래킹(Food
Tracking)’을 과제로 내주었다. 때문에 그녀의 수업을 듣는 내내 식재료를 사러 갈 때면
원산지지를 확인하고 라벨을 보며 장을 보았고, 처음으로 ‘음식이란 어떠한가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소비해왔던 음식은 이대로 괜찮은가, 농부는 어떤 씨앗으로 어떻게 작물을
길러내야 할까, 요리사는 어떤 요리를 해야 하며, 음식 소비자는 어떤 태도로 음식을
고르고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됐다. 그리고 생각했다.
음식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요리하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농사지으며 요리하고,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음식교육

“학교에서는 나물 같은 건 안 배우죠. 발효 음식 이런 거 안 배우고. 좋은 음식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죠. 요리사로서 어떤 길 갈지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텃밭활동도 안
하잖아요. 화분 같은 거에 바질인가만 길러보고. 근데 여기선 발부터 갈고 쌀도 기르고.
그러면서 재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식재료가 어떻게 생긴 지도 알게 되고. 진짜 신선한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 참여자 심층 인터뷰, 2019.1.8.-

2017년부터 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요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식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요리뿐 아니라 농사에 대해서도 배우며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음식 수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 프로그램들로 로컬푸드로 요리하는 <400리 식탁>, 농사짓고 요리하는 농부요리사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 중-고등학교 텃밭 동아리들과 토종씨앗을 심고, 길러 요리해먹는 팜투데이블 프로그램 <씨앗에서 밥상까지>, 얼굴 있는 식재료를 요리하고, 먹고, 나누는 경험 <철학이 있는 밀키트 선물> 등이 있다.

특히 1년 과정의 농부요리사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에서는 정말 진하게 음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요리할 생명을 직접 농사짓고 그것들로 요리하는 일. 이른 봄 텃밭을 갈기 시작해 여름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엔 배추 심어 겨울에 1박 2일 김장까지. 틈틈이 텃밭 작물로 요리해 사람들과 나눠먹고 매주 빛고 장 담그는 법까지 장 마스터에게 배웠다. 이렇게 농사짓고 요리하며 일 년의 과정을 보낸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넓고 깊어져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 낸 음식 철학을 볼 때면 텃밭과 부엌에 있는 멤버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물론, 요리하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처음에 좀 당황한다. 요리하러 왔는데 같이 아닌 호미를 들 때가 많고, 레시피를 배우기보다 직접 맛을 보며 스스로 요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책 읽고 리뷰 노트를 써오는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리뷰 한 걸 가지고 토론하자며 자꾸 말을 시킨다. 가장 최근에 시작한 <철학이 있는 밀키트> 수업에서는 마이클 폴란의 <푸드롤>, 웬델 베리의 <은 삶을 먹다>, 작은 농부들이 쓴 <살자 편지>, 반다나 시바의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를 읽어가며 음식 공부를 이끌었다. 물론 요리도 배우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먹는 일도 즐겁게 해 나갔지만 수업 중 절반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많았다. 가을의 끝자락엔 호미 한 자루로 농사짓는 공동체 텃밭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날엔 농부님께 씨앗 받는 농사, 농약 없이 풀과 함께 짓는 농사 방법에 대해 배우고, 넉넉째 굴러온 호박 하나를 따다가 송덩송덩 썰어서 호박전을 부쳐 먹었다.

이 수업의 첫날에도 역시 '좋은 음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11월의 마지막 수업 날엔 '자신만의 음식 철학'에 대해 물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우리 집 밥상의 자급률을 높인다
식재료의 출처를 명확히 한다
식재료를 대할 때 감사함을 갖고 작은 파뿌리 하나도 다 사용하도록 한다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위해 기분 좋게 서두르지 않고 만든다
식사시간은 밥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임을 알고 나부터 여유를 갖고 아이들과 같은 식탁에 앉는다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 오롯이 집중한다
나의 몸에 양분이 되어주는 음식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 철학이 있는 밀키트 멤버들의 음식 철학 중... -

음식 철학을 실천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내년에 옥상텃밭을 함께 가꿔나가기로 했다. 요리하고 싶은 작물들을 직접 심고 길러보기로, 동아리를 만들어 책도 읽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는 요리 수업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여기서 음식을 배우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살 방식이 바뀐다는 게 좋아요."

음식 공부를 하던 시절, 요리사가 아니고 음식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바로 이런 것이었다.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를 늘려가는 일. 사람들의 먹을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 그렇게 조금씩 나와 이웃,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바뀌었다는 참여자의 말이 감동스러워 속으로 내내 되뇌었다.



김진아 대표는 노래하듯 즐겁게 산다는 의미로 '라라'라는 별칭을 쓴다. 요리와 문화를 공부하고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음식공방 버리(직원)로서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300평의 텃밭 '라라의 정원'을 손수 가꾸며 농사짓고 요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르떼 기고문 / 농사짓고 요리하며 삶을 배운다
<https://arte365.kr/?p=77373>
인스타그램
@lara_jinakim
페이스북
www.facebook.com/lara.kim.98

지역은 콘텐츠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경 퍼포먼스 반지하

저는 인천 동구 끝자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역노동자들이 산동네에 초가집을 지은 오래된 동네입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반평생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이 지역의 노인들이 되어 동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이곳에 처음 왔던 저도 어느새 이곳에서 세월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1) 송림동에 처음 왔던 이유는 '집'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기록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 남겼습니다.

2) 그다음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인근 청소년시설에 취직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교육을 운영하고, 매일같이 컴퓨터 하러 오는 초등 아이들과 밀당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3) 그곳을 그만둔 후(기관 변경으로 전원해고당함)에는 재개발이 임박한 인근 동네의 빈집에 들어가 활동 공간을 구성하여 아이들과 동네 사진을 찍고, 그리고 글을 쓰고, 동네의 사람과 집을 만들며 사라져가는 동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동네가 일부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선 후, 그곳을 벗어난 인근 지역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차리고, 매일매일 방과 후 지역문화교육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 부모 가정 내지는 조손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5) 아이들을 열심히 보듬어도 다시 도루묵인 현실 때문에 그 아랫동네에 집과 마을공간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과 마을을 좀 더 환하게 단장하는 활동을 한동안 하며 마을의 공동체적 환경이 되어주는 노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며, 마을의 이야기를 벽화와 미디어로 기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6) 마을에서 노동을 하고, 이웃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마을을 공동체적으로 유지시키는 힘은 '노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노동을 통해 관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몸을 움직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 생활과 몸에 자연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7) 우리 안에 생겨난 생활 노동 문화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만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확장되자 문화를 자본적 가치로 보상받으려는 사람들과의 사고의 간극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활동의 의미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정주를 접었습니다.

8) 그즈음 참여자였던 엄마들과 조합으로 단체의 성격을 바꾸고, 오래도록 비어있는 작은 한옥집을 얻어 건너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돌고 돌아 보니 처음에 왔던 송림동의 옆 동네입니다. 집은 송림동으로 이사하였는데 그쯤엔 첫아이가 태어나 오 년간 두 아이를 낳고 길러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살이를 하며, 송림동을 다시 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화로 그렸습니다.

9) 그리고 큰아이가 여섯 살 되어 송림동의 경매로 나온 허름한 집을 얻어 그곳을 손수 고쳐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집'을 기록하던 이곳에 십 오년 만에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지요.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하고 생태활동을 하던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며 한옥집을 생활학교로 열었습니다.

10) 뉴스테이 재개발로 다시 단체의 공간을 잃고 생활학교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집이 이곳에 남아있어서 다시 우리는 동네의 재개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활동하던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의 학교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곳에 학부모로, 주민으로, 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걸어서 30분이면 다닐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지역 내에서 열여덟 해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자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배려로 공간을 얻어 하다가, 그다음엔 세를 얻어 살다가 결국은 집을 얻어 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였고,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을 살아오며 그저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활동이 단체의 지향을 담은 주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동네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이를 해결해가기 위한 교육과 활동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내용들을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 모두 쏟아부으려는 시기도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그 안에서 더 밀착해서 노동하며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기록하거나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는 이 과정은 더 일상이 되어 펼쳐졌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마을을 우주로 만났던 시기도 있었지요. 잡초 하나, 돌멩이 하나를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마을을 누비며 활동으로 정해진 관계가 아닌 그저 삶으로만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도 생겨나고, 육아와 생활 노동을 교육의 중심영역으로 다시 사고해가기도 하고, 교육을 나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중첩된 정체성으로(아는 아이의 엄마이면서, 동네 아줌마이기도 하고, 아는 선생님이기도 한)만나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아이아빠는 요즘 동네의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 마을의 아저씨, 할아버지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아이의 학교에서 요청하는 마을교육 자문과 아이들 교실 앞 복도에 나무로 책 읽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문화예술교육에서 회자되기 전부터 마을활동과 문화교육을 해왔던 입장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중심이 되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지역에 선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저 나에게 처음의 출발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 변화가 우리가 문제라 느끼는 것들을 조금씩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그만큼의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지역의 환경과 어른들의 삶 때문에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작업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살려가는 미디어활동과 성인교육과 엄마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와 함께 20대였던 나의 나이도 30대, 40대가 넘어가며 만나가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생애과정을 겪어가고, 엄마들과 만나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생태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생활노동의 의미를 되살리는 생활작업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때 그때의 바람으로 관계 맺어왔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느덧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어 다시 만나고, 십 년여 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할머니들은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 먼저 나누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생활인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로 왔던 엄마들은 십 년이 지나 이제는 참여자가 아닌 생활교육운동의 중심에서, 혹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열었던 생활학교는 이제 그다음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산실이 되어 다양한 연령이 함께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노동으로 다시 일상에서, 현장에서 교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 년간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잠시 엿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종이상으로만

말이죠.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늘 경계를 수반하는데 비해, 광주에 갔을 때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 있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서 참으로 생경했습니다.

너무나 잠깐 보았던 광주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기획서라 그저 몇 가지의 궁금증을 갖고 보았던 것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 서있는가’입니다. 이는 ‘무엇을 위해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과거에 있는가, 현재에 있는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연유로 그곳에 서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서있는 그곳의 맥락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교육과 활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가 ‘교육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 단순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라면 몇 해 정도 만날 관계로 보고 있는지, 등 대상과 나와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교육을 통해 만나러 와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만나고 헤어지며 교육공동체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렇듯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관계는 유기적입니다. 그의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나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공통된 삶의 영역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삶의 방식 혹은 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을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교육의 대상을 생활과 생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보다 자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사실 생계가 어려운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병행해가며 하는 다른 활동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활동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주제로 한 활동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성 자체를 드러내어 이루고자 하는 기대는 무엇인지, 사업취지에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교육 및 교육 외 활동에 어떻게 반영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 기획서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길을 가야 다음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하나의 길을 왔다면 그 길을 오는 동안 보았던 것, 만났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여 다음의 길을 갈 때 좀 더 풍요로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

퍼포먼스 반지하 공동설립, 활동가 / 생활학교 <언덕을 오르는 바닷길> 운영

● 엄마가 삶에서 널 꼭 껴안아!!

서준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교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한 학부모님이 들어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여쭙보니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하다 심리극전문가인 내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 학부모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내려왔다고 한다. EBS ‘달라졌어요’를 통해 심리극을 접한 적이 있다면서 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주 전 외할머니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부터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고, 슬퍼하면서 할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외할머니와 딸 혜진(가명)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은 부모가 정신없이 일해야 했기에 초기 어린 시절부터 혜진은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었다. 혜진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혜진의 무기력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으며, 급식 먹기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혜진이를 답답해하는 등 불편한 역동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 혜진이를 다음날 오후 늦게 만나보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 엄마는 복도에 자리하고 혜진이가 축 늘어진 몸으로 교실에 들어왔다. 빈 의자 두 개를 미리 준비하고 한 의자에 혜진이를 앉게 한 뒤, 감정을 물어봤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그래서 혜진이에게 외할머니와 좋았던 일을 물어봤다.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안아주며 노래했던 기억, 함께 산책했던 공원 등을 이야기하면서 혜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혜진이가 슬퍼했던 것은 아마도 외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혜진이 옆,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외할머니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잠깐 그곳에 앉아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외할머니처럼 생각하고 답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재빨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 손녀딸 이름이 뭔가요?”

“혜진이입니다.”

“네, 혜진이는 지금 몇 학년인가요?”

“5학년이지요.”

외할머니 역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한 뒤, 조금씩 중요한 질문을 더 해갔다.

“할머니, 혜진이 어렸을 때 넘어져 울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 혜진이가 친구에게 맞고 왔을 땐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정말 안 좋았지요.”

“할머니, 혜진이가 죽고 싶대요. 할머니 따라가고 싶대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난 재빨리 원래 혜진의 자리에 앉아 ‘나 할머니 따라갈래!’ 라는 말과 함께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던 혜진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러자 할머니 역할을 하던 혜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안돼!!!”

“할머니 나 할머니 따라갈래. 응?”

“안된단니까. 오지마!”

난 잠시 숨을 고른 뒤, 미리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혜진의 자리에 앉아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웃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할머니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밥 잘 먹고, 웃으면서 살아야지. 혜진이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단다.”

이 말을 하더니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난 혜진이를 할머니의 자리에서 옮겨 원래 자신의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됐는지 물어봤다.

“제가 더는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웃고 다닐래요.”

외할머니와 밀착을 줄여주기 위해서 복도에서 기다리던 엄마를 교실로 모시고 온 뒤 혜진과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문구를 따라 말하도록 했다.

“혜진이는 엄마의 눈을 바라봅니다. 엄마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외할머니의 영역에서 살인 엄마에게 크게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혜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를 삶에서 꼭 안아주세요.”

“엄마, 저를 삶에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엄마 쪽으로 이동했고 엄마 품 안에 안겼다. 엄마도 눈물로 딸을 안았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를 삶에서 꼭 껴안으마!”

엄마와 딸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으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다. 세션을 마무리했고, 혜진이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갔다. 며칠 뒤, 복도를 지나치다 혜진을 만났다. 밝게 웃으며 복도를 뛰는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역동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심리극의 힘이 컸다. ‘심리극’은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로 불린다. 혜진을 외할머니 자리로 보내면서 생각하고 답을 하게 하는 것은 심리극의 3대 기법인 역할 바꾸기, 거울 보기, 이중 자아 중 ‘역할 바꾸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고, 때론 감정을 분출하도록 만드는 연극치료 기법의 하나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자. 의자를 하나 놓은 뒤, 그 자리를 ‘엄마의 자리’라고 해보자. 이제 일어나 ‘엄마의 자리’에 앉은 뒤, 엄마처럼 생각하고 답을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 대답에 답을 해보자.

“어머님, 앞에 앉아 있는 자녀분,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서준호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심리치료사, 놀이전문가.

대학원에서 무용연극치료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심리극(‘사이코드라마’로 알려져 있는), 가족세우기(Family Constellation), LCS(종합성격검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스크림(i-scream) 원격연수원에 ‘서준호 선생님의 마음 흔들기’ 강좌가, 티 처빌(teacherville) 원격연수원에 ‘교사를 위한 치유, 나를 위한 회복’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EBS 다큐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 출연하였으며,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심리치료 워크숍, 힐링캠프를 운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서준호 선생님의 마음 흔들기》《서준호 선생님의 교실놀이백과 239》가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는 ‘서준호 선생님의 마음 흔들기’ 블로그(2012년 다음 우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놀이가 즐거운 교육으로 구현되는예술배움터

노정숙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대표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온 대중문화의 특징으로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 되어간다. 우리는 예술의 거리를 가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쉽게 예술을 만나고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예술은 대중문화 속으로 많은 부분이 흡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교육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술이 사고의 변화를 촉발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전되고 있다. 그만큼 예술과 예술교육이 우리사회 저변에 많이 활용되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토요문화학교 예술배움터>의 교육기획 컨설팅에 들어가서 예술과 창의력이란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한다. 창의력은 예술배움터의 주요개념으로 우리일상의 행위가 예술과 만나서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창의력은 단편적 지식의 틀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닌 오랜 동안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사고력 확장으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창의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어릴 때부터 ‘습’으로 흡수된 경험들이 모여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술교육과 창의력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럼 창의력은 무엇이고 예술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예술교육과 창의력

창의력의 근간은 무엇일까? 놀이를 통한 사고력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는 인간 삶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며, 창조적 사고의 시작이다. 놀이는 교육의 방법적 측면이지만, 놀이를 통한 교육은 스스로 사고의 틀을 열어 학습효과를 증강시킴을 볼 수 있다. 놀이로 흡수된 교육은 자유로우며 인간내면의 가장 열린 상태의 역동적 사고를 자극한다.

놀이와 예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술놀이는 창의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예술이 갖은 상상력과 열린 사고는 놀이문화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제로 경험을 만든다. 경험은 기억을 통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으로 탐구적 자세를 만들어 문제해결의 다양한 사고력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과 창의성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이다. ‘학’이 지식을 제공한다면 ‘습’은 체험을 제공하여 경험을 만든다. 미국의 미술교육가인 드 프란시스코(De Francesco)는 경험을 예술의 근원(art roots)으로서 인간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신장시킨다고 하였다. 우리 삶의 과정에 다양한 체험으로 이루어진 경험들은 오랫동안 지식의 축적과 함께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배우고 이해했는가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를 드러낸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경험에서 얻은 각각의 행동은 개인의 판단력의 차이를 가져와 우리의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삶의 방식과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교육은 시대에 알맞은 역동적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와 매체 그리고 실험 교육현장의 한 갈래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예술배움터는 예술이 갖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합교육프로젝트의 현장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예술배움터>가 안고 있는 학습의 유연성과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과 지식의 융합은 고등사고 능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학습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매체활용, 다양한 장르를 통한 실험과 학습, 미적 체험을 통한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주제를 통해 프로그램에 알맞은 교수법으로 호기심과 동기유발,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사고력을 확장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기획자와 강사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분석과 논의로 예술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교육컨설팅 강화하여 지식과 예술이 융합된 교육으로 새로운 접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며

예술교육은 우리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미래사회의 기초 동력이다. 지난 교육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식의 축적을 쌓았다면 이제는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혁신과 창의성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혁신과 창의력은 주요한 화제이며, 오늘날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이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급속한 기술 발달과 SNS(Social Network System)의 확장은 우리일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접하며 손쉽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공감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여러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의 모색과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예술배움터>는 우리사회의 혁신을 제공할 기초단위의 예술교육현장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특성에 따라 지식이 예술로 접목되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깨우는 열린 학습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학’과 ‘습’이 공존하는 곳,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곳, 누구나 동등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 예술놀이가 즐거운 교육으로 구현되는 현장, 우리가 꿈꾸는 예술배움터이다. 이러한 적극적 실행을 위해선 현장의 기획자와 강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예술교육이 아닌 지식과 문화가 융합되어 예술로 구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새로운 가치로 발현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지향점을 이끌어 볼 필요가 있다.



노정숙

글쓴이 노정숙은 예술가와 기획자로 활동 중이며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서 강의중이다. 러시아 모스크바비엔날레특별전 공동큐레이터와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페스티벌의 한국공연·전시 총감독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한국·프랑스교류CORElation과 국제여성미술제, 미로센터 창작공간 플랫폼 진행으로 20개국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광주문화예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마음과 삶의 은유로서의 캠프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

천윤희 문화예술 전문가

1. “괴물들이 사는 나라”

우락부락캠프 광주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내게 떠오른 건, 한 권의 동화책이었다.

마치 판자촌을 연상시키는 들쭉날쭉, 삐뚤삐뚤 골판지로 거칠게 만든 집을 닮은 집들, 종이를 활용해 공간이 생긴 곳마다 그야말로 널부러져서 책을 읽고, 뛰어놀고, 작업을 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이것은 무질서이자, 대혼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과 질서와 규율이 강조되는 공간과는 분명 다르다. 집과도 다르며, 학교와도 다르며, 내가 아는



도시나 그 어느 공간과도 다르다.

동화책 역사의 분기점으로 일컬어지는 ‘모리스 샌닥’의 고전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줄거리는 이렇다. 맥스의 집안은 장난들에 엄마가 “이 괴물 같은 자식!”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라고 맥스는 외친다. 엄마는 맥스를 방에 가두었다. 그날 밤 맥스의 방은 나무와 풀이 가득하고 세상 전체가 되었다. 그리고 맥스는 항해를 떠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괴물중의 괴물이라는 칭호와 함께 왕이 되어, 괴물 소동을 벌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괴물나라 왕 맥스는 쓸쓸해져서 왕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맥스가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밥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1963년 이 그림책이 출간되자 엄마들은 분개했으나, 아이들은 환호했다. 칼데콧상 수상 소감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걱정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사실을 너무 무시한다.”

아이들은 지금 ‘집’을 떠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상상의 공간에 와있다. ‘비엔날레전시관’은 종이로 지은 집이 이루는 마을들, 그 마을들이 모인 가상의 도시이다. 어른들의 머리 속에 그려진 당위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손길에 의한 세련됨과 정제된 ‘디자인’이 들어간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에 의한 상상의 도시로 허용된 맥스의 ‘방’이다. 그것은 도리어 판자촌과 난민촌을 연상시키는 괴물들의 도시와 같다.

2.

영웅신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늘 떠난다. 여행의 과정 속에서의 경험과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그것은 성장이다. ‘캠프’가 가진 교육방법의 구조적인 장점은 ‘부모’와 안락한 ‘집’으로부터 ‘떠남’과 ‘모험’에 기반을 둔 몰입과 집중의 용이함일 것이다. 그러한 강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어른들은 이 시대 수많은 캠프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떤 집 아이는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는 캠프 이주민이다. 영어캠프 갔다가 문학캠프로, 다시 환경캠프로 간다. 경제캠프, 인성캠프, 예술캠프, 치유캠프, 독서캠프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캠프와 교육방법들은 교육에 관한 우리 시대의 두려움과 강박증을 보는 듯하다.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어른들의 두려움만큼,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모리스 샌닥은 ‘두려움’을 억압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 눈 높이에서 상상의 나라를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 캠프에 예술은 어디에 있는가?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 관람객은 같은 질문을 했다. “예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예술인가?” 이번 캠프는 그런 의미에서 ‘비엔날레’적 특성을 가졌다. 비엔날레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새롭게 보게 하는 ‘시대의 눈’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각각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매체와 메시지가 ‘비엔날레’의 큰 주제 안에 녹아들어 큰 울림을 가진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결이 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예술가 16명의 전문영역은 다양하다. 건축사이자, 연극배우이자, DJ, 목수, 화가, 공예가, 잼버 연주자, 그래피티 화가, 간호사, 그린디자이너, 제빵사 등 의식주, 노동, 놀이를 위한 환경, 즉 각각의 부락을 만들어가는 예술, 즉 삶의 기술의 매개자였다. 그들은 158명의 아이들과 2박 3일 비엔날레전시관 안에서 함께 종이집을 만들고, 먹고, 자고, 놀고 배우고, 살았다. 예술가로서의 개별성과 독창성에 기반한 존재감은 아이들과의 도시 안 삶 속으로 녹아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종이집과 함께 예술가와 함께 논 것에 대해 가장 만족해했다. 최고의 교육,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예술가의 존재는 녹아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예술이 최고의 교육이 되는 순간일테다.

3.

이번 우락부락캠프10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한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 곧 놀이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캠프이다. 전국에서 선정된 4개의 사업 중 하나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의 기획자가 함께 추진한 이번 광주 캠프에게 영감을 준 건 독일의 넥카강 옆의 15,000만평의 대지에 세워진 어린이 놀이도시 유겐드 하우스(JUGEND HAUS) 이다. 청소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인 유겐드 하우스가 기획하고 독일 유니스프가 협찬하여 도시의 공적자원들이 다수 결합하여 실제 어린이들의 자치 도시를 만들어냈단다. 그 속에서 모두가 각자에 맞는 노동을 함으로서 도시가 유지되는 모든 직업과 삶의 기술들이 반영된 청소년들의 도시로서 실제 운영되었다. 직업 체험의 성격이 강하지만 정말 놀라운 상상을 현실화하는 거대한 교육실험이다.

<어린이놀이도시.광주>는 교육의 주체를 원주인인 ‘어린이’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근원적인 시도이다. 어린이에 의한 도시, 캠프장 즉 비엔날레전시관을 방문한 술한 어른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건 아마도



유년기 미쳐 내져 질러보지 못한 호기 같은 그 '자유로움'이 바로 눈 앞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500평 공간에 158명의 아이들의 대혼란 속에서도 존재하는 안정감과 질서 역시 감탄이고, 종이집을 진짜 자기 집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즐거움과 재미가 어른들 마음 속 담겨진 추억을 꺼내게 했다.

어른들의 쏟아지는 호평과 너무나 재미있었다는 아이들의 한결같은 의견에 나는 도리어 의구심을 갖고 몇몇의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캠프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것 같은가? 단지 재미뿐이었는가? 아이들은 이것은 온전히 아이들만을 위한 캠프였고, 배우는 게 즐거웠고, 자유로웠고, 내 생애 최고의 캠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은 내가 만든 종이집과 친해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게 아쉬웠지만, 무척 피곤하고 엄마와 가족이 그리웠다고 했다.

2박 3일 동안의 괴물이 사는 나라에서의 괴물놀이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158명의 아이들의 삶에 찍힌 시간의 점, 그것이 언제 어떻게 꽃피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단지 지금은 숨을 고르고 가족의 따뜻한 밥을 먹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가야할 시간이다. 그 여정에 잠시 힘들 때면, 괴물 왕으로 돌아보았던 '괴물놀이소동' 캠프를 떠올려보기를!



참의회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팀

광주비엔날레가 좋아서 광주로 내려온 이래, 생각보다 오래 일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질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문화매개', '매개자',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글 쓰고, 일한다.



올림 다시읽기

제90호('20. 8월호)

우리는 이 '사태'에 어떻게 '감응(感應)'하고 있는가?

김천웅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교육실장

트렌드는 인간의 무늬人紋이다.

'현재 문화 트렌드를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칼럼 요청을 받았다. 지난번에는 광주를 잠시 떠나 있다는 사뭇, 타당한 핑계로 당당하게 사양했지만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작은 동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레

수락을 했다.

아뿔사! 이내 문제가 생겼다. 주제를 안몰어보고 수락을 한 것이다. 보내준 주제를 나중에 받아들고 보니 이건, 낭패다. '트렌드'라니. 거기다가 '미래'까지. 아,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따로 있었다. 한참 GQ의 에디터 이충걸 선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언어를 사랑하여 그의 책을 사들여 읽고 있을 때, 카페에 가면 구비된 최신 잡지들(Vogue, Elle, Marie Claire 등등)을 3~4권 썩은 재미있게 훑어볼 때, 나의 패션을 셀렉 하기 위해 3~4 군데의 가게들을 기꺼이 순례한 후에야 최후의 선택을 해내던 지구력이 있을 때, 한 달에 3~4번은 이름하여 ' 시내'에 나가 문화예술계의 지인들과 어깨를 바짝 맞대고 앱솔루트 보드카 칵테일을 마시던 그때! 었다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짜금이라도 '간지'나게 할 수 있었을텐데. 삶의 모든 사태는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일어난다. 이제는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나 시내에서의 약속도 없고, 혼자만의 공간에 틀어박혀 애꿎은 차츰나 축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주제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인 것만 같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시무룩해진 상태로 노트북을 연다. 언제나 그렇듯 일단 공부와 글쓰기의 정석을 밟기로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라.' 국어사전에 'trend'를 입력한다. 트렌드(trend) - 일단 씌어진 단어와 발음기호가 똑같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맘에 든다. 모든 영단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라고 알려준다. 오~ 구원의 빛이 희미하게 한줄기 비추는 것 같다.

그래! '트렌트'란 (최신)'트렌드' 이런걸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트렌드'란 '인간들의 사상이나 행동 또는 현상의 일정한 방향의 결'이구나, 결은 '무늬'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란 '인간들이 그려내는 무늬' 즉, 인문人紋인가야.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우리 모두가 공교육의 은총을 받아 알고 있는 선명하고 굵직한 이 무늬들이 바로 '트렌드'인가. 내 안의 물음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인간의 트렌드, 즉 인간의 무늬, 인문人紋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결'과 '무늬'를 직조해내는 날날의 실날들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상 속 '사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있다. 삶의 사태들은 마치 문밖에 서서 다급하게 노크를 해대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과도 같다. 기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이 사태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해결하는지의 연속선상에 터해있음이 틀림없다. 이 사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 '무늬'- trend - 가 인류의 역사가 되는 셈이며, 이를 공부하고 살아내는 일이 곧 인문人文일 터이다.

2020년에 '그러진 무늬' - trend

2020년 올해의 시작은 유난히 큰소리로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손님맞이로 시작되었다. 게다가, 그 사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반응과 해석과 응답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 사태의 초기에는 불안, 공포, 혐오와 더불어 마냥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그 사태가 곁에 엉덩이 털씩 깔고 앉아 아예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얼떨떨하던 혼란의 시간도 지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 사태의 원인이 도시화, 문명화, 금융화를 추구하느라 욕망의 포크레인으로 어머니 자연의 고운 흙기스를 마구마구 갈아엎고 파헤친 결과라는 걸.

그 결과에 따른 혹독한 댓가는 여기서 또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며 우린 깨달았다. 올해 닥쳐온 이 사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아픈)선물들도 안겨주었다는 걸. 야수자본주의의 폭주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웠고, 승객들인 우리들도 열차에서 내려야 했으며, 좁은 폭주기관차의 좁은 객실에서 너무 가까웠던 사이들에 '거리두기'를 명명받았다. 더불어, 지나온 삶의 행태에 대한 성찰을 하게 했으며,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거라 하고 상상만 하고 있었던 급진적 논의들이 눈앞에서 구현되는 걸 목도했고,(이런 시도를 해도 별일 안생긴다는 경험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인간들의 시끄럽던 욕망의 폭주기관차가 멈춰선 덕에 실로 오랜만에 어머니 자연이 평온한 단잠을 자며 쉼과 회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추앙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한 우상이었고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해준 일이다. 오죽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했었다. '정말, 코로나가 지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맹목적 신화에 길들여져 있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고, 신자유주의가 주구장창 부르짖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이 가능하리라는 믿음말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그 허위를 낱알이 드러내 주었다.

trend는 '재난'이고, future는 '몰락'이다.

에둘러 가지말자.

현재의 트렌드는 '재난'과 '재앙'이고, 그걸 읽었을 때 보이는 미래는 '한계의 직면'과 '몰락'이다. 더 이상의 안정과 성장을 바라지도 말자. 당장 우리들부터 그리하자. 그동안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소유했고, 너무 많이 확장했다. 몰락의 징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묵시록의 비장한 장면을 보기 위해 더 이상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30도가 넘는 기온에도 외출을 할 때면 겹옷처럼 마스크를 챙기고, 마스크를 내리고 친구와 가까워서 얘기했다고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언제 학교가 문을 닫을지 모르니

전과목 교과서를 가방에 잔뜩 챙겨놓고 축 처진 어깨로 학교를 가는 쌍둥이 아들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죄를 저 어린 양들이 잔뜩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 아내와 난 죄책감에 휩싸인다. 유발 하라리가 그의 두꺼운 책에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라고 경고했던 시기는 2017년의 화사한 봄이었고, B.C(Before Corona)시대의 이야기였고, 이젠 A.D(After Disease) 시대이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박사가 이번 사태로 제인 구달 박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서로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다. "어쩌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계산 제대로 할지 모른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동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쩐담. 아직 사태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기도 전에 경제의 'V자 반등'을 운운하고 있는 이 작태들을 말이다.

재난과 재앙은 영어로 'disaster'이다.

이 말은 astral(별)이 dis(떨어져) 버렸다는 뜻이란단.

아! 질은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 사라졌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보다 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이야기도 들린다.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다.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맞다. 돌이켜보니 그랬었다. 수많은 전조와 조짐과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다. 300번은 족히 넘게. 하지만, 고장난 우리들의 '센서sensor'와 퇴화된 '감응感應능력'이 작동을 하지 못한 채,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조짐과 징후를 읽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다. 지금의 이 사태가 과연 총착점인 '1'일까? '1'과 '29'에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26'이나 '27'이라면... 아직 '1'이 오지도 않았다면? 엄밀하고 정밀하다는 과학이 예측해내고 있는 가까운 '미래'는 이 두려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를 어찌할까.

안다. 낙관을 해도 견뎌내기 힘들 판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특히나 사태의 파장이 직접적이었기에 여전히 힘든 문화예술계의 동료들과의 이야기에서. 맞다. 정말, 참으로, 이 글을 긍정적으로 끌어가고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다. 몇 년 전 열심히 배우러 다녀온 북유럽 4개국 문화예술교육의 앞선 모습을 이야기할까도 생각했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하고 싶었고, 이 사태 속에서도 '해석과 창조'를 해내는 예술가들과 정책들도 소개하고 싶었으며, 레베카 솔릿의 말을 빌려 '이 폐허를 깊이 응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힘으로 '재난유토피아'를 시도해보자고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몰락의 사태 초입길에 들어서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태에 대한 용기있는 직시와 올바른 해석이 없이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의 사태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할까?

나는 '감응感應'하는 능력(맛다, 실로 이건 '능력'이다)을 호출하고 싶다. 생생의 시간표속에 문화예술교육과의 인연을 이어가야할 나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감응感應'은 지난 인류의 무늬人紋 가운데 일찍이 옛 스승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며 능력이었다.

“우주는 본시 감응感應, 즉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교호하고 넘나드는 우주적 무도의 장場 같은 것이다. 신호가 오면 받고, 신호를 주면 또 돌아온다.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일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그 또한 거창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지평 위에 있다. ... 이 교감을 주자학은 인仁이라고 불렀고, 그 우주적 능력이 마비된 것을 불인不仁이라고 불렀다. 불인은 한의학에서 수족의 '마비paralysis'를 일컫는 말이다. ... 그때, 마음의 마비가 풀릴 때, 인간은 연비여약, 연못을 뛰노는 물고기, 하늘을 솟구치는 소리개처럼, 혹은 길거리에서의 어린아이처럼 본연의 생명의 교감을 자발적 자연으로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 <조선유학의 거장들>, 한형조, 문학동네 中에서 -

시詩, 서書, 화畵 같은 깊은 예술행위로 일상에서 수양하며 '항심恒心'으로 살았던 옛 스승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덕목으로 '감응感應'하는 능력을 손꼽았다. 그걸 해서 뭘 하게? 이들은 이 능력을 키워 인간의 삶과 시대와(트렌드),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묻는 '책문策問'에 '책문策文'으로 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이제 우리가 더욱 예민해지자. 충분히 예민한지 안다. 그러니 더욱 예민해지자. 그러기위해 감응(感應)하는 능력을 더욱 길러내자. 그 옛날 스승들이 시, 서, 화로 자신들의 센서와 감응능력을 갈고 닦았듯이 우리도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자. 그리고 할 일을 하자. 하지만, 이전처럼은 하지 말자. 온갖 생명을 죽이면서 축제라고 명명하는(산천어, 전어, 주꾸미, 더 말해 뭘하겠는가?), '죽임의 윤리'가 부재한 싸구려 축제 비슷한 것들도 그만하고, 이제 어차피 많이 못 모이니 인원과 물량이 대거 투입되어 엄청난 쓰레기를 양산하는 대형행사도 그만하자. 이번기회에 성과중심적 사업과 기획에서도 조금 멀어져보자. 문화예술을 등에 업고 자신의 힘과 소유를 과도하게 키우는 일도 그만하자.

대신,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소규모단위의 밀도 있는 문화예술교육, 소외된 계층과 마을 안 구성원들의 공동체성과 생생의 의미 경험(체험'이 아니다)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장場을 더 많이 만들자. 더 나아가 미증유의 '몰락의 시대'를 힘들어하고 상처받을 시민들을 위한 적응유연성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자.

안그래도 다들 예민하다는 편잔을 듣고 살았을터이니 더 민감하고 예민해진다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다음 이웃들의 둔감해지고, 먼지가 끼고, 고장난 센서들을 다시 작동하게 해주자. 그리고 혹시 기대해보자. 서로간의 '덜림'과 '옴림' 그리고 '되먹임'들이 우리의 몰락을 조금은 늦출 수 있을거라고.

다들 이 영화를 보았을 터이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몰락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말이다. 길고 긴 대서사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는가? 그 '예술가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문화예술과 인간 삶의 고귀함을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배가 침몰해가고 모두가 자신의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이제 우리도 가야하지 않을까요?”

바이올린 연주자인 '월리스 하틀리'는 동료의 물음에 대답한다.

“남아서 사람들이 더 안정되도록 조금만 더 연주해주도록 합시다.”

시간이 지나 월리스 하틀리만이 홀로 남아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연주를 이어간다. 이를 본 동료연주자들이 하나둘 다시 마지막 연주에 합류한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예술가들의 선율이 울려퍼진다. 마지막 연주를 마친 월리스 하틀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오늘밤의 연주는 저에게 있어 특권이었습니다.”

재난의 풍경이 일상이 되고, 재난이 트렌드인 세상에서, 몰락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선율이 한 줄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천웅

지난 15년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을 만나 함께 읽고, 쓰고, 사유하는 인문공부를 하고 있으며, 인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불화'의 힘을 키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작과 기획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인문사유, 예술경험으로 특화된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머물고 있다.

서랍 속 센터

‘그땐 그랬지’ 사진으로 만나는 센터의 역사

1

경자씨와 재봉틀 IV 청춘런웨이

벌써 6년 전이다. 재봉틀을 이용해 50~60대 우리 엄마들의 아름다웠던 청춘을 회상하고, 각자의 옷을 직접 만들어 선보인 졸업 패션쇼 현장.

삶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기를
지금의 경자 씨들은 어떻게 지낼까?

- 2017 경자씨와 재봉틀 IV - 청춘런웨이
2017. 5.~9.
제106호(‘22. 8월호)

2

‘삶’과 ‘집’

내 삶을 오롯이 설계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움직임으로 자신을 만들어간다.

4년 전, 지역 청년 20명이 ‘작은 집’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그 청년들 웃음소리가 그리운 계절이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 2019 청장년인생설계학교
‘청년라이프디자인 워크숍’ <스스로 걷다 짓다 높다>
2019. 7. 23. ~ 9. 28.
제107호(‘22.9월호)

3



“시청이 놀이터야?”

7년 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이

100명의 어린이들이 신나는 놀이마당으로
확자지결하게 꾸며졌다.

사진 속 아이들은 18살 즈음 됐을텐데
저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 어린이 놀이도시토요방학캠프
-시청이 놀이터야? -
2016. 8. 14. ~ 8. 16
제108호(‘22.10월호)

4

“자유롭게 놀아보자.

누구나 마음 속에 어린아이가 있지 않은가”

7년 전, 광주 문화예술교육단체가 모두 모이는 축제에
명칭 ‘아트날라리’가 처음 쓰였다.

‘아트날라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끼
넘치는 사람들을 모인다는 의미를 담았다.

놀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해준 2017년도 그때처럼 자유롭게
놀아보자!

- 2017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놀 때가 제일 예뻐!’
2017. 10. 21.(토) /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제109호(‘22.11월호)

5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유아문화예술교육

기반강화사업

기반강화사업은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체들이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광주의 사회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발굴하고,역량있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확대 지원



사업명	202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동네예술배움터
사업기간	2022. 2. ~ 12.
사업내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확대 및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굴
사업예산	300,000천원(시비)

주요성과

13

개 단체

기획3개, 일반 10개 단체
선정 및 지원

327

회차

총프로그램횟수

988

명

총 참여자 수



허니펀치

“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시선 따가워요. 이들은 그런 시선에 상처받습니다. 편견 없이 바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도움을 청하면 응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성이나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많아졌어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장애인 교육은 대부분 생존과 자립을 목적으로 해요.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김인정 허니펀치 교육운영팀장

인터뷰어 김수진 제13기 통신문 모담지기

2022. 6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허니펀치는 영화, 음악, 노래, 마술 등 다양한 분야들의 예술가들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내어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미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예술적 역량과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넓은 안목 및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하였고 2016 베트남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존중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교육 ODA 실행 모델의 안정화 및 정착화하였다. 허니펀치는 문화예술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개인을 위한 삶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삶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예술교육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소개

- 총 22회차 융복합(문학+미디어)교육프로그램 진행
- 장애인의 이야기를 모으고 지역과 사회라는 공간을 연계하여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출판결과집 제작
- 지역민 문화예술접근성과 예술 장르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예술적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학과 미디어가 만나 나와 사회를 기록하는 출판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소와 함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주의 회복

참여소감

최근 K-culture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는 자신의 형이 발달장애인임을 밝히며 어렸을 적 가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했던 인터뷰를 보았다.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대략 9-10% 정도가 발달 장애인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이며 냉담한 현실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꼭 언급되어야 하고 그 누구에게 특정지어지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이 주는 힘은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끝은 아주 창대하였다. 교육을 시작할 때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여 더디기만 했던 우리의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고 교육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서는 서로 아쉬워했다.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남겨두고 헤어지는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문화 예술교육은 참여자들의 근로의 효율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활력소가 되었다. 교육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도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으며 다음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단체소개

두드림평생교육원은 인간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2019년 토요문화학교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을 통하여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치유되고 소통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나이프(knife)아트를 통해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꽃을 통한 치유와 나만의 시그니처 작품을 만들어 나의 공간을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 참여자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

참여소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감이나 무기력 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주부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 낼 수 있었다. '꽃'과 '나이프 아트'라는 공예를 매개체로 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꽃과 같은 소녀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품들을 나이프와 플러스터를 이용해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몇 몇의 참여자들은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린 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밝아지는 모습에 감사진 모두 보람을 느끼기도 한 프로그램이었다. 꽃을 표현하는 기본기를 익힌 후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꽃들을 표현하여 나만의 시그니처 작품을 만 들어 나만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 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능기부를 하여 나이프 아트로 만든 다육이 화분을 문화 소 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작은 변화들을 보 며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독일 식물학자는 “7세까지 사람은 자연과 연결돼있는 것을 느끼며 이 시기에 자연과 함께해야 성인이 돼서도 자연과 어울려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리 중요한 때에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환경을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 ‘메이아이’ 김정화 대표는 칼럼을 쓰거나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렇게 자연을 거부감 없이 만나게 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다가 문화예술교육가가 됐다.

인터뷰이 김정화 메이아이 대표

인터뷰어 김수진(제13기 통산원 모담지기)

2022. 8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메이아이는 자연을 중심으로 사람과 문화, 역사와 예술 등 우리시대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자연의 감성과 인성을 배우도록 더 즐거운 자연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소개

‘중앙공원예술꿈터’는 마을가까이에 있는 숲을 통해 예술감수성을 깨우고 자연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중앙공원 인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숲산책과 자연스토리텔링, 자연공예가 더해진 문화예술교육으로 힘든 코로나시기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참여소감

광주에서 가장 큰 공원인 중앙공원은 공원일몰제로 규제가 풀리면서 올해 가장 큰 변화를 앞둔 공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 두려운 상황에서 지금의 중앙공원을 잘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에 올해는 중앙공원의 생태를 기록하는데 큰 힘을 쏟았다.

올해 만난 회원들은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회원들이라서 만날 때마다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힐링모임이었다.

중앙공원을 사랑하고, 자연의 변화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분들로 함께 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워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며 활동했으며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따로 모임을 이어갈 만큼 정이 담백 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평소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예술혼을 발견하고, 다시금 자연과 미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중앙공원이라는 주제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앙공원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항상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키고 의견을 내는 모임으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 내기를 바라본다.



[사]교육문화네트워크 동행



단체소개

(사)교육문화네트워크동행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여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평생학습양성교육, 다문화인식 개선, 문화체험교육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임.

사업소개

지역의 역사적 장소와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감성적 드로잉 맵핑으로 재현하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소통·공감하며 목판에 표현하는 로드맵핑 프로젝트로,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프로그램. 현장학습을 통한 마을 문화유산 탐방, 마을 풍경 협업 릴레이 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임

운영소감

프로그램을 마치며

장년층과 만남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정해진 틀에 맞추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고, 이러한 틀은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 역시도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우리 가까이에 산재해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공감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함께 공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 속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 문화재 거점 공간을 활성화하고 함께 공감하고자 어쩌면 모험일 수 있는 마음이지만 목판을 선택 하였다.



대상의 특징상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적 접근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기위해 여러 형태의 오브제를 활용한 다양한 드로잉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공유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자 본격적인 문화유산 로드맵 프로젝트의 진행은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회재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들을 답사하며 직접 사진을 찍고, 스케치하고 목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변화해 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고, 강사의 친절한 안내에 조각도의 손맛도 익숙해지며, 어렵게만 느끼던 목판화 작업에 초집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목판을 통해 선비문화의 정수인 기록문화를 엿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우리 지역 로드맵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녹여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만족한다. 수강생들 개개인의 만족도는 최상이었으나, 과정 속에서 남은 아쉬움은 또 다른 완성으로 접근해 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전통문화예술과 공존해 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꿈꿔 본다.



2. 기반문화사업

협동조합 어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끝자락에 서있다. (법이 정한 청년의 기준에서) 청년이 곧 끝나는 경계에 서 있달까. 나에겐 가정이 있고 다른 분들도 ‘엄마 청년’이 많다. 초기에 청년의 가치를 내세웠던 것처럼 꼭 청년 감성으로 가려한다. 한 살 더 먹었다고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청년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지점이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슈퍼주니어의 나이는 주니어가 아니어도 그들은 여전히 슈퍼주니어지 않나.

인터뷰이 임보현 대표, 송재영 강사(협동조합 어감)

인터뷰어 이소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7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어서와 감성!의 줄임말인 협동조합 어감은 2018년에 청년들이 모여 시작된 단체로 지역 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주로 영상 콘텐츠 제작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떤 콘텐츠의 형태로든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목표다.

사업소개

유산슬, 펑수, 최준 같은 ‘부캐’가 사랑받으면서 ‘부캐릭터’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자칫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전유물로 여겨질 것 같은 부캐! 그런데 부캐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격증도, 돈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세상을 위한 미션을 발견하는 열정만 필요하다. 게다가 부캐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다면?

‘디지털 부캐의 로컬 무비 나와 광주’ 수업은 온라인(SNS, 유튜브, 메타버스, 메신저) 등에서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신의 부캐를 개발하고, 이 부캐가 가진 미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참여자들은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자아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의 의미를

참여소감

찾아보며, 세상과 접점을 이어가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부캐를 정립해 나가며, 부캐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에는 부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미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부캐가 주인공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상영회를 가진다. 최종 단계에서는 부캐로서의 탄생을 축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네트워킹을 이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단체와 강사진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꺼내어 세상에 필요한 미션과 연결 짓는 작업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아를 탐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고 이를 표현해 내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어찌면 결과물이 정해진 수업들이 많다. 약기를 배우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완성하고, 특정한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등의 체험 위주다. 그러나 ‘디지털 부캐의 로컬 무비 나와 광주’는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과정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애초부터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집했다. 프로그램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처음 시도하는 기획이었기에 참여자 모집이 잘 될까 걱정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새롭고 신선하다는 반응부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난 것 같다는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아를 탐구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세상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가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내년에 꼭 이 프로그램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어감과 강사진들 모두 보람된 순간이었다. 이제는 부캐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익숙해졌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부캐가 잘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광주에 많은 부캐들이 탄생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광주를 새롭고 다채롭게 표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한다.

2. 기관공화시원





단체소개 사회적 무관심 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해 보고, 일상 속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루트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음악과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새틀 국악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국악의 틀을 선보이고 있다.

사업소개 지금까지 수동적인 교육에 익숙했던 성인들에게 가야금과 전통문화를 기반한 예술 놀이의 창의적 활동으로 능동적이고 행복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광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비아동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여소감 ‘문화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궁금했었다. 어른들도 악기 하나를 연주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술기반시설이 부족한 비아동 동네예술배움터에서 만나는 전통악기 가야금과 전통예술놀이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 그들에게 묻곤 했었다. 이번 참여자들은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신 경우가 많았다. 내가 가야금을 진짜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걱정이 같이 시작한 작은 떨림과 기대감이 교육시간마

다 만날 수 있었다. 가야금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도 점차 변화되는 자신의 가야금 소리는 참여자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또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자신만의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며 행복감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친구분을 통해 같이 동참하게 되신 한 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라며 예술이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2022 아트날라리 무대에 서실 때는 따로 와서 연습하실 정도로 열정을 보이시며 훌륭히 무대를 마칠 때의 행복감을 같이 나눌 때는 역시 문화예술은 삶을 풍족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다. 비록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풍류사운드 가야금의 참여자들과 강사들은 더욱 끈끈해졌고 앞으로도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자 한다.



펀스토리



단체소개

펀스토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 연극을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객관화해보고 자신과 타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문예술인과 지역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이루고 가치를 향상 시키며, 모두의 삶이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개

광주광역시 동구는 구도심으로 현재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원주민과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마을 문화 활성화를 이룬다. 마을의 역사를 알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내가 속한 지역의 소속감과 애정을 갖고 주민 모두가 동네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다.

참여소감

기존의 원주민들과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 사이의 단절이 커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와 모집이 막막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동네 활동가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주민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SNS와 개인 친분 등을 전부 활용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와 원주민, 이주민들이 모이게되었다. 처음에 기획했던 연극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컨설팅을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동네에서 해보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기획자도 강사도 도전하는 마음이 컸다. 교육 초반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모인데 나만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였던 어르신이 이제는 참여자들이 반짝이 엄마라고 부르며 서로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고, 하나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나니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분을 보며 교육기획자로서 굉장히 뿌듯했다. 무심코 지나갔던 동네를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서로 모르고 지냈을 마을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동네 잔치한마당에 주민분들을 초대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마을 행사가 겹쳐서 참여자들끼리만 하게 되어 기획자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사회, 식순, 프로그램내용, PPT, 축하공연까지 참여자들이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고 연습까지 하면서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날 마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보람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네예술배움터 프로그램으로만 끝난게 아니라 함께 만든 노래와 춤, 연극 퍼포먼스로 계림동 마을 축제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을 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



스윗뮤직가든

“ 여성은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녀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어요. 단풍 구경을 가더라도 혼자보다는 어울려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지금의 나를 찾아가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송선미 스윗뮤직가든 대표

인터뷰어 고유진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2022. 10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스윗뮤직가든은 일상의 예술, 예술의 일상화를 꿈꾸는 예술놀이터로 시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음악과 가까이 소통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함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이다.

사업소개

‘마음 예술가 MOM’은 학령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대상으로 진행된 ‘엄마표 예술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잊었던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좀 더 풍성하고 깊은 나를 채워가며,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가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소감

‘엄마’는 많은 의미의 이름을 갖는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 상의 변화를 통해 ‘나’의 이름보다는 수많은 의미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러한 많은 이름

속에는 내가 아닌 자녀, 남편, 가족을 위한 삶으로 스스로의 희생과 소멸로 강요함으로서 점차 ‘나 다움’을 옛 기억으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존재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마음 예술가 MOM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단어인 ‘엄마’라는 이름을 만난다. 또한 ‘엄마’이기 전에 꿈 많은 소녀, 열정이 많은 청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여성 등 아름다운 나를 한껏 뽐내며 살아온 ‘나’라는 이름도 만난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지만 엄마로서만이 아닌 여전히 내안의 내가 숨 쉬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열정의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마음 예술가 MOM의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 들은 엄마들의 끼를 발산하는 예술 놀이터가 되었다. 랩퍼가 되어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속사포로 내뿜어내기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 나의 가치를 높여보기도, 화려한 패션 런웨이를 하며 나를 마음껏 뽐내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끼들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다.

또한 신나는 놀이터는 엄마들의 속풀이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엄마가 되고 겪어야 했던 어려움, 불안함, 미안함, 무력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공감해 주는 시간은 다시 어깨를 펴게 했고, 서로 토닥이는 위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했다. 참여자와 진행자 누구할 것 없이 서로 동화되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모두가 ‘엄마’이자 모두가 ‘나’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마음 예술가 MOM’의 예술 놀이터는 아주 특별하다.

평범한 일상 속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악기 연주, 간식 만들기, 음식 레시피 등 다양한 활동과 음악을 접목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가족과 할 수 있도록 했고, 엄마들이 직접 예술가가 되어 연주, 노래, 음악극을 준비하며 연습하고 무대에 올리는 경험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경험이었으며,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엄마표 예술 놀이터가 된 것이다. .

1기, 2기 ‘마음 예술가 MOM’들 모두 무엇이든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들은 어떤 예술가보다 멋진 예술가였다고 말해 주고 싶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마음 예술가 MOM’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라는 의미가 희생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이기 바라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엄마라는 존재의 가치성 또한 높여가기 바란다.



예술단체마리모

“ ‘죄책감 없는 제로 웨이스트’가 주제예요. 의무감이나 강요 없이, 하고 싶을 때 하는 제로 웨이스트.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한 작은 실천들을 칭찬하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더 늘었고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 하나 시켜 먹을 때마다 배달 쓰레기로 죄책감을 느끼고 싶진 않잖아요. 배달할 때 일회용 젓가락 받지 않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면서 소소하게 실천해도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인터뷰이 박지애 예술단체마리모 대표

인터뷰어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2022. 8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차별없는 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예술활동을 추구한다. 동글동글 귀여운 마리모처럼 우리는 위협적이지 않고 귀엽다.

사업소개

너와 나를 위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프로젝트 <함께쓰는 걱정일기>는 일기쓰기, 줍기, 가구 리폼 같은 간단한 실천을 통해서 거절하기, 다시쓰기, 재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소감

‘제로웨이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쓰는 걱정일기>를 진행하였다. 누구나 쉽고 가볍게 제로웨이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소한 나의 실천이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기쓰기, 줍기, 버려진 가구 리폼해서 다시 쓰기, 안 쓰는 물건은 나눠쓰기, 냉장고에서 안 먹는 음식 재료 모아서 파티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모든 것은 조금씩 가볍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제로웨이스트에 한걸음 다가간 나와 우리를 칭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물티슈 덜쓰기, 당연하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많이 뿌듯했다. 크든 작든 모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우리를 응원하며 칭찬한다.



단체소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해 여성의 생태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교육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연계적, 종합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소개

미혼양육모와 모자가정의 절실한 니즈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한 부분을 함께 짊어지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들 가족의 독박육아 독박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삶의 작은 숨구멍이 되고자 공예와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소감

흔히 말하는 시대가 변하면 혹은 어떤 사건에 세월이 더해지면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변하고 명사가 달라진다. 18년 전, 미혼모 쉼터 엄마들과 처음 함께 했을 땐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적 그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어린엄마들이 이제는 두리모가 되어 강하고 둥근 마음으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 코로나 19로 세계가 모두 패닉에 빠져있다가 이제 서서히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 오는 희망이 보였던 2022년.. 엄마들과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물론 코로나에 감염되어 한 두번 수업이 미뤄지기도 했지만 어찌됐던 계획된 23주의 프로그램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민을 위한 소품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고 함께 조조한 파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작은 날개짓이지만 누군가의 가슴에는 한가닥의 따뜻함과 추억으로 자리매김이 될 거라고 믿으며 올해에도 함께 해 준 엄마들과 우리집, 편한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사]국가무형문화재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



단체소개

국가무형문화재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 전통놀이문화와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교육 및 교육사업,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통놀이문화의 대표적 단체입니다.

사업소개

- 농경생활의 지표였던 24절기를 알아보고 옷돌마을 문화재로 조상님들의 절기별 세시풍속과 활동 체험하기
- 국악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 가락에 담긴 뜻을 알아보고, 장구별달거리 완성하기
- 우리 전통놀이 이해하고 시연하기 및 우리 전통놀이와 비슷한 아시아나라 놀이 알아보기, 비교하고 차이와 비슷한 점 탐색하고 시연하기

참여소감

“아이고, 되다!”로 축약하여 소감을 적고자 합니다. 지난 해와 다르게 올 해는 강사님들의 노고가 부쩍 늘어난 프로그램들 속 이모조모가 많았습니다. 짬뽕준비, 대나무준비, 장작준비 등. 덕분에 강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무척 재미난 시간들로 가득가득 했지요. 강사님들이 술선수범으로 사전준비와 프로그램에 임하며 참여자들과 최대한의 [함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디에서도 체험 할 수 없었던 활동을 직접 제공하고 완성으로의 단계를 이끌어가는 연결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해 오던 것들이 아닌터라, 안

전과 계획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나,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만족을 불러 일으킨 둘째 마당, [달집만들어 태우기.]에는 프로그램 신청자가 아닌 주변 지인들과 친구분들을 함께 동반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리고 참여가 어려움을 알려드렸으나, 옆에서 보고만 있겠다고 하며 점차 프로그램으로 스며들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제차, 운영진과 강사진이 제지하자 불만을 터트려 참여자들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해당 단체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반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꼬지 판, 또 할까요?”라는 물음에 강사진, 운영진 모두가 “아, 좋아요~!”라는 답을 흔쾌히 소리모아 외칠 정도로 모두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엔, 참여자 어머니님 한 분이 굴을 한 상자 가지고 오셔서 강사님들께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어 감사 하다 구요. 어머니는 감사의 마음으로 굴을 주시고, 저희 강사님들은 굴을 보며 감동을 받았답니다. 또, 아이들은 그 굴을 먹으며 내년에 또 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어때요? 저희 이만하면 잘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무척, 재미나고 만족스러운 사업으로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
〈더드림 가족음악대〉가 꾸준히 진행돼 이 사회의
포선이 되길 바란다. 아플 때 먹으면 낫고 힘들 때
버프를 줄 수 있는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인터뷰이 문현경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팀장
인터뷰어 김수진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2022. 9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음악을 베이스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를 우리나라의 색깔에 맞춰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음악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고자 함.

사업소개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 가족 내·외부적인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집중,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다.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들로부터 소통과 교류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줌을 알게 되었다.

더드림 가족음악대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은 참여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해, 보다 나은 소통능력과 협동능력을 배양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치유·정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참여소감

더드림 가족음악대는 우리가족의 스위치다!

우리가족에게 on 버튼이 되어 서로에게 표현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는 단원들의 소감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는 나의 맘을 표현하지 않으면 제일 모르는 사이가 될 수 있음이 또한 가족이라 생각한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 천방지축 날아다니는 막내, 왜 멋진 악기를 배우며 연습을 안할까? 궁금했던 엄마, 하면 재미있지만 막상 연습하려면 너무 힘든 아들, 음악이라는 나의 친구가 생긴 주부, 바쁘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았던 음악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조바심과 설렘으로 시작한 더드림 가족 음악대. 악기라는 어려운 과정을 함께 연습으로 해결해 나가며 결과물을 함께 무대에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족들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소중함과 가족이 주는 위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들임을 함께 느끼고 옆에서 보며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쉽지 않은 길을 함께 하길 희망해본다.



놀이요점빵

“살아가는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한 사람의 몫을 하려면 경제관념부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법도 익혀야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레 알아채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이 이보미 놀이요점빵 대표

인터뷰어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2022. 6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놀이요점빵은 2016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모가 어루만질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교육을 전파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과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자립과 연대를 향한 작은 실천들을 펼쳤다. 삶과 생활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참여자와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소감

자립준비청년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2년째 만나고 있다. 2021년 처음 인사했던 친구들과 더불어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올 초,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센터 담당 선생님들과 기존 참여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내린 결론은 ‘먹는

것’이었다. 먹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친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이 친구들은 영양보다는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당보다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을 더 많이 찾는다. 이것은 센터 선생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하는, 자신만을 위해 온전히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것. 그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익숙지 않았다.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소수의 친구들 외에 대부분은 채소를 다듬는 방법도, 칼을 쥐는 법도 서툴렀다. 기능적인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주었고,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은 의미였다. 계절에 맞는 음식이 있었고,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닌, 왜 모여서 그 때에 알맞은 음식을 먹는지를 함께 경험했다. 제철이라는 말을 알아갔고, 혼자보다 여럿이 더 즐겁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센터에서도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전을 부쳐 왔는데, 이 날 너무나 많은 동생들이 생겨버린 것 같아 벅찼다. 함께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 친구들의 건강과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따뜻한 습관이 생겼길 기대한다.

2. 기반공동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 및 발굴, 확대



사업명	2022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사업기간	2022. 2. ~ 12.
사업내용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 주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업예산	340,000천원(시비)
주요성과	<div>18^개 단체</div> <div>384^{회차}</div> <div>일반14개, 인큐베이팅 4개 단체 선정 및 지원</div> <div>총 프로그램 횟수</div>

1,048^명

총 참여자 수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

“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2년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은 얼마나 엉망이었나 하는 질문을 해보니
슬쩍 웃음이 나온다. 지나고 나니 엉망 같아 보였던
그때의 순간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무너짐이자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터뷰이 주진옥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 대표

인터뷰어 오솔비 제13기 모담지기

2022. 6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문화예술교육의 한 방법으로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단체이다. 단순한 기능을 전수하는 교육적 창을 넘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한다.

사업소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악기군인 현악·관악·타악기에 대해 배우고 악기의 소리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보고 구할 수 있는 도구나 폐품들을 활용하여 나만의 특별한 악기를 만들고 제작된 악기로 연주하는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체험형식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음악을 매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

참여소감

2018년에 시작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가 어느덧 올해로 5기 단원을 배출하였다. ‘일상’이 광산구 월곡동에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오직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친구들을 위한, 우

리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수업재료와 고물 악기 이동과 보관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좀 더 자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친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사들이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매번 복잡복잡하던 엉망진창 오케스트라가 올해에는 코로나와 수업 장소 변경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이 늦어져 예전 같은 복잡거림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아쉽지만 친구들과 오히려 더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영망진창 오케스트라의 기수제는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참여자들 간에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1기 원년 멤버였던 한 친구는 올해로 5년째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어린 친구가 어느덧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친구의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도 함께 성장한다.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는 매년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기존의 악기는 업그레이드시키고, 매년 더 특별하고 새로운 고물 악기를 탄생시킨다. 올해는 특별히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전용 ‘반주 MR’을 제작하였다.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고물 악기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도한 이번 음원 제작 작업은 녹음 과정에 친구들이 직접 참여하여 고물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여 제작되었다. 고물 악기뿐만 아니라 반주 MR까지도 애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한해 한해 색다른 경험이 늘어가고 아이들의 헤프닝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이야깃거리가 늘어갈수록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이 안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쌓여 친구들의 건강과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따뜻한 습관이 생겼길 기대한다.



그계그림



단체소개

그계그림은 계림동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 공동체로서 문화예술을 공익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마을의 재생과 활력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예술과 창작을 중심으로 예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예술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낙후되고 도태되는 마을에 재생과 활력을 일으키는 활동을 만들고 있다.

사업소개

미술 전문 작가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스트레스 역시 해소할 수 있게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미술 체험을 하면서 칭찬과 격려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일 수 있었으며, 많은 소통과 교류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참여소감

문화예술 그 중에서 미술 분야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리고 기존 미술 학원에서 배우는 교육에 대해 싫증난 학생들도 있었고, 창의적이고 유익한 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다. 그계그림에서는 이번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이런 학생들과 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하여 미술 작가님들과 색다른 미술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직접 진행해보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감사하게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함께해주셨다. 미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게 된 학생도 있었고, 작품을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부모님도 계셨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완해야할 점과, 앞으로 더 추가해서 진행할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차후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더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단체소개

우리단체는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체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진로, 직업 활동 모델을 제시하여 젊은이들이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도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법인대표 김세화 이사장으로 경영학 박사이자, 넥스트커리어 저자로서 삼성창업놀이터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업소개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직업 교실, 코딩 교육(로봇코딩, 드론코딩, 디지털 코딩), 영재과 학교실, 뉴보드스포츠, 축구, 농구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야외진행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다수이며, 청소년 역사기행, 과학기술 캠프, 영어캠프, 해외 선진지 견학과 스키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역량계발을 위해 창업 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질문코칭 및 아이디어캔버스등의 프로그램에도 열심이다.

참여소감

야채 과일 자연물로 요리미술을 하는 것이 신선했는지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다. “아이가 다른 수업은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데 물감주스는 꼭 간다고 떼써요”, “물감주스에서 대나무통에 생화를 올려 밥을 지어 왔을 때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또 자연놀이 <산들바람>, 야간에 진행한 경주 <달빛별빛> 가족 캠프등 야외 캠프에서 더

깊게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예년보다 발전했던 부분이다. 무엇보다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에 아이들의 웃음을 많이 담을 수 있었다. 여유있게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연놀이를 하다보니 캠프시작과 끝에 아이들의 에너지가 증가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참가자들의 마음이 말랑해지고 자연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잘 찍으시는 우리 강사샘들이 좋은 컷을 많이 주셨고 그것을 영상으로 정리해 놀 수 있어서 뿌듯하다.

또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물감주스에서 사용했던 동백꽃씨, 채송화씨, 목화꽃, 대나무통등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보기 힘든 재료를 접하면서 그 빛과 색깔 촉감 등을 신기해했다. <오로라 꽃물> 시간에 숨 스펀지 입욕제등 다양한 재료로 색을 표현하고 봉숭아로 손톱에 꽃물도 들이고 했던 점도 재미있었다.



놀이세상 시웃협동조합

“

㉠. 10년 후에 여러분은 뭐하고 놀고 있을까요?

웃어나 그런 거...?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신선 놀이는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딱지치기요. 언제 해도 재미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요. 군인이 될 거라 나라를 지키려면 못 놀아요.

㉡.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이대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도 놀이처럼 해서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놀이대장이면 좀 헛갈릴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준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준서라는 애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다 놀이를 잘하니까 반전이 많이 일어나겠죠?

인터뷰이 문은희 놀이세상시웃 대표 및 전도영·이영정·심도윤 학생

인터뷰어 박혜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8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시웃은? ‘시웃’은 사람과 사랑, 숲과 시인과 선물을 이야기 하거나 써야 할 때 맨 처음 꺼내야 하는 자음이다.

‘시웃’은 매월 세 번째 주의 세수회를 통해 놀이를 연구하는 순수한 놀이문화 단체이다. 전래전통놀이, 숲.생태놀이, 보드놀이, 창의인성놀이, 흙놀이, 연극 놀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사업소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이뤄졌던 우리놀이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생태놀이(흙놀이, 자연물놀이), 뉴스포츠(스포츠스태킹), 보드놀이, 연극놀이 등을 배우고, 놀이대장이 되어 놀이를 이끌어 간다. 여러 가지로 놀았던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 놀이 문화를 보급, 확산 시킨다.

참여소감

복잡하고 빠른 현대 사회에서 학교와 나이를 떠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사라졌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 연령대의 친구들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정이 흐르는 느슨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공간에 따라, 함께하는 친구들에 따라 같은 놀이여도 바뀌면서 즐겁게 몰입하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함께하는 힘을 키웠다. 지혜가 자라났다.

시웃 사무실 뒷편에는 뜰이 있어 대형 화분을 놓고 수세미와 토란을 키웠다. 미세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운 수세미를 수확하고 쓸 수 있는 수세미로 만들며 놀고, 일상에서 플라스틱 수세미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놀이대장 지도자 과정]을 통해 놀이대장으로써 자신감 있게 누구든, 어디서든 놀이를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길 희망해 본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즐겁게 가꿔나가길 기대해 본다.

큰나무공동체

“역사와 자연은 후대 사람들이 지켜내야만 할 유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정유담 선생님과 인터뷰 이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그 유산은 미래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기대는 아마도, 역사-자연-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정유담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기에 내 안에서 자연스레 피어난 희망일 것이다.

인터뷰이 정유담 큰나무공동체 기획자

인터뷰어 이소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11월호 [울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사)큰나무공동체는 저소득층 및 이주민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활동을 한다. 그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언어·문화·예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동화구연연구회 모임인 반달회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 한다.

사업소개

서창이라는 작은 마을을 가족과 함께 탐방하고 그곳에서 가족만의 숲을 그리는 <가족 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가족과 함께 서창 마을을 산책하며 마을에 대해 알고, 마을에서 주운 나뭇잎, 돌, 열매를 가지고 놀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한 뼘 더 성장하고 가까워지는 작은 선물을 제공했다.

참여소감

우리는 핸드폰과 함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 그리고 핸드폰은 오늘 날 장난감 아닌 장난감이 되었다. 남녀노소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 SNS를 하든, 쇼핑을 하든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게임, 동영상 등 빠르고 강한 정보에 익숙한 우리의 뇌에 자연, 문화, 예술의 감성을 선물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때 가족 중에서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가족과 추억을 쌓는 일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다. 가족도 시간을 내어 추억을 쌓고 대화를 나눠야 친밀해지는 관계이기에 핸드폰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족프로그램 기획에 작은 고민이 생겼다. 엄마, 아빠, 아이 모두 모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더욱이 신청한 가족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서로 다른 눈높이를 맞춰 진행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또한 문화예술을 자연과 마을의 역사를 연계한 콘텐츠가 잘 받아들여질지 또 우리의 의도가 잘 공감되고 소통될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우리의 걱정은 ‘운’이 좋았을까?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 놀랍게도 모든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주셨다. 되려 준비된 책상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 주장사님과 보조강사님들 너나 할거 없이 서로를 플러스 하며 한마음처럼 수업에 뛰어들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술가가 아닌 마을해설사이며 기획자이다.

지금까지 내가 접해 본 문화 수업 중 예술이란 이름을 가진 수업이 가장 어려웠기에 일반 가족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많은 회의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꾸려 나갔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예술 코칭 수업을 하기엔 어렵고 흥미롭지 못하기에 티칭을 할지 코칭을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이번에는 뷔페코칭 수업으로 진행했다. 모든 재료들을 뷔페처럼 차려 놓고 재료가 입맛에 맞도록 선택하여 만들어 보고 이야기 나누는 뷔페 코칭의 결과는 가족 간의 맛이 잘 표현되어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 마다 소통하는 가족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또한 가족들의 즐거움과 상상을 나누는 가성비 짱(가족성장 비밀프로젝트) 문화예술 놀이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극놀이터



단체소개

극 놀이터는 “예술을 생활 속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적 힐링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되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삶에 질을 높이하고자 한다. 학교, 부적응청소년, 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연극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놀이와 이야기 애착진단평가 분석척도 및 사례>에 대한 연구와 NDP를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연구하여 <달고나(달라도 괜찮아! 고민해도 괜찮아! 나랑 같이 놀자!)>라는 아동 포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사업소개

<달고나>는 아동들이 또래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경-극적 놀이(NDP)로 이루어져있다. 신경-극적 놀이는 안정감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은 인간을 적응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본 프로그램은 혼자만의 놀이가 아닌 함께하는 놀이며, 유희성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1) 감각적 율동적 놀이로 핑거페인팅, 2인1조 댄스파티, 거울전이 등이 있으며, 2) 체현, 투사, 역할놀이로 셰이빙난장놀이, 종이컵난장놀이, 색습지난장놀이, 거미줄난장놀이 등이 있고, 3) 연극 만들기로 스토리메이킹, 역할 만들기, 그림자극공연, 연극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 외부활동으로 공연관람과 박물관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소감

너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1기수와 2기수를 마무리하며 달고나 단톡방에 참여자분들이 올려준 피드백을 보며 힘이 나고 열심이 다음해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참여자분들의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1)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그새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새로운 모습 찾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첫 수업 인사할 때 인사말 듣고 놀랐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는구나'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달고나 선생님들은 건강하세요. 2)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소중한 경험과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저희 애들이 어떤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 이었는데... 보는 제가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 놀거리 많이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신나 하는 아이들 보니 참여하기 참 좋았다는 생각에 애들도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4) 재미있는 놀이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모습에서 그 시간이 모두 느껴지네요. 친절하고 유쾌하고 한결같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웠습니다. 5)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달고나 수업 또 하고 싶다는 다음 주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12주 동안이나 이렇게 알차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 준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6) 달고나 가는 시간을 매주 기다렸는데... 정든 만큼 그리움도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아이가 먼저 일어나서 가고 싶다고 할 만큼 너무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 넘 넘 감사합니다! 8) 끝까지 애써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매주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단체소개

사람들과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려 꿈꾸고 공유하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기획과 컨설팅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단체이며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들과 주민의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음

사업소개

팀미션 활동(미술, 요리 등) 미술(재료) 다양성과 요리 접목으로 다양한 표현 끌어내기,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팀티칭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함양과 더불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고 시장이야기를 다양한 재료 사용과 표현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자아성취감을 갖게 함



참여소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꿈꾸고 공유하고 즐기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된 계층에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전통시장 체험, 미술(회화, 공예, 캘리) 놀이를 통한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전통시장 안에서 장을 보며 경제개념을 쌓고 팀티칭 요리활동으로 공동체를 알아가기를 하였으며 또래 세대 간의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마을문화공간을 마련 시장의 인간미와 역사를 알고 시장에서 직접 장보기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요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실현하며 성취감을 증대 시킴 매차시 수업결과를 밴드활동으로 공유하며 학부모와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피드백을 통해 차기 수업방향을 발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린학생들의 시장문화 경제개념 미술활동 등 팀티칭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눈을 종합적으로 길러 줌으로서 학생의 특기 적성 및 진로 교육의 준비과정을 경험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하나협동조합

“문화예술은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활 가까이에 문화예술이 스며들어서 삶이 곧 문화예술교육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화예술교육이 존재하는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인터뷰이 정선영 공하나협동조합 기획자

인터뷰어 오솔비 제13기 모담지기

2022. 8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공하나협동조합은 새로운 가치를 꿈꾸며 마을과 더불어 공존하는 청년마을기업이다. 지역청년들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를 교육, 연구, 기획,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일상 속에서 상시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해 가족과 함께 자원재활용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을 키우고, 예술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소감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쓰레기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재활용공예를 같이 배운다면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빨리 해결될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시간은 가족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생일을 몰라 난감할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감동받은 일이 사소해서 눈물을 흘린 가족도 있었다. 재활용 공예를 하며 자칫하면 버려졌을 쓰레기가 고사리 같은 손과 듩직한 어른의 손이 만나 서로 도와가며 예쁜공예품으로 탄생시키며 가족간의 유대감과 더 나아가 폐자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자료조사도 많이하고 재활용이 안될거라 여겨졌던 폐자원도 재활용이 되는걸 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거처간 모든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구발전오라

“창의성이죠! 하지만 저희는 ‘임기응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여진 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이 김탁현 지구발전오라 대표

인터뷰어 오솔비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2022. 7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지구발전오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로 만든 예술공간이다. 창작자레지던시, 전시,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아트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소개 필요한 소비재를 스스로 공급해보고 나누는 공유사회를 구축해나가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참여소감 마을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1주일에 1번 20주간을 함께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병아리 부화만 손꼽아 기다리며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 그저 엄마가 보내서 원지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 친구 따라 놀고 싶어 오는 아이들 등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께 아지트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작물도 키워보고, 스스로 사용할 식기류도 만들어보면서 생각의 확장을 키워 나갈 수 있었고, 벽화나 사진기록 등을 통해 예술은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었다.

주변에서는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예술교육이라 보다 적정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쯤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만이 예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거대한 틀을 씌운 느낌이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움트고,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해 협동심을 이끄는 과정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예술이었고, 예술로 이행하는 길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지만 만드는 건 곧잘 하고, 그림은 잘 그리지만 표현은 서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예술과 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이길 바랐다.

2. 기반문화사업



광주전통 천연염색연구회

“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 생각했다. 천연염색 교육일 것이고, 강사는 능통한 전문가일테고, 강의는 천연염색 기술을 전수하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선부른 예상과 달리 인터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뜻밖에 위로를 받았다. 장인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그가 지닌 기술이 얼마나 다정해질 수 있는지, 천연염색이 어찌 사람을 이어주고 위로하는지 알게 됐다.

인터뷰이 박미리 광주전통천연염색연구회 주강사

인터뷰어 이소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9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광주전통천연염색연구회는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전통천연염색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홍보를 실천하는 단체이다. 단순한 기능 전수가 아닌 우리지역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전통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실연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나만의 창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대중화될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초, 중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색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구현해 보고 여러 가지 천연염색 기법을 바탕으로 나만의 작품을 창작해 보고 그 결과물을 전시회를 통해 발표하면서 창작의 즐거움과 예술적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하는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가족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 마련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알찬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적 관계회복이 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

참여소감

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같이의 가치! 왠지 불안해 보이는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감수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었다. 주말이면 자녀, 부모 따로 노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조금은 낯설은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말예술배움터 - 나도 문화예술 천연염색 작가다!!” 는 1~2기수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총 30주차에 걸친 대장정을 22년 5월 14일 시작하여 지난 11월 19일 2기수 마지막 작품전시회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교육생 모집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입소문으로 정원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관계로 처음에는 자녀와 엄마만 참여하던 것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아빠도 함께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알찬 교육이 되었다.

매회차별 다양한 기법의 나만의 천연염색 작품을 창작해 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본인이 표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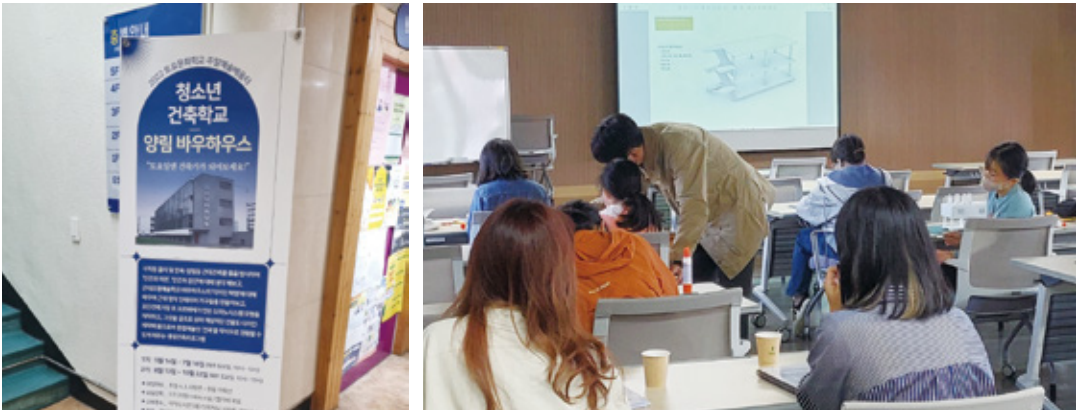
각 기수별 마지막 회차에는 친척 및 지인분들을 초청하여 본인들이 창작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회를 하면서 나도 문화예술 작가라는 자부심과 예술적 감수성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평가한다.

또한, 일부 교육 참여자로부터 뜻깊고 소중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2022년도 “주말예술배움터 - 나도 문화예술 천연염색 작가다!!” 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우리들은 앞으로 매월 한번씩이라도 소중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다.

2. 기반강화사업





단체소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교육, 예술체험, 축제 및 공연 콘텐츠를 발굴·수행해온 단체 <앙림동 건축학교>, <꿈을 짓는 건축학교>, <도시재생 인문학 '행복한 1반에 도시, 행복한 공동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사업소개

- 지역 건축물을 탐방하며 '사람·자연·공간'에 대해 느끼고 건축의 주요 요소들 배우기**
- 근대예술조형학교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혁명'의 핵심을 배우며 명작의 자 등 근대인테리어 아이템 만들기
 - 모던건축 거장 르 꼬르뷔제의 철학을 배우고 그가 만든 콘크리트 건물 기본 골조인 도미노 시스템 모형을 제작
 - '도미노 시스템'을 골조로 삼아 개성을 한껏 발휘, 인테리어·외장을 하고 옥상정원까지 만들어서 '나만의 모던하우스'를 완성
 - 약식 평면도로 '나'와 가족의 공간을 설계

참여소감

바우하우스 디자인 혁명 피피티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은 뽕뽕뽕뽕한 표정으로 잘 들어줬고, 디자인 스케치도 멋지게 해냈으며, 실제로 의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상력과 개성을 보여주었다. 친구들의 열의와 집중력이 거꾸로 우리 프로그램의 '관찰음'을 입증해주었을까? 또 도미노시스템을 골조로 한 모던하우스 제작 작업 역시 열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전히 코로나는 방해꾼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2년과 다르게 곳곳하게 대면수업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비록 수업 초반이 코로나 재유행 타임이어서 떨어져나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 회 한 회 수업이 진행되면서 평소의 활기와 복적복적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무로 협동조합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취미로든 직업으로든 꾸준히 생활에서 목공을 하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 경험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울러 이렇게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가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 김남중 나무로협동조합 간사
인터뷰어 김수진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2022. 10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피노키오꿈다락은 2016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 할 수 없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방을 운영하여, 친환경원목의 질감과 교감하며 목공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목공예문화예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소개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목공예체험활동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놀이문화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소감

주 5일제 근무와 자녀들의 자유학년제 등의 여가생활의 환경변화로 텍스트나 IT기기에 길들여진 우리 세대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르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정기복이 심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장이 마련됐다는 자부심과 함께 치열한 생존경쟁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쉼과 휴식을 맛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비록 주말을 반납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프로그램이었다.

2. 기반공사현



비알스페이스

“어릴 때 다양한 재료를 써보면 그만큼 확장돼요. 어려서 익힌 단어의 수가 머리 지능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예술 작가는 얼마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보았는지가 그의 영역을 좁히거나 넓힌다고 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인터뷰이 강희정 비알스페이스 대표

인터뷰어 고유진 제13기 모담지기)

2022. 6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비알스페이스는 2014년 바림미디어스페이스로 시작, 2020년 비알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꿔 지역의 환경과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즐겁게 만들면서 예술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학생, 주민, 장애인들과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최근 예술은 탈 장르화, 탈 예술화 되어 장르의 벽을 허물고 일상적으로 예술의 벽을 넘고 있다. 주말예술배움터 사업을 창의적 예술 체험을 한다면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텅커링을 주제로 하는 <예술로 공작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1기 20명, 2기 30명 총 50명의 학생과 가족이 3달씩 6개월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참여소감

우선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을 반납하고 공작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학생들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공작놀이 프로그램은 놀이와 공작놀이를 결합한 예술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실험실을 표방하고 운영하였는데 다소 어려운 주제인데도 참여자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각 회차 당 주제만 선정하고 소재, 재료를 개방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참여 아동들이 예술의 공간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면서 무척 자랑스러웠다. 긴 수업기간 동안 한명의 부상도 없이 전시회까지 잘 진행한 꼬마 작가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며, 묵묵히 프로그램을 이끌어 준 단체의 강사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느티나무탐험대 인큐

“느티나무 탐험대는 원래 아이들과 숲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 동아리였습니다. 점차 발전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자 느티나무 탐험대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됐어요.” 숲 놀이의 필요성을 느낀 학부모들이 모여 시작된 동아리가 지금의 ‘느티나무 탐험대’ 단체가 되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모두 누군가의 학부모이다. 학부모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및 숲 놀이 관련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 느티나무 탐험대에서 현재는 생태교육 전문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인터뷰이 정미정 느티너무 탐험대 대표·기획자·학부모

인터뷰어 박혜영 제13기 통산원 모담지기

2022. 11월호 [울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느티나무탐험대는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생태 자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생태미술, 생태그림책, 주제별 숲놀이, 가족생태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아이들과 함께 분적산을 찾아 핸드폰이나 학원이 아닌 오롯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감성으로 숲이 주는 에너지와 온갖 자연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아이디어를 되찾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소감

아이들은 아이디어야 빛이 난다. 노는게 제일 좋은 아이들과 미지의 세계인 숲의 만남은 찰떡궁합이었다. 연령층이 다양했던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같은 연령대의 참여자보다 다른 연령대의 상호작용이 더 재미가 있었다. 6학년 형이 키 작은 2학년 동생을 위해 기꺼이 들어올려 나무 구멍 사이의 곤충알을 보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형을 위해 동생은 살뜰히 형을 챙기는 모습에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숲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이 이치를 보여주었다. 분적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하여 분적산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녔다. 3개월여 동안 계절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낀 프로그램이지 않았을까?

초록의 계절에서 열매의 계절까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숲의 색, 소리의 변화에 한가운데 있었고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숲의 모습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핸드폰, 학원따위는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 친구가 조용히 와서 “도토리 대장님, 담주 토요일에 저는 뭐하고 놀죠?”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이 뭉클했다. 항상 지각하던 친구여서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나 고민을 했던 친구였는데 엄마 말이 집에 오면 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계속 이야기했다고 해서 표현이 적은 친구라 생각했다. 그런데 제 간에는 담주부터 만나지 못한다 하니 용기내어 물어봐 준게 너무 고마웠다. 언젠간, 이런 친구들을 위해 언제든 와도 좋은 숲놀이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숲은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다. 그것은 어른인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가을 끝자락에 분적산 편백숲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리드앤싱 인큐

“
각자 속도가 다르고 모두 특별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느라 바쁘겠지요. 한 아이의 가능성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잖아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과 섞여 사는 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일찍 배우면 오히려 아이들은 편견을 금세 거두죠.

인터뷰이 조울정 리드앤싱 대표

인터뷰어 고유진 제13기 통신훈 모담지기

2022. 9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단체소개

리드앤싱은 2020년 시작되어 느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예술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단체이다.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예술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업소개

학령기 초등 아이들이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함께 모여 동요와 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
해 그들을 둘러싼 정상과 비정상, 느림과 빠름의 속도를 거부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남과 다른
강점을 가진 비교불가한 멋진 작가님들을 탄생시키는 작가 탄생기이다.

참여소감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온전한 나, 개인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장애, 비장애 자
녀를 함께 키우며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 느림과 빠름 속도에서 벗어나 온전히 너라
는 존재가 비교불가한 멋진 존재임을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포부로 시



작된 프로그램이었다.

통합예술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장애군과 비장애군 아이들을 함께 수업에 참여할 때 처음
엔 학부모의 클레임이나 돌발 상황 등등 협력도서관도 걱정하셨고 우리도 두근거렸지만 정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장애라는 것이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고 오히려 함께 웃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프로그램 내내 마주하게 되었다. 그
때마다 어른인 우리들은 아이들을 통해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동요 그림책 제작이라는 결과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제일 경계하고자
한 것이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다. 마지막 북 콘서트-전시회때 부모님 혹은 그 누군가
에게 “잔!! 우리 잘했죠~!”하고 칭찬받기 위해 퀄리티를 높이려 아이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닌 과
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결과물 제작에 힘을 주려 할 때마다 “힘뻐시다!!”라고 외쳤
었다. 우리는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닌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
우며 그 과정들을 통해 비교불가한 멋진 작가님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않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이들이 적어낸 소감문을 보니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고싶
을 거라며 내년에도 오고싶다고 이제 작가되어서 뿌듯하다는 아이들의 글귀에 마음이 따뜻해
졌다. 이제 첫 시작이다. 작가님이 되신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에 나아가 암묵적으로 정해져버
린 속도에 압도되어 자신만의 가치와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 멋진 시도들을 궁리
해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태어날 작가님들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자, 작가님이 오십니다!! Andante(느리게)부터 Allegro(빠르게)까지

나무창작소협동조합 인큐



단체소개

나무창작소협동조합은 나무향기가 가득한 곳이다. 나무로 작품을 만들면서 체득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양하며, 친환경소재인 나무의 가치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한다.

사업소개

“슬근슬근 톱질하세”는 2022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보조금사업으로 초·중·고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토요일/3시간/12회차에 걸쳐 우리집에 필요한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유대감과 결속력을 견고히 한다.

참여소감

초·중·고생 자녀와 부모가 다함께 ‘우리집에 필요한 가구 만들기’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노력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여긴다.

매회차마다 낯설음과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부모와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할 일을 분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자리매김된다. 아이가 역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고, 의욕과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번외 작품을 제시하여 3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처음 공구를 잡았을 때 두려움과 어색함에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혼자 해보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목공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꺼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12회차 내내 결석 한번 하지 않고, 매번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후기를 남기고 갈 때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더 가치있고 유의미한 시간을 만들고자 밤잠(?)을 설쳤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눈에 띄게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아이, 8월에 만났을 때보다 키도 커지고 성장하는 아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며 포옹하는 아이,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어른들의 모습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이 씨앗이 되어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끝.



전통연희그룹자타공인 인큐

“
탈을 만들었다, 악기를 배웠다 보다 같이 만든 친구의 얼굴,
즐거웠던 순간 순간을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인터뷰이 김익수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기획자
인터뷰어 오솔비 제13기 모담지기
2022. 11월호 [울림] 인터뷰 내용 발췌

참여소감

2022년 초 추운 겨울 광주 문흥제일파크 지하상가에 '자타공인'의 공간이 들어섰다. 딱딱딱딱, 슬겅슬겅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니 어느덧 따스한 바람이 느껴지는 봄이 다가왔고 그제야 '자타공인'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상가 계단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는 어르신들, 방과 후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 편의점에서 과자를 먹으며 게임을 하는 아이들 자타공인의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은 그들을 보면서 시작되었다.

상가 계단, 놀이터의 그네, 편의점의 벤치에 있는 모두가 '자타공인'에 모여 문화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랐고 또 그 책임을 짊어지고 싶었다.

문화를 전달할 것, 전통을 알릴 것, 문화예술로 지역민과 소통할 것 등 순수하지만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문화교육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두 번째 발걸음은 쉽사리 뒀 수 없었다.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등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했고 프로그램의 대중성과 예술성,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서성여야 했다.

그리고 고민 속에서 거칠고 투박했던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은 하나하나 다듬어졌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달할지 또한 명확해졌다. 전통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전통으로 즐기는 시간으로 사자탈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 사자탈에서 친구와 발을 맞춰 뛰노는 시간으로 문화예술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으로 문화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문화를 향유하는 말 그대로 문화로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하였다. 봄 햇살을 기억했을 때 그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듯, 여름날 시원한 매미 소리가 귓가를 스치듯 자타공인에서 보낸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을 추억하는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 설렘, 웃음소리가 남을 수 있는 행복한 문화예술을 선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자탈을 만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또, 프로그램이 끝나고 친구와 놀러 오는 아이들이 이것을 증명하듯 다가와 주었다.

2022년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동과 설렘, 웃음소리는 앞으로 나아갈 우리들의 등대이자 이정표일 것으로 확신한다.



단체소개

스스로 자(自), 다른 사람 타(他), 모두 공(共), 인정할 인(認) 이름 그대로 자거나 남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전통예술을 펼치고자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예술성, 교육성,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왕성히 활동 중입니다.

사업소개

전통연희를 매개로 예술가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문화를 향유한 프로그램 '사자길들이기 대작전'은 소쿠리와 한지, 쌀풀, 지점토 등을 활용하여 어디서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자탈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연주, 남사당패 '버나놀이', 사자탈춤 배우기 등 문화예술에 흠뻑 빠져 보는 시간을 가졌다.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지난 11년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어
각기 빛나고 있는 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사업명	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사업기간	2022. 1. ~ 12.
사업내용	거점형창의예술학교는 거점배움터사업과 창의예술학교 사업을 융합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브랜드로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학교 밖 문화예술학교입니다.
사업예산	250,000천원(시비)
주요성과	<div>2</div> <div>개소 단체 운영</div> <div>거점형 창의예술학교 컨소시엄 운영</div>



북구문화의 집



단체소개

북구문화의집은 근린생활공간이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소비하는 생활 속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쉼터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소개

노작을 통해 경험을 배우는 어린이 예술학교

바퀴달린학교는 다양한 삶의 경험(예술경험)을 신체활동을 통해 체화하는 노작학교이다. 바퀴달린학교는 농촌의 산과 들, 논두렁을 다니면서 자연과 사계를 통해 배우는 땅과예술학교, 물성을 이해하고 점과 선, 면으로 공간을 만들고 건축재료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하는 주말건축학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놀잇감 괴짜소년단학교이다.

주말건축

버려진 물건, 사물을 새로이 다시 보면서 이것을 활용해

아이들이 평소 상상하던 놀이터를 구현하는 노작교육

언젠가부터 아파트 놀이터의 패턴이 천편일률적이다. 조금 다른 방식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동네를 돌며, 재료를 모으고 서로의 상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혼자 즐기는 놀잇감, 함께 즐기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물과 환경과 순응하는



프로그램 참여 소감

것을 목표로 한다. 북구문화의집 옥상은 주말건축학교의 ‘놀이공간’이다. 악기 놀이터, 텃밭, 오두막, 별 관측소, 아이들 아지트 등이 해마다 색을 달리한다. 놀이터의 웅장한 놀잇감부터 혼자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까지 직접 설계하고 재료를 구해 만듦으로 주말건축학교의 소속감과 자연과 함께 즐기는 놀이를 개발하고 있다.

땅과예술

사계절을 통해 이뤄지는 농사를 예술과 접목시켜

땅의 소중함을 예술로 승화시켜내는 현대회화 대지 인문예술교육

땅과 예술 학습은 밀폐된 곳에서 벗어나 자연과 삶의 터전에서 아이들이 소통하는 미술 수업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지를 미술적 장치를 통해 알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이기도 하다.

경작지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 논과 밭, 강과 하천 수로 마을과 공터 등 마을 곳곳이 그 미술 수업의 무대가 된다. 땅과 예술은 논과 밭을 중심으로 모내기과 작은 밭 꾸미기가 서로 구분되고 노작을 통한 현장 미술과 농촌 마을에 특색 있는 공간을 찾아 그리고 자연을 배우는 미술 학교이다.

괴짜소년단

괴짜가 된다는 것은 이상하고 괴상하더라도 남다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꼭 실현하고야 마는 것이다.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온갖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보는 기술과 예술(미적 경험)이 융합된 문제를 찾고 도전해 보는 프로젝트

영동하지만, 그 영동한 상상에 멈춰있던 것을 직접 자신들의 생활세계에 적용하는 모험활동이 주를 이룬다. 학교와 동네, 반려견, 공원, 놀이터, 등갯길, 친구와 선생님 등 일상을 마주하며 호기심을 가졌던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노작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 괴짜들이 모여 자신만의 또래집단을 만들고 공동의 주제, 문제를 가지고 협력해 유쾌한 호기심을 실현해나가는 커뮤니티 활동을 펼친다. 때론 날기도 하고, 때론 물 위에 눕기도 하고, 때론 높은 곳을 탐험하기도 할 것이다.

먼저 평소 즐기던 재미난 상상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료와 기술을 정리해 보는 ‘상상노트’도 만든다.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괴짜’들은 실패를 통해 앞으로 더더욱 ‘괴짜’로 유쾌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마주할 것이다.

“바퀴달린학교는 ‘잘 놀’의 기술을 익히는 곳”

우리의 노작활동 이야기는 ‘잘 놀’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바퀴달린학교>는 올 한 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잘 노는 아이’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으로 가득했다. 바퀴달린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놀 수 있게 어른들은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실내공간을 벗어나 바깥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놀기 위한 판을 깔기 위해 예술가 선생님, 운영자들은 참 무던히도 애썼다. 잘 애써주심에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먼 훗날 아이들이 바퀴달린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 놀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기를 바란다. - 최유리 바퀴달린학교 및 삶과 예술 배움형 사무국 운영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단체소개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학교 밖의 안전하고 대안적인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학교 안의 배움과는 다른 지점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율활동을 기획·운영·지원합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의 별칭인 '시소센터'는 환대와 배려로 사랑의 비율을 만들어 내는 놀이 기구인 시소처럼 청소년이 자연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 사람을 만나고, 이웃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삶과 삶 사이의 기분 좋은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시소예술학교의 '틈새드로잉'은 마을을 탐색하며 일상적인 공간을 미적 경험의 장소로 인식하고, 틈새에서 다양한 재료(자연물, 도구 등)를 활용하여 예술적 놀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생활하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은 틈새 공간들을 놀틈으로 정하고 예술적 눈을 실험하며 작은 일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유휴공간을 캔버스 삼아서 드로잉을 하고, 드로잉 과정을 관찰, 기록하여 미디어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줄줄이놀이터'는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뒤편에 있는 장수어린이공원을 탐색하며 놀이터로 바꾸기 위한 활동으로 숲 밧줄 놀이, 외줄 다리, 교차다리 등을 만들고 익히며 직조기술(밧줄)에 대해 배우고 상호지지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씨클 트리하우스를 만들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수업 시간내에 배우는 것과 다른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예술캠프와 교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소감

“저는 분필 그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분필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아요. -틈새드로잉 동림초 4학년 박윤비-

“자기만의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서 만화로 만드는 거예요. 재생을 하면 만화가 움직이는 데 '1초 만들기'가 열두 장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완성하니까 뿌듯했어요. 친구들과 고의 팀워크, 창작하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 틈새드로잉 윤천초 4학년 한서연 -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톱질이나 드릴 같은 것들이요.” - 줄줄이놀이터 계수초 5학년 강누리봄 -

“되게 좋았어요. 만들면서 협동심도 배우고 완성되어 가는 걸 보는 게 힐링 됐어요. 줄줄이 놀이터는 '토요일의 꽃' 아침에 나가서 작업도 하고, 기술도 배우니까 되게 좋아요!”

- 줄줄이놀이터 윤천초 6학년 유채영 -

마음놀이터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마음놀이터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단체이다. 현재는 노년, 중장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연구사업에 참여해오며 대상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을(삶터와 일터) 기반으로 여러 예술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양산동이라는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의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노래로 이웃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마을합창반

마을의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노래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00~10:00 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6분의 참여자가 함께했고 11월 29일 '마을, 마음을 노래하다' 정기공연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은빛예술

노년의 지역민들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꿈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축제, 공연 무대에 올라 동 세대에게는 위로를 다른 세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을합창반과 함께 11월 29일 '마을, 마음을 노래하다'정기공연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을다방은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강사, 시민들이 모여 사례 공유와 네트워킹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소감

- 꿈은 이루어진다. 어릴 적부터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노래하고 싶다는 꿈을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 노래를 하다보면 오늘 힘들었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집니다. 노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노래는 즐거워
-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지도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2. 기반강화사업





단체소개

올해 11년이 되는 본 연구소는 <모든 사람들은 무용수이다>라는 모토로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자기다움의 언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소통하고, 춤을 전시하는 과정들을 통해 창의적인 실험을 하고 있음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무용교육자,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본 단체는 <춤을 전시하다>, <춤이 말하다>, <춤아, 놀자>, <몸아, 놀자>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춤이 삶에 가까이에 있고, 쉽게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전문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임

프로그램 소개

춤은 자기에 의해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창작되는 자기표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춤을 춘다'라는 것을 넘어 주체적인 자기다움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몸 탐색(감각 열기), 관찰하기, 관계 맺기, 표현하기의 구조로 총 20회기로 구성하였음.

Program 1. <My story>

: 쉽이 필요한 중년 대상. 금요일 19:00~22:00

즉흥춤, 몸의 기억과 마주하는 시간, 몸의 가능성을 춤으로 확장하는 시간, 바디톡, 댄싱톡
#몸의 신호 #춤추는 금요일 #중년의 퇴근길 #쉽 #지금 이 순간

Program 2. <My name>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중년 대상. 일요일 14:00~17:00

즉흥춤, 일상관찰, 몸의 문장, 관찰 시각화, 관계 안의 움직임 등 움직임의 협업을 통해 몸과 마음 관찰하기
#때론 이기적인 나만의 시간 #홀가분 #어쩌다 춤 #삶의 리듬

참여 소감

어떤 장르로서의 춤이 아닌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처음 경험해 보는 컨텍 수업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을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가며 해나가는 경험이 쉬이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더 소중했다는 참여자의 소감문.

이처럼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이 최고의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50~60대의 중년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다양한 리듬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기억, 삶, 가족 등)을 바탕으로 자기 안에 내재된 예술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여 창의적인 나이 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이 들'을 만나는 인생 터닝포인트의 시간 제 공하였음.

사단법인 한국예술진흥회



단체소개

지역 문화예술산업을 기반으로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립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자연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소통으로 다가간다는 주제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자연과 예술이 만나 심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을과의 소통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성장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명 20회를 진행하였다.

배움에서 출발하여 지역으로 원에 나눔 200명에게 2회차 실시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며, 70대 80대 생애 전환 중장년이 지역과 살아오던 환경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교육적 경험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 소개

Program 1. 나의 작은 정원

현재의 삶을 축하하고 가치 있음을 예술의 창의적 개입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성장하고 정서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예술로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경양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이상 중년층의 삶의 경험학교를 통하여 예술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4·19 조형물 전시 기부', '나눔 실천 힐링 원예'등의 활동을 수행



Program 2. 예술정원

마을과 우정, 삶의 전환, 새로운 공공성을 향한 미적 돌봄으로 다가와 지역주민의 삶과 일상에 스며들어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양식을 담은 정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 식물을 매개로 다양한 스토리와 각각의 시선으로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정적 감정을 몰아내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참여 소감

동구 계림동이라는 새로운 예술창작의 거점기관으로 개척하기 위해 4개의 단체가 만나 생활 속 문화예술을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별별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였다.

경양마을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다른 것과 어떤 점이 달랐으며 자신만의 영감과 표현을 어떻게 찾았는지... 나의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작품으로 다가갔다.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 나의 작품, 당신이 작품을 봐줄 때 비로소 예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단체소개

아트에듀는 ‘당신의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당신의 삶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향유자의 저변확대 및 공연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배양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2006년에 아트컴퍼니원으로 창단되어 활동 중 2020년에 아트컴퍼니원 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 분리해 아트에듀로 활동 중이다.

아트에듀는 2006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2007년~2018년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에 12년간 참여해 왔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서구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아동, 청소년, 군 장병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그 역량을 키워왔다.

프로그램 소개

Program 1. <마을 역사탐험대>

계림동 마을 초등학생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탐방하고 이해하며 본인이 습

득한 지식을 예술적 행동으로 표현해 보고 이를 통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과정으로 마을의 역사와 기록,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3개의 기수로 편성하여 마을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본을 작성하여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촬영하는 방법의 프로그램으로 지역 마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법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임.

Program 2. <마을 예술단>

마을 역사탐험대가 초등학생 중심이라면 마을 예술단은 지역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의 구전과 경험의 이야기를 다양한 해석을 종합하여 스토리텔링화하여 마을의 중·노년층 예술단을 구성하여 희곡과 노래 개사,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동일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풍성하게 표현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마을의 홍보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마을의 홍보예술단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소감

거점형 창의예술학교에 처음 참여하며 기존에 아트에듀에서 해왔던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처음에는 거점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참여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과 그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것이 마을문화예술교육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또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교육계획 변경을 통해 마을 역사탐험대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고 마을예술단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었기에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짧은 준비기간으로 아쉬웠던 점도 많았던 것 같다. 내년 다시 거점형 창의예술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실내악단 마하나임



단체소개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 전공 분야의 활동 이외에도 앙상블 및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의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소개

Program 1. 내 마음이 들리니?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생애전환을 거치고 있는 장애(자폐, 지적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경험하고 지역의 음악가들과 만나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발달장애 청소년과 지역의 음악가들이 만나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변에 관심을 환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으로 표현하여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Program 2. 내 인생의 모노드라마 ‘별을 헤이는 밤’

통과의례를 거치며 중년이 된 40대~50대, 남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눈물 흘렸던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이야기를 연극을 매개로 조금씩 꺼내며 함께 삶을 나누게 될 프로그램으로 여러 발달장애 아이들의 성장스토리를 유니버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그림자극으로 풀어내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

금번 반올림학교를 운영하면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수성과 발달장애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과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배움에 있어서 장애라는 요인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사와 부모, 발달장애 청소년 모두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연주는 듣는 모든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었으며, 부모님들은 서로간의 정보와 고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에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하였다. 다만, 금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교통약자나 발달장애 등에 대한 시설물들의 보완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단체소개

다원화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영구히 기록 보존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예술 전통 및 정신이 후대에 더 큰 가치로 발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순수미술을 기반으로 하되 기술 발전에 발맞춘 첨단 다원 예술을 수행한다. 청소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며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에 더해 기술과 접목한 예술 이론/실기를 실행한다.

프로그램 소개

Program 1. 모두의 빛 라이트 드로잉

예향지역아동센터 / 2022.8~11 매주 금요일 2~5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메라와 형광, 야광, 3D펜, 푸어링 아트 등 빛을 발산하고 흡수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위의 소재들로 대상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완성시키는 드로잉

프로그램 참여 소감

Program 2. 감성기술 “미디어 블루스”

(사)한국예술진흥회 / 2022.8~11 매주 금요일 6~9

장년층을 중심으로 창의적 미술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참여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제작, 노래, 악기, 퍼포먼스 등 개개인의 장기를 살린 작업을 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아동 청소년들은 발달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 라이트 드로잉에 대한 지속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캔버스가 아닌 무의 공간에 색을 입히는 수업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에 문화예술교육이 접목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년층은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접하게 되어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빛과 미디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표현하여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특히, 해당 기술을 가정으로 연결하여 세대간의 대화의 창구(소재)로 이용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5. ~ 12.		
사업내용	생애전환기 참가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기획자 선정)		
사업예산	61,800천원		
주요성과	4 ^명 기획자 선정	4 ^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1 ^명 참가자 및 참여강사



윤선목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정서적 교감으로 일상의 해방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화예술기획자이다.



프로그램명	욕탑방 온(溫)앤온(ON)
교육 대상	30~40대 육아·출산으로 인생 전환기에 있는 여성
교육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61-2, 관선재 갤러리 4층, 줌(zoom)
교육 장르	무용+음악+미술
문의	M. 010-3842-7472(윤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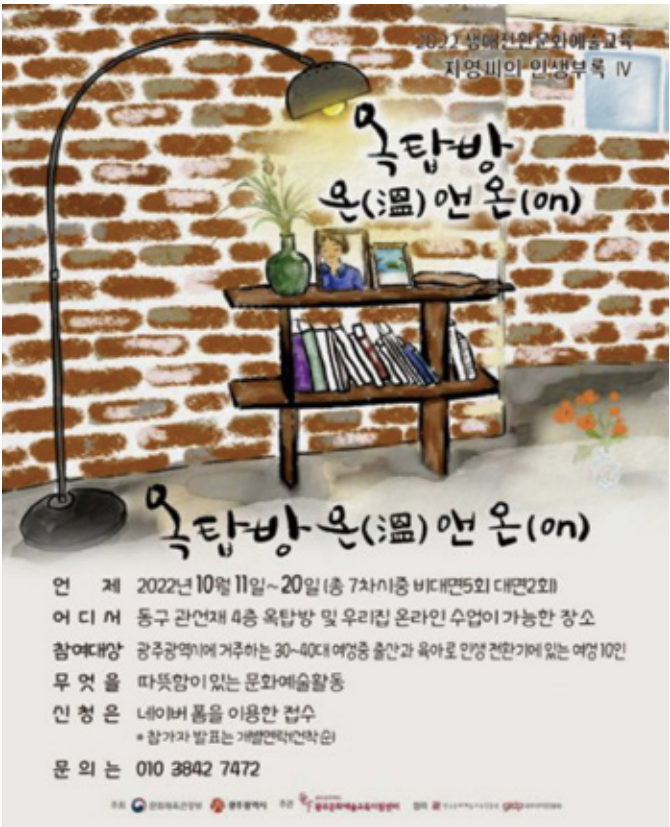
연구과정

연구과제
30~40대 육아와 출산으로 전환기에 있는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정	내용
2022. 09. 11	참여자 특성 파악(자료)를 바탕으로 지영씨 인생부록4 ‘욕탑방 온(溫)앤온(ON)’ 제목 수정 및 필요 사항 체크
2022. 09. 12	차시별 강사진 수업 내용 협의 및 일정 전달
2022. 09. 22	차시별 수업 전 미션 제시 및 수업 내용 정리
2022. 09. 28	온라인(줌) 체크 및 각 차시별 준비물, 강사진 최종 미팅 등

프로그램 소개

지영씨 인생부록4 ‘욕탑방 온(溫)앤온(ON)’ 출산과 육아로 생애 변곡점을 맞은 30~40대 여성
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본지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엮은 별책부
록처럼 삶 속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지영씨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인생의 부록을 엮고
자 시작되었습니다.



회차	일자 및 강사	제목	내용
1	10월11일(화) (3h) 비대면 - 윤선목 이지현	내 인생 안녕하신지영 : 두드리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 내용 전달 • 참여자 소개, 인사 나눔 시간 (각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결과를 공유하며 자기소개) • 각자의 상황을 음악을 통해 감상하고 부르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두드리 본다.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지는 음악을 감상 2단계 일정한 패턴에 맞춰 음악감상(예:집안일을 마친후, 빨래를 개울 때 등) 3단계 하루에 한번씩 들던 음악을 한번 더 듣기 4단계 음악을 들었을때의 나의 감정 기록 수업진행 후 미션 참여자 개인마다 취향을 고려하여 전달된 음악 감상 후 스스로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기(단체채팅방에 각자 추천하는 곡 리스트 올리기)

회차	일자 및 강사	제목	내용
2	10월12일(수) (3h) 비대면 -	조용하고 편안하다 : 돌아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책과 음악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글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지친 일상에 긍정적 메시지를 캘리작업으로 새겨보기
	윤선목 강지숙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영상으로 전달된 미션확인 2단계 앞서사람의 영상에 이어 영상촬영 3단계 단체 카톡에 업로드 4단계 집에 있는 책들을 살피고 수업준비 수업진행 후 미션 자녀들과 남편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엽서에 예쁜 글씨로 담아 책상에 놓아주기(엽서를 받아본 자녀의 반응을 일기에 기록해보기) 각자의 작품을 집안의 인테리어로 활용 하기
3	10월13일(목) (3h) 비대면 -	찬란하고 아름답게 : 흘날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감정 쏟아내기, 털어내기신체 움직임으로 '나' 표현하기나를 돌아보고 미뤄둔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사색하며 온 몸을 펼쳐본다.
	윤선목 김지나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강사가 보내온 풀치마 댄스 영상을 감상 2단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할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스스로 생각해본다 3단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할 때 강사가 보내온 풀치마 댄스를 따라해본다 수업진행 후 미션 함께 배워본 풀치마 댄스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릴레이 영상작품(릴스) 만들어 본다
4	10월14일(금) (3h) 비대면 -	내 안에 담긴 나의 자화상 : 바라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희망을 그리는 미술작가와 함께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그려보고, 이야기로 내뱉고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갈등을 다양한 색채와 붓터치로 과감하고 섬세하게 표현해본다각자의 작업이 작품이 되어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의 예술작품 만들기
	윤선목 이다애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해바라기미술키트를 활용하여 자기만의 공간에서 매일 조금씩 완성하기 2단계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상기해보기.해바라기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족, 행복함을 의미하는 꽃말처럼 그림에 의미를 생각하며 작업 3단계 완성된 그림으로 집 장식 수업진행 후 미션 내가 작업한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해보고 가족의 반응과 내 작품을 더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지 기록(그리고 싶은 그림의 이유도 기록)
5	10월18일(화) (3h) 대면 -	따뜻함을 담아 溫 : 차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나의 몸에 집중하기호흡을 정리해보고 나의 몸을 살피며 바로 세우기일상에서 몸을 돌보고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고 경험하기
	윤선목 윤세나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음악을 듣는 동안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2단계 내 몸 불편한 곳 찾아보기 수업진행 후 미션 강사에게 배운 몸 세우기 동작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 움직여 본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편안한 나만의 공간에서 진행하면 좋아요) 나의 몸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 기록해본다.

회차	일자 및 강사	제목	내용
6	10월20일(목) (3h) 비대면 -	하늘보다 넓은 내일 비상하라 : 스며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생스토리를 나의 움직임과 동작들로 표현해보며 지금의 나에서 앞으로의 나의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보기각자의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무용가와 더욱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단조로웠던 인생스토리에 더해질 감정, 움직임, 단어, 표현들을 만들어본다.
	윤선목 이반야		수업진행 전 미션 1단계 미션이 담긴 영상을 플레이 한다. 2단계 영상 속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3단계 페이퍼에 같은 메시지를 나의 이쁜 글씨로 적어 본다. (왼손으로 적어도 좋다. 영어로 적어도 좋다. 욕을 적어도 괜찮다.) 4단계 영상 끝부분 '지영씨'의 종이가 어디로 떠나며 종료 되는지 확인한다! 5단계 그리고 그 장면에서 종이가 나타나도록 연결하여 촬영한다. (만약 동일한 소품이나 무엇이 없다면, 누군가가 던져주는 종이를 받는 것도 좋다.) 6단계 상상한다. 나의 종이는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상상한다. (무엇이든 좋다. 안되는 건 없다.)
옥탑방 방문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로 참여자들이 직접꾸미는 비밀스러운 우리들의 공간 방문 데이참여자들이 랜덤으로 방문하여 예술 오브제를 각자의 방법대로 공간을 예술로 채우기참여자 스스로 움직이고 꾸미는 예술공간만들기수업차시와 상관없이 옥탑방에서 예술 강사들과의 만남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술을 경험
7	10월21일(금) (3h) 대면 -	예술로 디자인하는 나의 삶: 황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우리의 옥탑방” 에서의 만남변화 된 '나' 발견하고, 변화 될 '나' 경험하기우리만의 파티를 통해 멋도 흥도 부려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만큼은 내가 주인공결과 공유 및 수료식
	윤선목 이지현		수업진행 전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 일상에 예술이 더해진다면 어떤 삶이 디자인되어질 건가 질문에 고민해보기음악, 움직임, 글, 춤 등 다양한 예술 혹은 각자의 방식대로 질문에 답 준비하기 수업진행 전 미션 나답게 멋지게 살기



참여소감
기획자

저마다의 지영씨들이 자신의 인생 전환기를 맞이하며 꿈, 목표,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시작에도 두려움 없이 시작하려는 마음을 응원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영씨 그리고 기획자, 강사진에게도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소감
프로그램 참여자

- 지영씨 인생부록4 ‘옥탑방 온(溫)앤온(ON)’을 통해 예술활동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색다른 감정을 경험했고, 심리(색채)자격증과 미술 심리 자격증 취득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영씨 인생부록4 ‘옥탑방 온(溫)앤온(ON)’을 통해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지영씨 인생부록4 ‘옥탑방 온(溫)앤온(ON)’을 통해 요가,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며 더 건강하고 젊어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출발에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겠다.
- 지영씨 인생부록4 ‘옥탑방 온(溫)앤온(ON)’을 통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예술 활동들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그로인해 앞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려고 한다.



임창숙

실용음악을 전공한 음악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재료로서 음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으며,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프로그램명	나의 해방일지
교육 대상	독립을 원하는 20~30대 청년
교육 장소	광주청년센터
교육 장르	문학, 음악
문의	M. 010-8627-8812

연구과정

연구과제
독립을 원하는 청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정	내용
~ 2022.08.31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연구 및 생애전환기의 청년에게 독립은 스스로 서는 힘을 갖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관계로부터 독립을 의미함
2022.09.08.~09.16	[인터뷰] 내가 원하는 독립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 청년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청년에 특징 파악
2022.09.17.~09.30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소개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서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부모에게, 친구에게 의지해 살던 나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로의 전환을 꿈꾸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삶을 스스로 가꾸고 경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내가 나를 아끼고 스스로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회차	일자	제목	내용
1	10월11일 (3h)	오리엔테이션	• 오롯이 홀로서다 공연 • 강사진과 참여자간의 상견례 • 프로젝트 기간 내 볼릴 닉네임 • 씨앗 고르기(반려식물 일기쓰기)
2	10월20일 (3h)	다시 태어나기	물리적(공간적) 독립을 위한 준비 • 지난 날의 나를 돌아보기 • 지난 날의 나와 이별하기 • 게더타운 스페이스 개설하기
3	10월25일 (5h)	성취감 맛보기	정신적 독립을 위한 준비 Go or stop in the mountain - 도착지점을 스스로 정하고 목표한 만큼 이루기(중도하차해도 상관없음)
4	11월1일 (3h)	미션과 비전찾기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MBTI를 통한 나의 성향(직업)찾기
5	11월8일 (3h)	나의 도움닫기	정신적 독립의 구체화 • 그렇구나(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 vision note 만들기 • 나만의 ost(가사) 만들기
6	11월15일 (3h)	나로 나아가기	물리적 독립의 구체화 • 나의 성향이 묻어나는 공간 꾸미기 • 나만의 ost(멜로디) 만들기
7	11월22일 (3h)	나를 응원하기	나의 앞날을 응원하는 아이템 만들기 • 온전히 마음을 쏟아 좋아할 대상 찾아보기 • 나만의 아이템 만들기
8	11월29일 (3h)	나의 해방일지	• 본명 공개하기 • 반려식물 공개하기 • 독립선언서 쓰기 • 나만의 ost 불러보기



참여소감
기획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은 올해 청년에서 장년이 된 기획자 겸 강사인 저에게는 큰 의미로 남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지만, 저마다의 방법대로 내일을 그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무언가 할 일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 따라와 준 청년들 개인적으로는 청년을 다시 보게 한, 또 그들에게 애정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소감
프로그램 참여자 나의 해방일지를 마치며...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펄펄이를 키우며 기다림과 성장을 배우고 등산으로 소소한 성취감을 느꼈고, 가족공예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함께 참여한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불안한 청춘들에게 가장 필요한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한 청춘들에게 모두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 부정맥:윤정연 -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은방울:이은빈 -

MBTI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공예품 만들기를 통해 나만의 아이টে을 가지게 되어 좋았고,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보낸 시간이 좋았습니다.
- 심심아:최고봉 -



정의림

안녕하세요 이번 노년기를 대상으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중 운영한 정의림입니다.
100세 인생, 그리고 퇴직과 퇴직이후의 노년의 삶을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평소에도 노년기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년도를 시작으로
저는 노년기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상별로 세분화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명	인생 한 곡절 한 곡절이 아름다워라
교육 대상	노년(65세~75세)
교육 장소	푸른길 도서관(광주 남구 금당로 140)
교육 장르	복합(사진찍기,미술(그리기, 만들기), 문학(시짓기) 등)
문의	M. 010-2820-5156(대표 정의림)

연구과정

연구과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구체적 범위에 따른 대상의 특징(67세~72세) 연구
노년기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정	내용
2022.07.04.(화)	차시별 연구회의 주제 협의, 연구 방법 등
2022.07.11.(화)	다큐멘터리, 영화, 통계자료를 통한 노년기의 이해와 특징 연구
2022.07.18.(화)	인터뷰를 통한 노년기의 이해와 특징 연구
2022.07.25.(화)	관련 사례 연구 및 타 프로그램과의 차이성 및 차별성
2022.08.02.(화)	노년기 문화예술교육 키워드 추출 및 프로그램 방향성 논의
2022.08.09.(화)	차시별 프로그램 연구 및 유사 프로그램 예시
2022.08.16.(화)	차시별 프로그램의 기법 및 수업자료
2022.08.23.(화)	차시별 프로그램(안) 1차 협의
2022.09.05.(화)	노년기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 키워드 도출 컨설팅을 반영한 프로그램 흐름등 재설정
2022.09.12.(화)	차시별 프로그램 세부 연구



프로그램 소개

회차	일자	제목	내용
1	22.10.08	나에게로 초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오래 바라보고 다시 한 번 관찰하며, 상대의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어떤 기준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본다.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소개(의도) • 나의 삶 회상(교복, 노래 부르기) • 한 줄 드로잉, 첫인상 드로잉
2	22.10.15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름에 담긴 나의 삶의 희노애락을 이야기 해본다. 주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못한 것 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여주는 흔적이고 기록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 주름지도 그리기, 주름에 담긴 삶의 역사 기록 • 나 소개하기, 거울을 통한 내 얼굴 주름탐구 • 나와 화해의 편지쓰기
3	22.10.22	마을을 열어 보는 문	다양한 동화 속에 담긴 시대상을 현대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당시의 고정 관념 및 사회의 틀을 벗어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들어보며 연습해본다. • 동화에 반영된 시대상 확인하기 • 동화 내용 비틀어 생각해보기 • 나의 인생을 담은 시 쓰기
4	22.10.29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들	과제로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찰하고 다시 보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들을 낯설게 보고 다시금 관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나의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림과 시를 쓰듯 글로 표현해본다. • 과제를 통한 나의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탐구하기 • 관찰 후 느낀 점과 대접할 음식 그리기, '마음을 담은 한 접시' 시 쓰기
5	22.11.05	우리집 관찰, 우리집 낯설게 보기	내 지난 세월 속에 내가 좋아했던 추억의 공간을 떠올리고 왜 좋아했는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를 떠올린 후 내 행복만을 위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본다. • 우리집 관찰 공유(나의 의미 있는 공간 찾기) • 우리집 낯설게 보기 • 컬러점토를 통해 '내 마음의 정원'만들기(정원, 방, 공간) • 내 공간(정원)을 위한 실천 활동
6	22.11.12	삶의 공간 비틀어보기	매일 똑같이 느껴지는 환경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 반복되는 하루에도 위트를 느낄 수 있다. • 야외에 나가 구름, 나뭇잎, 돌 등 자연물을 새롭게 바라보기 • 내가 찍은 자연물 사진에 상상의 그림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7	22.11.19	내가 머물고 싶은 곳들	무심코 지나다녔던 우리 동네를 산책해보며 내가 지나치고 있었던 우리 동네 명소를 찾아 보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 계획해보기 • 무심코 스쳐 지나간 우리동네를 자세히 돌아보며 기억해보기(공원, 정자, 슈퍼 앞 등) • 좋았던 장소 이야기 해보기 • 우리 동네 마실 지도 그리기
8	22.11.26	결과공유 및 전시회	전 회차의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고 돌아보며 지난 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은 점을 공유한다. 또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5계명을 작성하여 발표해 보고 서로 지지하 고 의지를 다져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 결과물 전시 및 관람 후 느낀점 공유 •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인생 책자' 배부 •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거다?' 원테이블 다과회

참여소감

기획자

2022년 광주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 당시만 해도 컨설팅 받으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광주문화재단 담당자들과 컨설팅해주신 김해일 선생님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보면 “아이들은 우리 미래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기를 다루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문제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들 이 기획이 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감

프로그램 참여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언제 또 다시 하나요? 제가 도서관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의견을 내었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내 인생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구성이나 내용은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 게 아쉬웠습니다. 일 년에 4회 정도 있으면 좋 겠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스터를 보고 나도 저 할머니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에 들여다 봤고~ 또 포스터에 나와있는 문구들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식탁에 올라와 있는 빵이나 채소들을 보면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 네요. 이럴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덕분에 오게되었지만... 이제 보니 친구보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오게 되었던 거 같아요. 저 좋은 친구 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인가 찍어서 올리고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느낌도 아직까지 들고~ 정드니깐 헤어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내년에도 꼭 먼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미

2006년 광주에서 극단생활을 시작하면서 배우 활동과 교육연극, 그리고 그 외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위로와 성장을 경험하였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명	리본(Re-born) 런웨이
교육 대상	30~40대 경력보유(단절) 여성
교육 장소	미로센터 미로라운지
교육 장르	연극(복합)
문의	M. 010-5683-8412

연구과정

연구과제
30~40대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 여성들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및 앞으로 삶의 설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정	내용
7월 25일 ~ 8월 24일	대상자 연구 및 프로그램 방향성 고민
8월 25일 ~ 9월 10일	대상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9월 11일 ~ 9월 20일	컨설팅 의견서 수렴 및 최종 프로그램 계획안 제출
9월 21일 ~ 10월 5일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소개 연극적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내 안의 나를 돌아보며, 엄마로서가 아닌 나를 표현해 본다.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차	일자	제목	내용
1	10월 6일(목) (3h)	스타박스 말고 수다박스로~!	첫만남, 일상의 카페에서 수다를 나누듯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해주기
2	10월 13일(목) (3h)	나 들여다보기	내가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동화 속 한 장면을 극으로 표현해보며, 나의 몸, 마음, 관계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
3	10월 20일(목) (3h)	내 안의 긍정의 힘 찾기	숲의 여신이 되어보고 여신의 공간을 꾸미고 여신이 갖고 있는 능력 등을 이야기해보고 내가 추구하는내 안의 긍정적 힘을 찾아본다.
4	10월 27일(목) (3h)	내 삶의 디자이너는 바로 나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5	11월 3일(목) (5h)	바디프로필 말고 마음 프로필	결혼사진, 가족사진이 아닌 온전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본다.
6	11월 10일(목) (3h)	나의 리본송 (다시 태어나는 나를 위한 노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불러본다.
7	11월 17일(목) (3h)	나의 리본 퍼포먼스	나의 리본송에 맞추어서 나의 미래의 한 장면을 뮤직드라마 또는 춤으로 만들어 표현해본다.
8	11월 23일(목) (3h)	리본 런웨이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발표하고 한 장면을 무대에서 발표한다.



참여소감
기획자

누구나 생애전환을 맞이한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사회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특히 여성으로서 엄마가 되기 전과 후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또는 보냈던 엄마들과 만나고 싶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고 나 자신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소감
프로그램 참여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챙겨주고 싶어요. 나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내가 노래부르고 음악에 맞춰서 몸을 맞추는 걸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2. 기반강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역 신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으로 문화기반시설 실무 경험 기회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기간	2022. 1. ~ 12.		
사업내용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사업예산	172,000천원		
주요성과	6개 기관 선정	6명 문화예술교육사 선정	

운영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	참여대상
국윤미술관	송승지	예술로 예방하자! 굿바이 스트레스	초등고학년, 중학생
광산문화원	이하송	행복하SONG	60대이상 신중년
광주광역시동구청 미로센터	박은비	풀이랑 친구할래!	1~3학년 초등학생
드영미술관	조주희	아트스위치ON&OFF:휴(休.HUE)	가족
영산강문화관	우신영	영산강쓰레기UPIGO퍼포먼스	4~6학년 초등학생
이강하미술관	백지영	꼬마 예코SEA!	초등학생



국윤미술관

예술로 예방하자! 굿바이 스트레스

“요새 학생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고 맞벌이 가정도 많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불안과 우울에서 그들을 꺼내고 싶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자기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기만 해도 스트레스는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스럽게 틀에서 벗어나 보면 내가 틀리지 않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알게 돼요.

인터뷰이 송승지 문화예술교육사

인터뷰어 정혜원 제13기 모담지기

2022. 9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중학생, 초등학생(고학년)
교육 장소	국윤미술관 교육실
교육 장르	미술 & 음악
문의	T. 062-232-7335 E. yywol1@daum.net

단체소개

국윤미술관은 2008년 개관한 사립미술관으로 국중효(서양화가)와 윤영월(조소작가)부부가 설립하였고, 전시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4층 건물로 2개의 전시 실·교육실, 수장고, 레지던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참여자들이 다양한 음악·악기와 친해지고 자기만의 작품 제작과 감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 시켜주고자 하며, 가정이나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음악과 미술을 접목시킨 놀이, 만들기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운 감정 표현 및 사고의 전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사 소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표현·이론적 기술이 아닌 감정 표출 및 상상력 향상과 동시에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고의 전환을 인식시켜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악기, 박자, 리듬, 셈여림, 템포 순으로 음악과 미술이 융합되어 점점 심화 과정의 프로그램 마무리를 하고 보니, 5주 동안의 활동 이미지, 작품 제작 등 참여자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학생들이 이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다시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지만, ‘동물의 사육제’ 음악 동화를 통해 템포와 친해지며 가족 캐릭터를 비롯한 ‘오션드림’을 제작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랑 하는지, 더 나아가 악기 만드는 것에 이 점을 접목시켜 더욱 흥미를 느끼고 집중력이 가장 높은 회차여서 뿌듯하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매주 토요일, 약 한 달간의 시간들이 뿌듯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아이들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5주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광산문화원

행복하SONG

“<행복하SONG>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사하면 즐거워하세요.”

행복하SONG 에서는 하트를 만들며 인사한다. 귀엽게 인사하며 웃음꽃이 피면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음악을 듣고 여러 게임도 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오고 갔다.

인터뷰이 이하송 문화예술교육사

인터뷰어 박혜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12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60대이상 신중년
교육 장소	광산문화원 2층 모듬방
교육 장르	음악 융합형 인문학
문의	T. 062-941-3377 E. gsc3377@hanmail.net



단체소개

광산문화원은 광산구의 향토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어등골 문화, 어등의 맥을 발간합니다. 또한 문화재 탐방과 문화강좌, 다양한 공모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행복하SONG』 프로그램은 음악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감정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며 기획한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사 소감

2022년도 광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이하송입니다.

60대 이상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행복하SONG’이란 소통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은 행복한 설렘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60대 이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 환영받던 문화가 아니었기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지 도전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표현과 소통 중심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행복하고 설던 제 개인적 소망이 자칫 참여자들에게 표현을 강요하는 폭력성을 띠지는 않을지 매우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우려가 무색하게도 강사님의 재치와 진정성, 통통 튀는 생동감 넘치는 수업 진행으로 모두가 소녀, 소년 친구가 되어 마지막까지도 신나게 놀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기획부터 행정업무처리를 경험해 보면서 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숙련도를 기를 수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사람과 삶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공동체와 협력의 가치 실현에 대해 고민해 보며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제 순간의 삶의 의미를 더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감사함은 향후 더 발전된 역량으로 소중히 나누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송♥♥♥♥♥♥♥♥

광주광역시 동구청 미로센터 풀이랑 친구할래!

“ 이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관심을 두게 하려면 어떻게 흥미를 유발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풀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풀이 어떤 역할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식물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하는지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재미있게 녹여내면 이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자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획하게 됐어요.

인터뷰이 박은비 문화예술교육사

인터뷰어 고유진 제13기 모담지기

2022. 11월호 [울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교육 장소	미로센터, 예술의 거리
교육 장르	다원(공예, 시각·미술, 악기·음악, 사진)
문의	T. 062-608-2135 E. thedoor@korea.kr

- 단체소개

미로센터는 문화×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광주 문화예술의 원류인 예술의 거리에 '새로운 세대 ·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앵커시설입니다.
- 프로그램소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안에서 환경을 지키는 도심 속 식물의 역할을 알아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새롭게 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사 소감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 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작게나마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은 바로잡고 기획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준비물과 간식을 준비하면서도 참여 대상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랐는데 그 진심이 닿았는지 프로그램 종료 후 몇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정말 재밌어했고 아직도 풀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을 더 키워서 참여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보다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광주문화재단과 미로센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영미술관

아트스위치

ON&OFF:휴 休.HUE

“
일상을 끄고, 예술을 켜다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조주희 교육사가 지향하고픈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맞닿아 있었다. 긍정적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 삶을 지속하기 위해선 누구나 일상을 살아내야 하지만, 잠시
일상을 끄고 자연과 예술을 향유할 때 우리는 또다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예술이 일구어낼 수많은 변화된 일상을 기대해본다.
인터뷰이 조주희 문화예술교육사
인터뷰어 이소영 제13기 모담지기
2022. 11월호 [울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가족
교육 장소	드영미술관 교육실
교육 장르	미술
문의	T. 062-223-6515 E. deyoung2018@naver.com

단체소개
광주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드영미술관은 2018년 개관한 제1종 미술관으로 영원한 젊음을 모
토로 개관. 국내외 예술가들의 전시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신진·청년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가족과 함께 자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며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보고자 하
였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체험활동과 오감명상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가족이

교육사 소감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기획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 처음 교육프로그램 기획으로 고민하며 시작했었는데 어느새 사업 마무리를
하며 아쉬운 마음입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이야
기, 노하우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배우며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
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사 선생님과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
셔서 뿌듯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저의 기획 의도나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도 자연을 느끼고 마음
의 여유를 찾으며 프로그램을 즐겨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
술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인드를 얻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문
화예술교육사가 되겠습니다.



영산강문화관

영산강쓰레기UP! GO퍼포먼스

“
예술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요. 멀리 넓게 볼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인터뷰이 우신영 문화예술교육사님
인터뷰어 오솔비 제13기 모담지기
2022. 10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초등학교4-6학년
교육 장소	영산강 문화관 교육실 및 필로티
교육 장르	다원(연극, 미술, 놀이, 환경)
문의	T. 061-9335-0862 E. wsr22c@naver.com shyomay@kweco.or.kr

단체소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영산강문화관은 우리나라의 강, 물, 문화, 환경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강, 영산강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원헬스 개념을 중심으로 영산강의 생태계를 알아보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직접 동식물이 되어 느끼며 공감하고 ‘에코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4차시에 걸쳐 진행합니다.

교육사 소감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삶에서 작은 점이라도 찍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간, 자연, 동물의 건강은 하나라는 ‘원헬스’ 개념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 기획은 유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만 즐겁다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획 의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기획 단계부터 많은 피드백 회의, 예술 강사들과의 의논, 그리고 재밌어하며 2기 전부를 참여해 준 아이와 시간이 빨리 지나 아쉽다던 아이들, 어디가면 선생님들을 볼 수 있냐는 아이들까지 지난 8개월간의 시간은 아프고도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접근해 보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강하미술관

꼬마 에코SEA!

“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참여자로서 받았었던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 좋은 추억이 참여자들에 삶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고 싶다.

인터뷰이 이강하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 백지영

인터뷰어 김수진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2022. 11월호 [올림]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 대상	초등학생
교육 장소	이강하미술관
교육 장르	미술, 환경
문의	T. 062-674-8515 E. lkhart0207@gmail.com



단체소개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故 이강하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시대별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교육 등을 통해 미술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기관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 바다 환경의 문제점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이미지를 그리며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일상 속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육사 소감

<꼬마 에코SEA!>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배우며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무한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통해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공유해 보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꿈꿔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내가 만났던 바다에 대한 기억, 검정토끼 동화책을 읽으며 바라본 우리 동네의 모습, 바다동물이 되어 바라보는 바다의 아픔, 바다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노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말은 “검정토끼(=쓰레기)가 불쌍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억지스럽게 마주하게 될 쓰레기들을 아이들은 예술가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힘은 일상적인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25명의 꼬마 에코씨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은 저를 더욱이 성장시켜 줄 수 있었던 예술의 밑거름이자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과 이야기가 모여 넘쳐나는 예술적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두 달여간의 시간은 바다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넓은 예술의 바닷속을 향해하며 미래를 함께 나아갈 우리 꼬마 에코씨 친구들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명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01. ~ 12.
사업내용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유아 신체 및 정서발달과정에 부합한 “놀이”를 매개로 한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예산	200,000천원

주요성과

5^개 / 2^명

단체 및 기획자 선정

7^개

프로그램 운영

1,367^명

유아 참여

47^개

유아 교육 기관



광주광역시 숲유치원협회

꼬방꼬방 오방색아!



광주광역시숲유치원협회는 산림교육 및 한국형 숲유치원의 운영을 통하여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숲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단체소개

「꼬방꼬방 오방색아!」 오방색은 오행사상을 상징하는 색을 의미하며, 방(方)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의미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이념을 담고 있다.

영·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해 접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소개

운영결과

총 18개 유아교육기관, 620명 유아 참여

유아들에게 실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문화예술로 접목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주변을 산책하면서 자연 안에서 직접 다양한 색을 경험하게 하고, 염료 추출을 바탕으로 염색활동을 하고, 오방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주변환경을 꾸몄다.

염색 해놓은 천으로 주변을 꾸며놓으니 아이들 입에서 연신 '너무 예뻐요', '공주님 방갈아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외 거미줄을 밧줄로 설치하고 거미와 먹이가 되는 곤충을 표현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신체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다보니 기관마다 환경이 너무 달라 준비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도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즐거운 마무리를 하였다.



광산구청 놀이요점방

용아와 꼬마소리꾼



단체소개

다양한 분야의 기획자, 예술가 및 예술강사가 협업하여 ‘예술’을 ‘놀이’처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단체로 놀이요점방에서 진행하는 <용아와 꼬마소리꾼>은 놀이, 예술, 교육이 한데 어우러져 유아들과 함께 교감하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이다.

사업소개

‘용아와 꼬마 소리꾼’은 판소리를 통해 아름답고 풍부한 언어의 세계를 경험하고, 유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발현되는 상상력으로, 밝고 긍정적인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마음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운영결과

총 11개 유아교육기관, 340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운 연령층이 유아들이다. 어른인 우리도 유아 시기의 언어와 사고를 경험했지만, 그 기억이 희미해져버린 지금, 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단체 대표로서 사업을 이해하고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듬어 현장의 일선에 있는 예술강사들에게 이해시키

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유아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웃음을 지켜볼 때면 그간의 노력이 보상 받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업이 지속되면서 익숙해지기 보다는 새로운 상상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도록 지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놀이요점방 대표 이보미 -

놀이요점방이 본 사업을 통해 유아들을 만난지 3년차이다. 유아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악이라는 분야가 어색하지 않고 재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가는 과정에는 놀이요점방에서 함께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강사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놀이요점방은 소리탐색과 몸짓 활동을 프로그램에 녹여왔다. 국악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고,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문학 장르인 시와 국악 장르인 판소리를 융합해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프로그램이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유아들은 생애 주기 관점에서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시기에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각을 깨우치고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획자, 예술강사의 역할이다.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 '용아와 꼬마 소리꾼'은 프로그램 안에서 유아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에 못지 않게 놀이요점방에게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 놀이요점방 기획자 이다정 -



유연미술관

꼬마예술가 아트챌린지



단체소개

무한한 정보와 IT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적인 소재의 흙과 나무를 다듬으로써 예술과 함께 감성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꿈꾸며 예술로 사고하고 즐기는 곳이다. 일상 속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하는 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문화예술로서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향유할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업소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흙, 나무, 바다를 소재로 함께하는 릴레이 아트챌린지 형식으로 흙을 탐색하고 기차타고 떠나는 바다여행이다. 바닷 속 물고기와 함께하는 도미노 놀이, 바닷 속 릴레이 모험 공공미술 아트챌린지를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문화예술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증진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공동작업으로 풀어내었다.

운영결과

총 8개 유아교육기관, 144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제한된 공간이 아닌 드넓은 자연과의 융합교육으로 자연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스템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등 문화예술교육을 대체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직접 우리 아이들을 대면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감성을 두드리거나 개인별 성향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소통의 아쉬움, 정서적인 교감이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경우 보다 더 제한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매우 아쉬웠다. 하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야기를 아이들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

술래야 놀자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단체소개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는 우리의 민족예술인 판소리의 전승 및 보급 발전에 기여하고자 판소리 및 민족예술의 전수교육, 연구발표회, 악보 발간 등의 사업을 실행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전통문화 예술체험 및 국민정서함양, 문화 복지 신장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다.

사업소개

‘술래야 놀자’는 강강술래 놀이가 가지고 있는 통합성과 강강술래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서 협력, 질서, 배려를 경험하게 하고, 생활 주제와 연결하여 놀이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유아들은 서로 서로 유아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운영결과

총 5개 유아교육기관, 110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국악은 지루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자 전통은 옛것이 되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국악은 명절에나 한 번씩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예술이 되었고, 그마저도 익숙하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채널을 돌리기 일쑤이다.

신규임용된 음악교사들은 국악도 시험을 보고 통과하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기존 음악교사들은 국악을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국악이 소외되었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유아기에 국악교육을 진행하고, 한 번쯤은 국악을 접해보아 교과과정에 있는 국악에 대한 낯설음을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술래야 놀자’를 기획하게 되었다.

학습보다는 놀이를 통해 국악을 접하여 즐거운 기억을 갖도록 하는게 목표였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다며 후기 사진을 공유해주시고, 키즈노트에 사진과 동영상상을 첨부하여 학부모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깊은 감사드리고, 교육을 담당하신 강사들, 연구진들, 협조를 해주신 유아기관의 모든 분들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2. 기관문화사업



문화예술공동체 단빛

얼썬! 판소리로 놀자 - 별주부의 별별여행



단체소개

문화예술공동체 단빛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들과 유아전문강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예술은 난해하고, 누구나 접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모토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접근의 폭이 넓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애 예술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유아문화예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유아들이 예술가로 자라나길 희망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업소개

프로그램은 유아교사가 우리 고유 전통음악인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판소리놀이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4차시로 구성되어있는 본 프로그램은 각 대목별로 소리꾼 이야기와 수궁가 대목이 포함된 영상, 놀이 지도안, 놀이 자람, 놀이 확장 예시안, 그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판소리적 요소(추임새, 시김새, 아니리, 발림)로 다양한 판소리 놀이를 전개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운영결과

총 1개 유아교육기관, 60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우리 교실에서 유아교사가 예술가 없이 판소리를 활용하여 놀아보고 예술적 표현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유아교육현장에서 판소리가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교사가 손쉽게 유아들에게 판소리를 활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었다.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유아교육의 방향에서 유아의 흥미에서부터 시작되는 놀이가 아닌, 유아 교사가 직접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안을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유아교사가 다 외워 수업을 해야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 보다 놀이 지도안, 놀이 자람, 놀이 확장 예시안 이라는 조금 더 열린, 자유로운 형태의 판소리활용 놀이를 제시 하여 현장 교사들이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제시하였다.

현장 협력 연구원들을 보면 “얼씨구! 좋다!”, “오늘을 어떤 소리 들려줄거예요?” “판소리 선생님은 마법사예요?” “제가 소리길 만들었어요” 라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힘들게 연구한 것에 대한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서하림 기획자 뭉글뭉글 음악놀이

바이올린 전공 후 유치원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이로 근무하며
유아 음악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놀
이, 뮤직동화 등을 악기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만들고 있다.
현재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과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등을
기획자와 강사로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사업소개

소리잡기 놀이는 유아들의 소리를 듣는 법, 소리와 노는 방법, 소리를 만들어보는 방법등 생활
소음과 백색소음, 음악으로 커지는 우리주변의 흔한 소리들이 예술놀이 소재가 되는 놀이이며,
악기 체험 놀이는 악기를 통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소리의 느낌, 악기를 만들어보고 체
험한다.
악보만들기는 단순한 그림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보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재미있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다.



운영결과

3차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종 개발 / 총 2개 유아교육기관, 30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재미있겠다. 하고 싶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 전 워크샵을 듣고 난 나의 마음이었다. 아
이처럼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또래보다 순진하고, 아직 나는 순수하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놀이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화를 내는 그런 어른아이였다고 생
각하고 살아왔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도 어른이었다.

유아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새 수업구성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욕심껏 정제하고 규칙을 만들고, 제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해
진 시간과 틀에 더 많은 내용을 넣기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대며 합리화 시키고 있었다. 많은 회의
와 컨설팅 끝에 버림이 필요함을 느꼈다. 시연을 시작하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나의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나의 욕심은 과함이 맞았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놀이를 풀어나가고 수업을 이끌어갔다. 어느새 나도 함
께 웃고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예술을 알려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었다. 그 예술을 나누는 방법
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예술가로서 도와주면 된 다는걸 알게 되었다. 그래 조금 틀리
면 어떻고 조금 실패하면 어떻냐, 유아기가 실패하고 배우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으려면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실패하며 내가 그들에게
배우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예술이 생겨나고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안 흔들리려고 버틸 때마다 크게 흔들어주신 컨설팅 시간에 감사하고, 이 모든 과정 처음부터
같이 걸어주신 강사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보내고 싶다.

신해인 기획자

사진으로 표현하는 나와 세상 '찰칵, 카메라야 놀자'

영화영상과 멀티미디어영상을 공부하고, 현재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고등학교 때 대안 교육을 받고, 대학교 때 연극영화 교직이수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상을 만나왔다.
현재는 기획자와 예술가가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자로 활동하고자 교육 단체 디딤돌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소개

우리에게 카메라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하다. 특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주로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카메라를 든다면 어떨까?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물리적 셔터가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다. 어떤 사진을 찍게 될까? 멈춰진 사진에서 나오게 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마주할 준비도 마쳤다. 찰칵, 카메라야 놀자!

운영결과

3차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종 개발 / 총 2개 유아교육기관, 13명 유아 참여

참여소감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함께 일 해보는 첫 공모사업, 그리고 처음 만나는 대상이 무려 유아였다. 대상이 유아라는 것은 대처하는 방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었다.



자유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지도 고민이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하여 세세하고 명확한 수업계획을 세우자 미션 수행이 되었고, 자유로운 방식은 흥미와 집중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요소가 되었다. 결과물에 집착하게 된 부분도 아쉽다. 유아 개별의 속도를 고려하여 더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게 배려해주지 못 했다.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과 연결되는 활동을 고안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계속 수정을 거듭했다. 여러모로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오히려 유아를 만났기 덕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명확해졌고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술교육이란 무엇인지 나에게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 유아들이, 학생들이, 사람들이 예술가를 만나 예술교육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만의 견고한 철학을 갖추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었다. 소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어떠한 방법이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또 어떤 질문을 가져가야 할지가 최대 과제였다. 특별 활동의 장점을 더 부각했어도 좋을 것이다.

순간순간 유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견했을 때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새로움이었다. 부족했지만 유아들에게도 재밌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 또 만나게 될 대상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우리는 분명 성장한 예술가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기반사업

정책기반사업은 광주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반적 동향 파악을 위해
정책 개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

지역·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
수립 및 네트워크



사업명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
사업기간	2022. 5.~12.
사업내용	<div><div>•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수립 연구 용역 추진</div><div>※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4항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div><div><div>용역입찰 22.8~9</div><div>→</div><div>연구용역 (광주전남연구원) 선정 및 실행 22.9.16~23.1.31</div><div>→</div><div>계획수립 완료 연구 보고서 제출 ~23.1.31</div></div><div>• 지역 내 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논의 추진</div></div>

사업예산	60,000천원
------	----------

주요성과	<div><div>7회</div><div>예술시민이 되다</div><div>전문가회의,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횡수</div><div>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 계획 (2023-2027) 비전</div></div>
------	---

추진일정	일정	연구 용역	계획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2022. 5.~6.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2022. 9.	착수 보고 광주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2022. 10.~12.	연구진 회의(5차) 전문가 FGI 공청회(2차)	전문가 회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모색워크숍
	2022. 12.	중간 보고 공청회(2차)	전라제주권 광역 네트워크 포럼 유관기관 및 전문가 실무협의회
	2023. 1.	결과 보고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목적	지방이양 등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지역 주체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의견 나눔의 장 마련
추진 기간	22. 5. ~ 12.
추진 내용	전문가자문회의, 라운드테이블, 포럼 등 다양한 논의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회의일	회의명	회의내용 / 참석자	비고
22.04.25(월)	전문가 자문회의	1차 문화예술교육 이행 현황 점검 및 2차 문화예술교육계획 추진 논의 정경운(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정민룡(북구문화의집), 최지만(삶지대연구소)	
22.05.23(월)	지역 의견 수렴 간담회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정책방향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안태호(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천혜원(동구미로센터), 김옥진(마음놀이터), 박형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호남·제주 문화예술교육관계자 등 29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주최
22.06.22(수)	전문가 2차 자문회의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 용역과업 및 추진 절차 제안 정경운(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정민룡(북구문화의집),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최지만(삶지대연구소), 박형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김성훈(광산구청)	
22.10.14(수)	모색워크숍 사전회의	모색워크숍 추진을 위한 방향 및 키워드 논의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천윤희(전/광주비엔날레), 박우주(북구문화의집), 이보미(놀이요점빵), 김천웅(광산구청)	
22.10.14(수)	문화예술교육관계자 모색워크숍	주제별 워크숍 구성 및 논의 • 광주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일까 • 광주문화예술교육을 지속 확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삶 주변과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까?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예술인, 기획자 강사 등 37명	
22.12.08(목)	전라·제주권 광역 네트워크 포럼	전라·제주권(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관련 발제 및 토론 전라·제주권 계획수립 연구진 및 지역 전문가 30여명 등	전북문화재단 주최
22.12.09(금)	실무협의회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 추진 방향 제언 및 논의 정경운(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설상숙(서구청청소년문화의집), 정민기(봉선청소년문화의집), 천행복(광주시교육청), 김은영(광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공동 진행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수립
연구 용역 추진



추진목적 광주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존계획 현황 분석과 과제 도출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이 담긴『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 계획(2023-2027)』수립

추진내용 정책적 이슈 도출, 연구 및 회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추진

계획 방향성의 키워드 지역사회가 시행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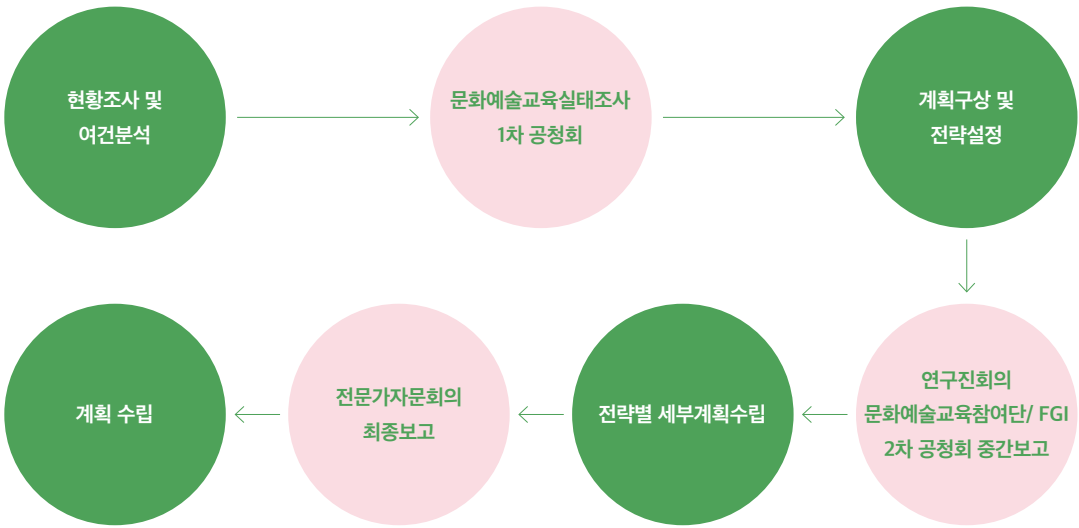
#위상강화 향후 5년간 법적 근거가 명확한 로드맵으로 활용

#참여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열린 계획 지향하여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감시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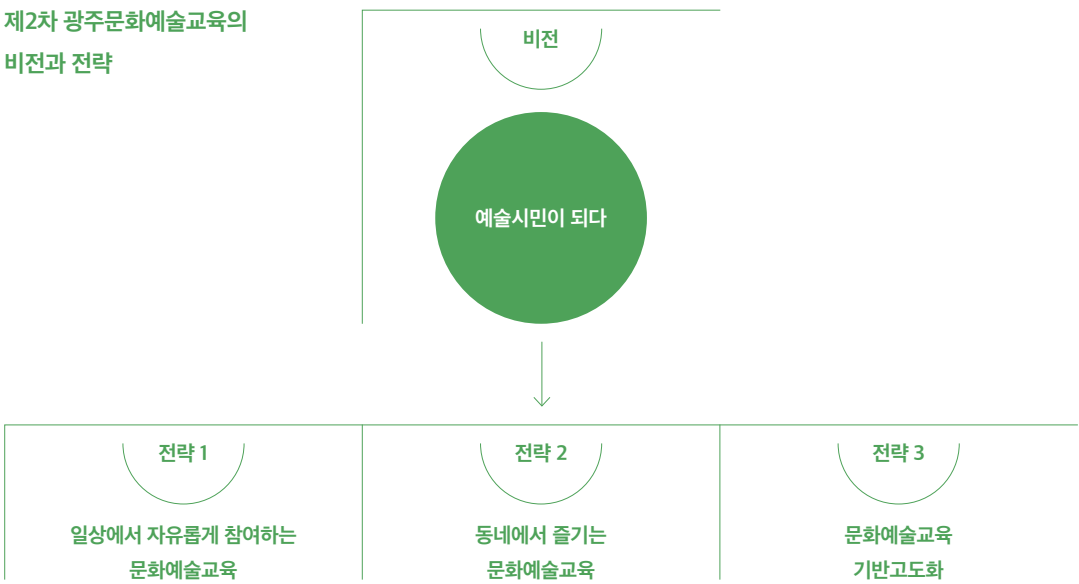
#협업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책임지는 계획에서 탈피하여 센터가 주축이 되고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시행하는 계획

#확산 개인, 가정, 마을, 사회를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추진과정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전략



광주문화예술 교육기관협의회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사업명	광주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사업기간	2022. 7. ~ 12.		
사업내용	협의회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사업별 교류프로그램 가능여부 확인 및 교류사업 발굴		
사업예산	50,000천원		
주요성과	<div> <div>5회</div> <div>협의회 운영</div> </div> <div> <div>14개 기관 / 14명</div> <div> <div>(전문가12 / 당연직2)</div> <div> <div>협의회 소속 기관</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5) : 5개구 문화의집 • 학교교육(2) : 교육청 등 • 교육사업 유관기관(5) : 유아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등 • 시청(1) • 재단(1) </div> </div> </div> </div>		



제1차 회의

- 회의 일시 '22. 8. 8.(월) 15:00~16:30
- 회의 장소 재단 4층 다목적실
- 회의 내용 '광주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운영목적 및 협조 요청 등

제2차 회의

- 회의 일시 '22. 12. 09.(금) 15:00~18:00
- 회의 장소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 회의 내용 제2차 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계획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따른 세부내용 전문가 의견 수렴(유관기관 연계 계획 수립 논의 등)
※ 보다 많은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위해「제2차 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함께 진행

제3차 회의

- 회의 일시 '22. 12. 13.(화) 14:00~15:30 ※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유관기관 간담회와 같이 진행
- 회의 장소 재단 3층 대회의실
- 회의 내용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업무협의



제4차 회의

- 회의 일시 '22. 12. 14.(수) 14:00~16:00
- 회의 장소 재단 4층 다목적실
- 회의 내용 지난 12월 9일(금)에 '광주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계획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세부 논의 등
※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공청회와 함께 진행

제5차 회의

- 회의 일시 '22. 12. 27.(화) 10:00~11:30
- 회의 장소 광주시 교육청
- 회의 내용 제2차 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계획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세부 논의 등



함께한 사람들

4

함께한 사람들

강현미



세상합한문화예술교육을 꿈꾸고
유아가 예술로놀면 도시로 예술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면서
‘우리 모두 예술이 필요해’라고
외쳤던 올 한해,
무너졌던 마음의 오방성을 다시 쌓고
다정한 참견에 위로받은 시간들이
끝나감을, 시원섭섭하다는 말만으로
표현할수 있을까요.
치열한 고민과 따뜻한 진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주신
운영단체와 기획자님들,
밀도높고 감도높은 하루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팀원들,
모두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고맙고 애정합니다.

김선주



언젠가 친절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어느 단체의
소감을 듣고 올한해 팀장님과 팀원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조금이나마 다가간거
같아 안도하며 보람을 느꼈던 2022년.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던 팀장님과
팀원분들, 운영단체들 모두 다함께
서로서로 토닥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와
단체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박재홍



‘말랑말랑’
재단 입사이후 처음 들어본 단어!!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우리 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박수현



그동안 그저 눈에 보이는 성장에
더 욕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성장’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내가 내린 답은 ‘내적 성장’
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나를 믿는다” 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2022년도 이었다.
이 모든 건 하이텐션 초공정 팀원들과
함께 해서 가능했던 일.
올 한해 누구하나 빠짐없이 참 애썼다!

김유정



2년 공백의 시작은 긴장 가득했다.
그 긴장이 무색할 정도로 후다닥 달려온
것 같다.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괜찮다 했는데 역시 그랬다.
추진력과 포용력있는 팀장님과 늘 즐겁게
자기일 처럼 함께한 쌤들이 있어 든든한
2022년이였다.
온갖 감정 다 티내며 오지랖 부려도
웃으면서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문화예술교육이 모든이의 삶에 자극제가
될수있도록 오지랖 더 부려보겠습니다.

정윤정



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어려운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말해줬던 ‘문화예술교육은
가치덩어리야’ 라는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납득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가 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를 다 보내고 나니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려던 저를 깨워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음표에 느낌표로 대답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팀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8월에 갑자기 나타난 저를 다정하게
맞아주신 운영단체, 기획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더 잘하겠습니다.

강다예



사랑이던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주인공들을 설렘으로 맞이했고,
푸르름이 가득했던 여름날의 햇빛은
단체들의 열정과 땀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보다 강렬하지 않았고, 단풍으로
물들어 가듯 문화예술교육이란
물들어짐이 눈부셨던 모두의 축제는
까르륵소리로 가득한 찬란한 가을밤을
만들었고, 눈송이가 떨어질 때가오자
새로운 이야기들이 꿈틀거린다.
모든 계절이 이야기로 풍부했던 올 해.
무언가를 해아했기보다 하고자하던
마음들이 모여 더욱 빛이 났던 것 같다.
온정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정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사람이 없다’ 는 문장이 잘
어울리는 문화예술교육.
2022년은 몸소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또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문화예술교육팀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같이 의기투합하여 진행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주신 팀장님과 모든 팀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김건희



센터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했던 김건희!!
설레는 마음과 함께 시작하고 아쉬운
마음을 품고 갑니다. 순간순간의
희로애락이 이젠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한 챕터를 채워준 교육팀!!
감사해요~ (잊지 않고 꺼내 볼게요.)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만난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부에서 뵈게 되면 저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으로 다가갈지도 몰라요~
놀라지 말아 주세요.^^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문화예술교육팀 응원합니다.
모두의 내년을 위!!하!!여!!

MEMO

MEMO

모음

발행기관	
발 행 처	광주문화재단
발 행 인	황 풍 년
발 행 일	2022년 12월
기 획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담 당	강현미 박수현
주 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길)
전 화	062-670-7452
팩 스	062-670-7459
홈페이지	www.gjarte.or.kr

디자인업체	
업 체 명	디자인창작소 사월
전 화	062-383-6381
이 메 일	sawolstyle@naver.com
홈페이지	https://www.sawolstyle.com

2022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 음